건축이 들려주는 이야기

Tale Told by Architecture

글. 채민기_ Chae, Min-gi ·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을 담당할 때 썼던 예전 기사가 문득 다시 생각났다. 당시 한창 뜨기 시작하던 '서촌(西村)' 일대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나는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도 모퉁이마다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때가 2009년이니까 옥인시범아파트가 헐리기 전이었고 화려한 카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딜쿠샤(Dilkusha)를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홍난파 가옥을 지나 좁은 골목길 끝에 다다르니 아마도 행촌동(杏村洞)이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가 됐을 은행나무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옆으로 붉은 벽돌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의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이국적인 이름의 이 집이 백년 가까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본 기사엔 딜쿠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딜쿠샤를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마 상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화에 나올법한 예쁜 집을 상상했는데, 눈앞의 딜쿠샤는 낡고 쇠락한 모습이었다. 주인이 서울을 떠난 뒤 사실상 버려진 집에 오갈 데 없는 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붉은 벽돌벽 주변에 이런저런 가재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얼마 전 '호박 목걸이'(Chain of Amber)라는 책을 읽으며 딜쿠샤를 다시 떠올렸다. 이 책에는 '딜쿠샤 안주인 메리 테일러의 서울살이 1917~1948'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딜쿠샤 집주인으로 알려진 앨버트 테일러의 부인 메리 테일러가 삼십 여년 한국에 살며 보고 느낀 점들을 엮은 책이다.
앨버트 테일러는 1919년 3·1운동을 세계에 처음 전한 UPI통신 특파원이다. 그가 한 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 줄로 적은 연도(年度)와 행적에서 인물의 체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1923년 처음 지을 땐 서울에서 제일 큰 주택이었다는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주는 것은 부인이 남긴 이야기다.

딜쿠샤

책을 읽고 딜쿠샤에 다시 가 봤다. 고단해 보이는 모습이 전에 봤던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느낌은 새로웠다. 지금 딜쿠샤의 2층 포치(porch)에는 얼기설기 벽과 창이 둘러쳐 있다.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포치에 서서 주황색 쿠션을 연신 하늘로 던져 올리던 메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일본 경찰이 남편을 연행해간 뒤 가택연금을 당했던 안주인은 포치에서 망원경으로 서대문 형무소 쪽을 살피다 남편을 발견했고, 남편의 눈에 띄길 바라며 평소 즐겨 입던 옷과 비슷한 색깔의 쿠션을 던져 올렸다고 한다.

기약도 없이 헤어진 남편에게 그렇게라도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지금 딜쿠샤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와 재개발 현장의 크레인도 어느새 사라지고, 그 옛날처럼 언덕 위의 딜쿠샤가 형무소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그려지기도 했다.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소소한 이야기가 역사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건물의 법적 소유권 문제도 있어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지만 보존의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다.

어쩌면 건립 100주년쯤에는 새단장한 딜쿠샤의 포치에 서서 서대문 형무소 쪽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때 다시 서촌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된다면 딜쿠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특집 설문조사

Special Survey fo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50th Anniversary of Founding

1. 공간사옥	2. 프랑스대사관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 선유도공원
5. 절두산성당	6. 수졸당	7. 쌈지길	8. 서울대미술관
8. 포도호텔	10. 서울시청	10. 어반하이브	(순위)

본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호를 준비하며 전국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건축물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며, 그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상위에 올랐던 건축물들이었다. 그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물론 건축물의 선호를 조사하고 순위를 정하는 행위는 다분히 위험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설문을 시행한 것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의 시각을 알아보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물들이 완공된 몇 년 사이의 여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결과를 보면 김수근의 공간사옥과 김중업의 프랑스대사관이 예상대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좀 싱거운 결말이다). 그리고 양화대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조성룡의 선유도공원과 이희태의 절두산 성당이 4위와 5위에 올라있다. 두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핵심적인 정신인 땅과 시간에 대한 존경이 묻어 나오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건축의 소중한 재산들이다.
다만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는 건축물인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예상을 깨고 3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이다. 그 건축물은 외국 건축사가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했으며, 실행과정에서 애초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많은 우려를 뒤로하며 난이도 높은 공사를 무난하게 완수했다는 사실과 완공 후 얻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그 건축물을 높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기에 이 평가가 단순히 최근의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오랜 시간 두고 볼 일이다.

공간사옥 © 박영채

또한 객관식 설문이어서 그에 대한 건축사들의 솔직한 견해를 듣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90년대 이후 한국성을 학습하고 이 시대의 한국 건축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 평가되는 수졸당과 쌈지길이 그 뒤를 이어 6위와 7위를 차지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의 어느 나라건 각자의 문화가 있다.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독특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축문화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장구한 역사가 36년이라는 짧은 외세의 강점기를 거치며 어디론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의 정신과 구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적 불명의 의사서양(儀似西洋) 혹은 의사일본(儀似日本)풍의 건축이 들어앉았다.

그리고 건축의 완성도는 누가 더 외국의 건축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가에 성패가 갈리는 이상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90년대는 그런 의미에서 무척 뜻 깊은 지점이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 생기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이 진행되었다. 그런 경향에 대한 건축적인 대응이 수졸당에서 나타난다. 전통의 의장적 표현이 아닌 공간 자체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가

비로소 우리의 현대건축에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그런 건축물이었다.
그런 공간의 감각은 인사동에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 쌈지길이라는 건축은 건축과 길이 하나로 되고 서로 느슨한 경계 속에서 완성된다.
공동 8위로 기록된 렘 쿨하스가 설계한 서울대 미술관과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은 무척 상반된 건축이면서 무척 닮은 건축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 미술관은 건축사가 지역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건축관에 입각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조형으로 완성하였고, 포도호텔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한 건축이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두 건축물에 숨은 함의는 각자 건축의 출발점으로 삼은 건축적 원형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드러낸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공동 10위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스위스의 세계적인 건축사 마리오 보타가 설계하고 대기업이 야심차게 기획하여 지은 교보빌딩과 마주보는 위치에 마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작은 규모와 상대적으로 소박한 재료이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조형으로 눈길을 끄는 김인철의 어반 하이브가 뽑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10위에 오른 건물은 서울시청사이다. 이 건물 역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만큼 크게 평이 갈리는 건축물이다. 또한 같은 시장의 주도하에 야심차게 진행된 건축물이다. 그리고 역시 짓는 과정에서부터 지은 후에도 논란이 식지 않는 건물이다.

프랑스대사관 ⓒ 박영채

다만 다른 점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기의 개념이 끝까지 관철되었다는 점이고, 서울시청사는 끊임없는 변경과 여러 번의 설계자의 변경을 거치며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어진 상처뿐인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이 건축물을 놓고 조형의 문제, 사용상의 문제 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공공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업과 공공기관만이 있었으며, 건축사의 자리가 없었다. 이후 그 과정을 추적하여 만든 <씨티 홀>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건축물 준공 후 개막식 때 건축사의 자리가 없어 서울시청의 설계자가 구경꾼들과 나란히 바닥에 앉아서 관람하는 모습에서 현재 한국 건축의 위상 혹은 건축사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을 보며 드는 유감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이번에도 늘 그래왔듯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은 김수근과 김중업의 각축이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과연 공간사옥과 프랑스 대사관의 어떤 점이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해놓았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였다.
절대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영웅에 대한 맹목적이 숭배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두 건축물이 시대를 뛰어넘는 한국 현대건축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찬란한 금자탑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매번 모든 논의에서 두 건축물의 이름에는 '절대값'의 부호가 붙여지고 아무도 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대는 바뀌고 건축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현대건축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70년을 넘겼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거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흘러간 노래나 읊조리고 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건축, 깊은 성찰이 있는 건축이 아직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다.

김수근과 김중업을 뛰어넘어, 우리 땅에서 우리 정신을 살린 건축물이 나오길 바란다.

건축사지로 읽는 공공건축 50년

50 years' Public Architecture Read with us 'Korean Architects Magazine'

글. 노은주_ Roh, Eun-joo · 본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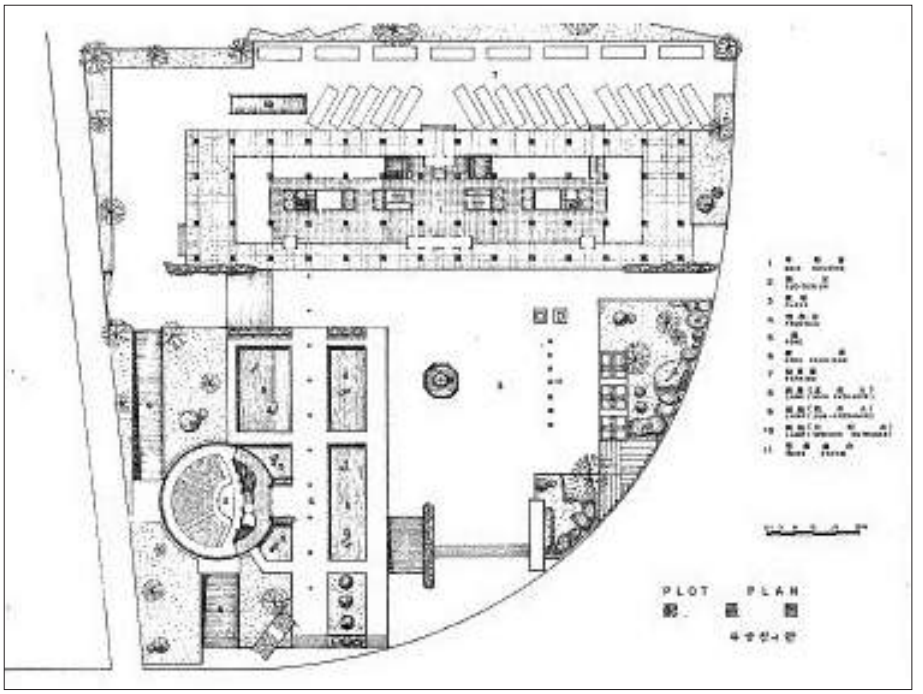
1960년대 말

1968년 3월호 건축사지를 보면, 정부종합청사 나상진, PAE, 김정수, 윤장섭 총무처 안이 소개되어 있다. 배치도와 평면도만 있고 그 배경이 된 복잡한 사연은 별도의 기사로 다루어져 있다.

1968년 1월호 및 당시의 신문 등의 자료를 보면 현상설계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나상진의 계획안으로 진행되던 설계가 발주처의 책임자가 토목기술자 출신으로 바뀌면서 건물 내 기둥이 없어야 한다는 등, 지질조사도 못 믿겠다는 등 이런저런 트집을 잡다가, 일본에 있는 미8군 시설 용역업체였던 PAE에 7배 가까운 설계비(국내 설계비 1600만원, 외국업체 설계비 1억600만원)를 주고 설계자를 변경해 지은 이상하고도 이해 불가한 내막이 있다. 평면도를 보면 코어의 방향이 바뀌고 나중에 입면과 외장 공법이 바뀌게 된다. 당시 건축사협회에서 국내 기술을 불신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었고 언론도 무척 반대했으나, 결국 공사는 그냥 강행되었다.

부여농협청사(건축사지 19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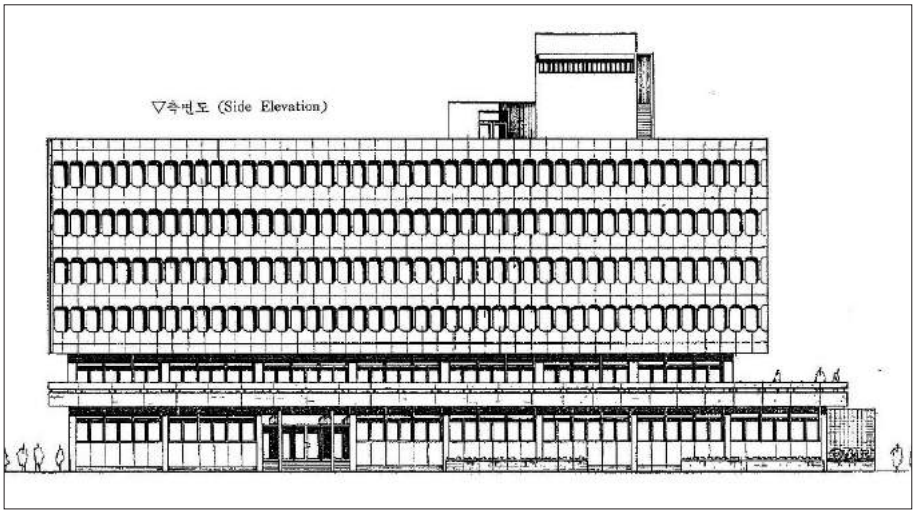
같은 해 발표된 부여농협청사는 1958년 건립된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배한구(배건축설계연구소)가 설계하였다. 근대건축의 영향과 전통건축의 디테일이 접목되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서까래와 처마 곡선을 표현한 점이 놀랍고, 돌출된 헛보와 캐노피의 디테일 등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건축사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놀랍고도 반갑다.



정부종합청사 배치도(건축사지 19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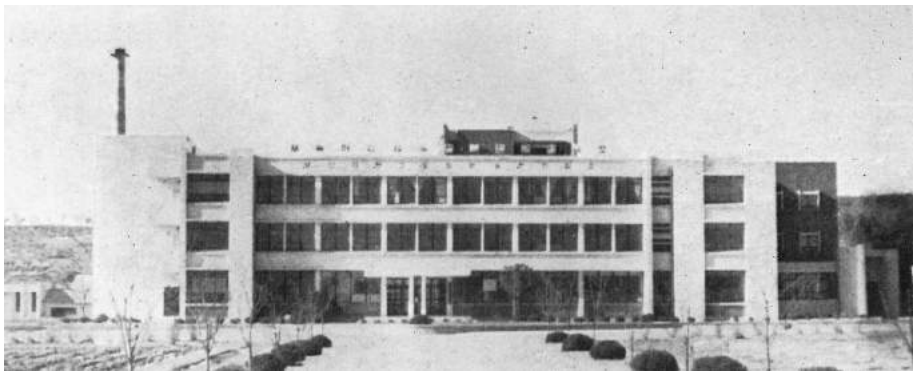
동대문구청사(1968.11)는 강재홍(도시건설연구소)의 작품이다. “처음 시도되는 구청종합청사로서 구청보건소, 수도사업소, 직할 동사무소를 수용토록 되어 있다. 특히 1층에 창구형식의 시민 홀을 두어 일반민원사무의 능률과 보다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배치상 서북, 남서향이므로 중정을 두어 방서, 방음을 고려하였다. 외부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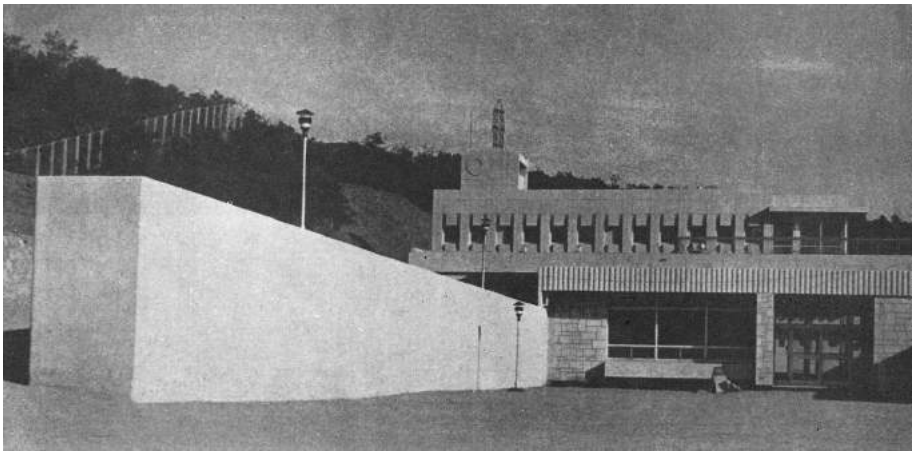
1층에 결핵관리실, 운전수 대기실 2층에 가족계획 상담실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대민시설이 있는 1층에 비해 2층 볼륨을 줄이고 기둥을 노출시킨데 비해 3층에서 다시 넓어지면서 정면에서 볼 때 단순함 속의 변화와 안정감 있는 입면을 표현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사(건축사지 1968.11)

1969년 1월 게재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은 동화건축연구소(대표 안기태, 계획 서상우) 작업이다. 하중을 받는 기둥과 장식기둥의 폭을 달리하여 단정하면서도 변화가 있는 전형적인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물이다. 7월에 소개된 외무장관 공관은 종합건축의 작품이다. 길게 뻗는 가벽과 중심에서 사방으로 바람개비처럼 뻗어나가는 매스의 표현은 미스 반데 로에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깊이를 주면서 상하부를 경사면으로 깊숙이 후퇴시킨 입면이 단조로운 긴 매스에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준다.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건축사지 19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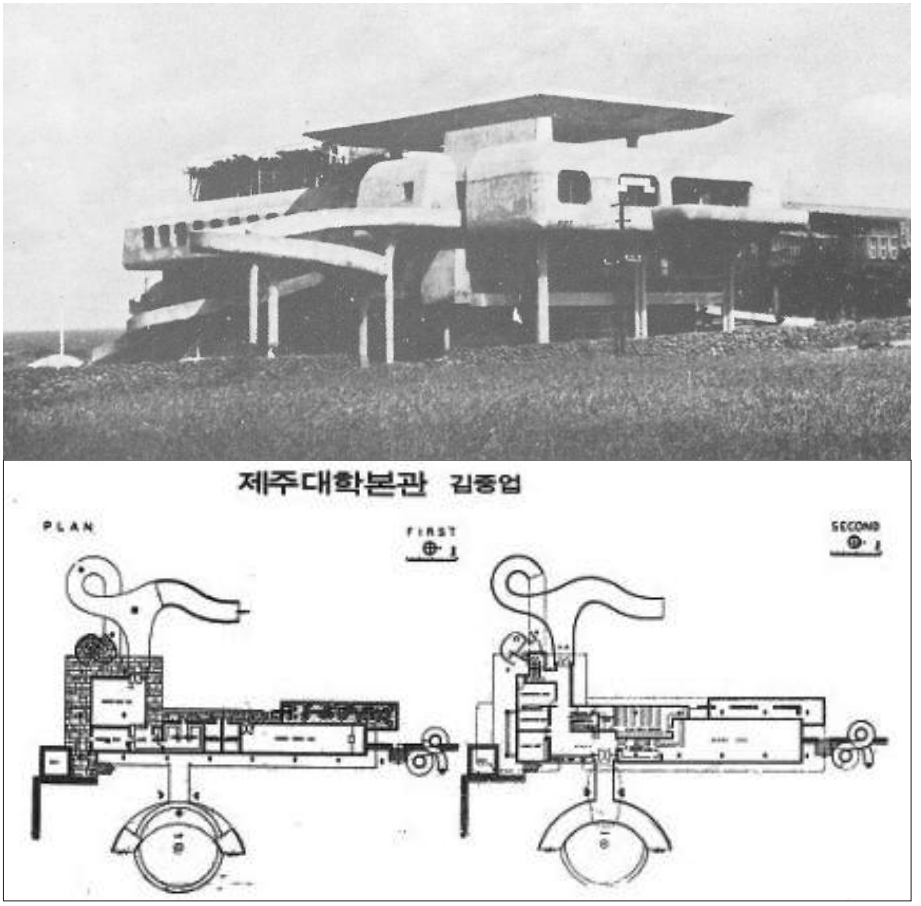
외무장관 공관(건축사지 1969.7)

60년대부터 70년대 초 공공건축에서 정진경건축연구소의 작업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1969년 11월에는 정면의 외부계단과 상부의 돌출 매스가 인상적인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게재되었고, <옥천군 교육청사>(1970.06), <대한결핵협회 충남지부청사>(1970.09), <금산청소년회관>(1972.09) 등 현대적 어휘로 빼어나게 디자인된 건물들은 당시 충청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가 어느새 잊힌 이 건축사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충청남도 여성회관(건축사지 1969.11)

1970년대

1970년 1월에는 김중업의 제주대학본관이 소개되고 있다. 자유로운 곡선의 램프와 부드러운 양감의 매스, 서향의 빛을 여과시키는 사선의 벽 등 지금으로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디자인 언어가 실현되었던 이 건물이 현재는 구조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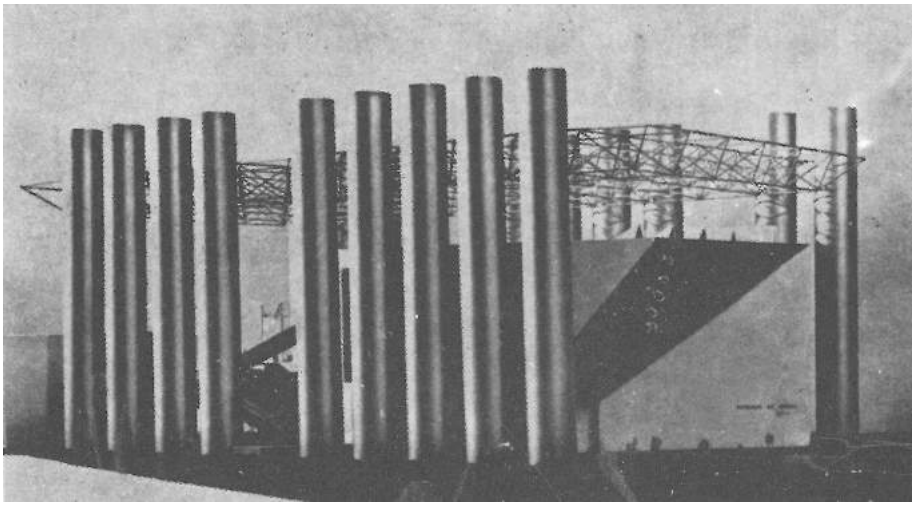
제주대학본관(건축사지 1970.1)

그 뒤에는 김중업의 코리아 패빌리언 스토리가 이어진다. "1968년 가을에 문화공보부로부터 EXPO'70 한국관에 대한 basic study의 의뢰를 처음으로 받고 69년 봄의 착공까지 설계기일이 짧다고 불평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68년 3월에 상공부가 EXPO 사업을 담

당하기로 결정된 이래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만 나머지의 시간이었다. 그 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설계가 진행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었으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건축사는 발전의 여지가 있던 첫 번째 안이 한마디로 비토되고 고위층의 지시라고 하여 경회루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오되 현대화된 엔지니어링으로의 해결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 다음의 몇 달 동안이 경회루 건에 대한 반론을 위한 자료모집에 바쳐졌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이 스폰서가 문공보부로부터 대한무역진흥공사로 바뀌고 발주처가 대안을 확정한 것이 설계를 완료하기 두 달 전이었다는 것이다.

분명 45년 전의 일임에도 요즘도 공공프로젝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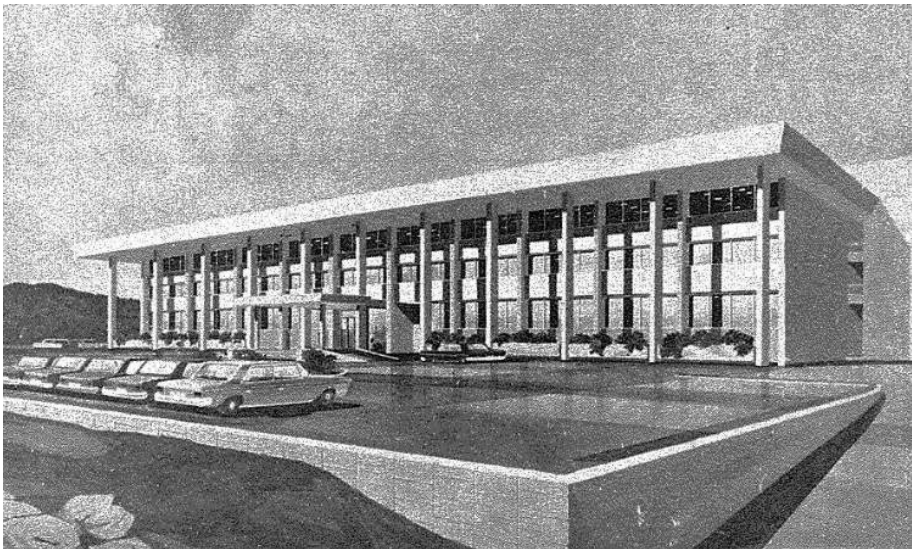
EXPO70 한국관(건축사지 1970.1)

"재치 있는 달변으로 이론화된 일본의 현대건축에 우리의 가능성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 한국적 운운으로 표현되는 국산입면도에서 EXPO 건축의 이미지를 발상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우리는 런던에서 EXPO'67까지의 EXPO 본래의 정서와 오사카 EXPO의 야단스러운 상황, 그리고 EXPO 군중의 환희와 열광을 어떻게 하나의 건축 시스템 속에 최선의 동선조직 속으로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했다 … 우리는 메인 게이트의 축에 직교하여 열주를 늘어놓았다.

EXPO 건축은 보석을 다듬는 작업과는 다른 테크니크로 생각되어야 했다. 주위의

surrounding 모두가 좋은 backing이 되어준 이 열주의 사이로 전체의 흐름에서 파생되는 한국관의 기본 동선조직을 콘크리트의 덩어리로 자유로이 깎아내고 붙여가면서 형상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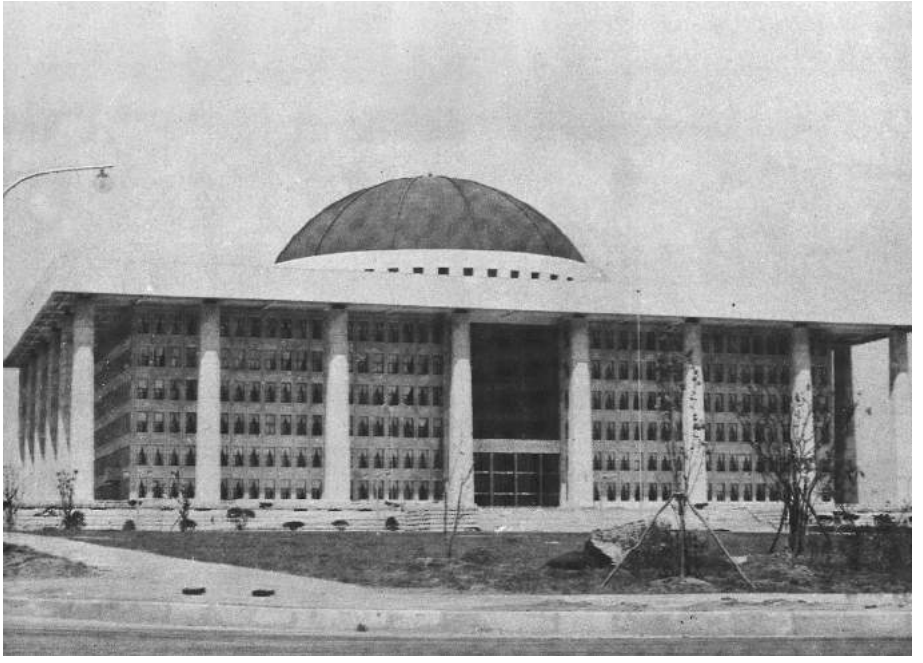
안양경찰서(건축사지 1973.10)



한국도로공사본사 사옥 지명현상설계당선작품(건축사지 1974.2)

70년대 공공건축의 대표적 어휘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안양경찰서(1973.10)는 김대식(김건축연구소)의 작품인데 역시 수평 돌출 띠창에 비스듬히 돌출 콘크리트 루버를 달아 입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본사사옥 지명현상설계당선작품(1974.02) 또한 "백색의 캔틸레버를 길게 살려 건물 음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돌출된 묵직한 지붕을 내밀고 그 아래 수직 열주들이 정연하게 배치되고 건물의 외벽은 후퇴되어 있다. 박성규(합성건축기술공사)가 설계한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1975.03)의 입면도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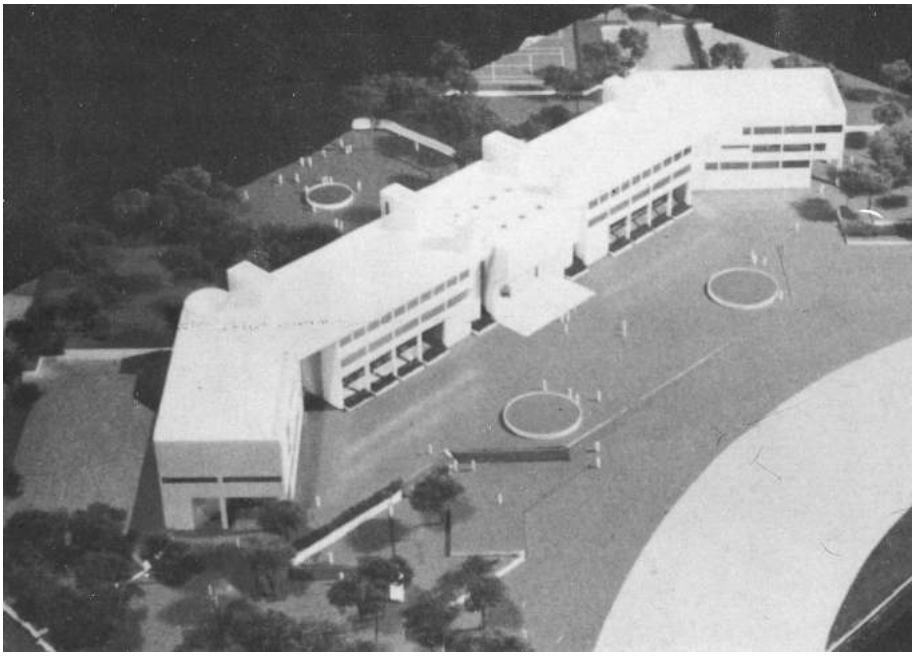
국회의사당(1975.09)은 330,000㎡(10만평) 부지에 81,444㎡(24,680평) 규모로 지어졌고 공사비는 135억 원이 들었다. 1969년 7월 17일에 착공하여 1975년 8월 15일에 준공되었고 시공은 현대건설, 대림건설이 맡았다.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설계는 김정수, 안영배, 이광노가 맡았다. 열주식 건물에 돔을 얹은 것은 의원들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는데, 거기다 원래의 계획보다 높이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이던 수평성과 비례가 무너지고 우리가 모두 아는 어색하고 어정쩡한 건물이 되고야 말았다.



국회의사당(건축사지 19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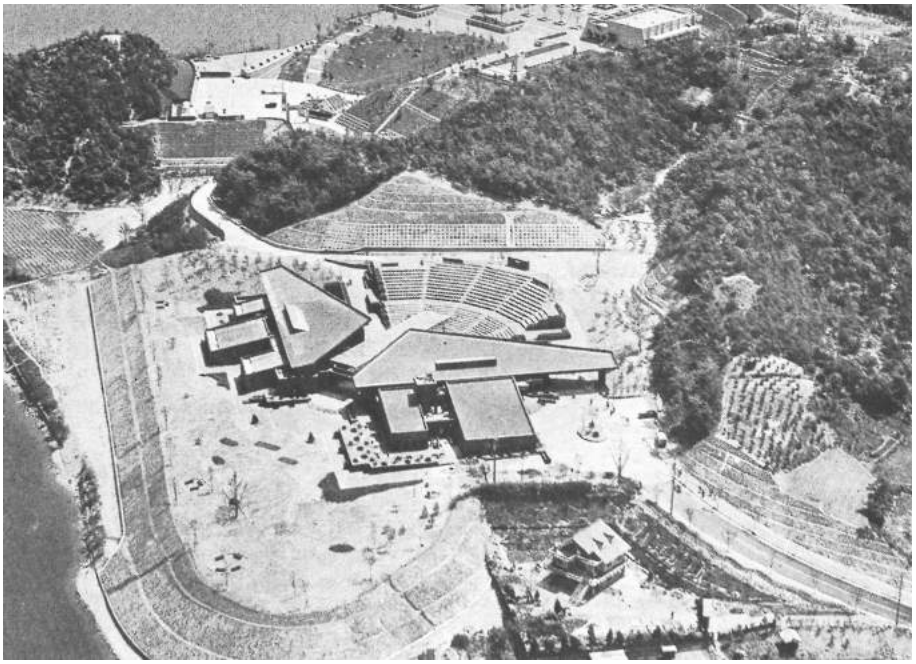
1980년대

부여군청사(1979.09)는 오웅석(신조건축연구소) 설계로 돌출된 지붕에 기와지붕을 응용한 경사진 파라펫을 설치했다.
창원시청사(1980.04)는 정림건축(김정수)는 당시 장방형 평면에 캐노피 부분만 돌출되던 일반 청사와 달리 중앙에 홀을 두되 양쪽 날개가 펼쳐지듯 꺾이며 원형 계단부가 상승하면서 수평성에 변화를 주며 독특한 입면을 만들어냈다.



창원시청사(건축사지 1980.4)

강원도 어린이회관(1980.10)은 김수근(공간연구소)의 작품으로 세계어린이해와 소년체전 등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와 어른 모두 사용 가능한 문화회관격의 건물로 설계되었다.
도보, 자동차, 자전거, 호수로의 보트 진입 등이 모두 가능토록 했으며 야외극장과 회관을 인접시켰다. 배치도를 보면 마치 호수 위로 막 날아오르려는 비행기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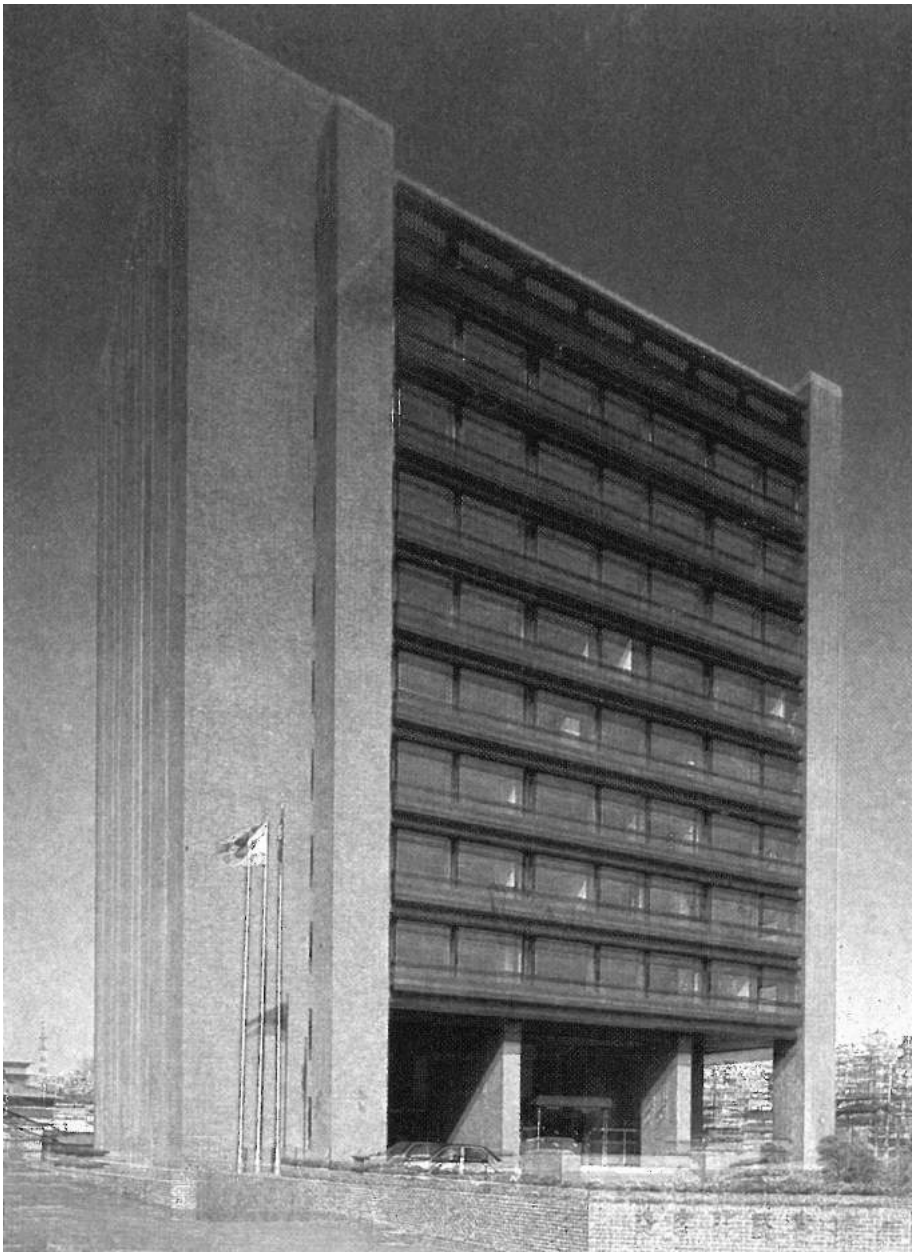


강원도 어린이회관(건축사지 1980.10)

국립묘지관리사무소(1981.03)은 지금의 민속박물관(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을 설계하여 전통건축 계승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강봉진(국보건설단)의 작품이다. 연면적 836.97㎡의 상대적으로 소박한 규모인데, 여전히 공포를 응용한 기둥과 콘크리트난간, 팔각기와지붕과 전돌치장쌓기 및 미색가칠 등 전통건축의 어휘를 적용해 설계했다.

국립묘지관리사무소(건축사지 1981.3)

지방행정회관(1982.04)은 김수근(공간연구소) 설계로 4층에서 10층까지 건물 내부에 광정을 설치하고 과감하게 10층까지 변색벽돌을 외장 재료로 사용하였다.



지방행정회관(건축사지 1982.4)

반월시청사(1982.04)는 이각표, 한영재(엄이건축연구소)의 작품이다. 지금은 안산시가 된 반월신공업도시는 염전 지역이었던 곳을 간척하여 만든 인구 30만의 계획도시였다. 설계자는 신시가지라는 특성을 살리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본관 2층 및 시민홀과 강당 식당 등에 난방효과를 시도했다. 증축을 고려하여 본관, 시민홀, 강당을 분리시켜 계획하여 먼저 완성된 본관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상층부의 돌출은 여전하나 수직 열주는 사라지고 규칙적인 창과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이 눈에 띈다.

반월시청사(건축사지 1982.4)

구미시청사(1983.05)는 이성(대아건축설계연구소)의 작품으로 의회를 6각형으로 배치하고 수직 열주 위의 돌출 매스가 2개 층 정도의 높이로 매스의 변화를 주었다.

구미시청사(건축사지 1983.5)

창성동사무소(1984.02)는 서진우(하나건축연구소)에서 설계한 연면적 747.54㎡ 규모로 사무동과 계단실을 분리하고 창의 비례를 잘 살려 단정한 외관을 만들어냈다. 과도한 어휘로 복잡해진 2000년 대 이후의 동사무소에 비해 단순함 속의 정연함이 오히려 최근 유행하는 입면 형태와 닮아 있다.

창성동사무소(건축사지 1984.2)

국립과학수사연구소(건축사지 1987.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1987.12)는 우시용(건축사사무소 시공)의 작품으로 중정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3개의 매스를 양쪽으로 배치하되 중앙에 원형 코어를 설치하고 전면의 수평창 사이에도 원형기둥을 삽입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건물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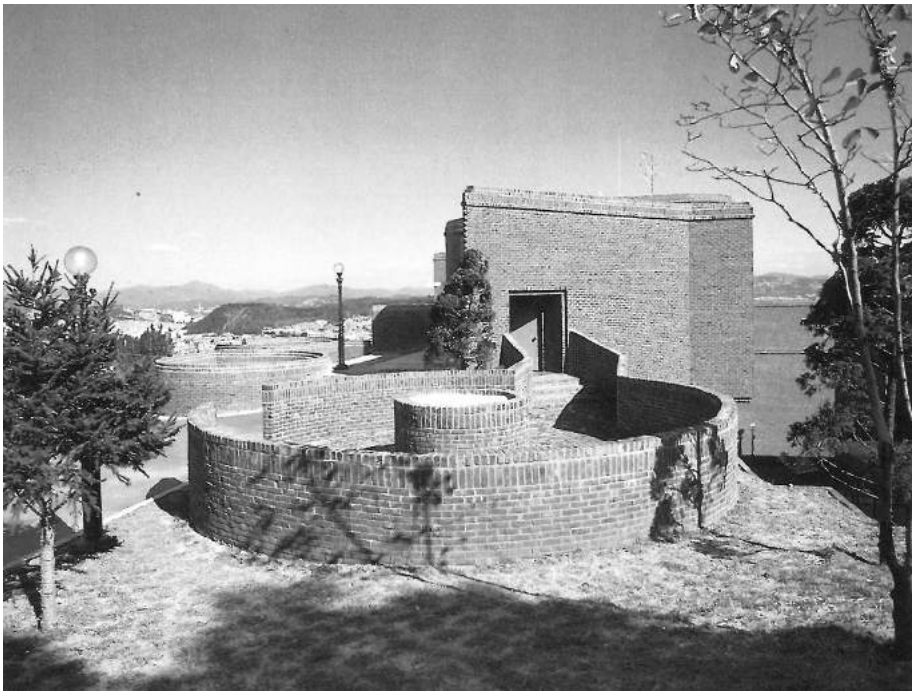
서울법원종합청사(1989.09)는 김수근(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으로 평소의 건축 어휘와 달리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입면, 수직성, 열주공간, 회랑 등 법원의 이미지와 기능에 부합된 권위적이고 고전적안 입면이 인상적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건축사지 19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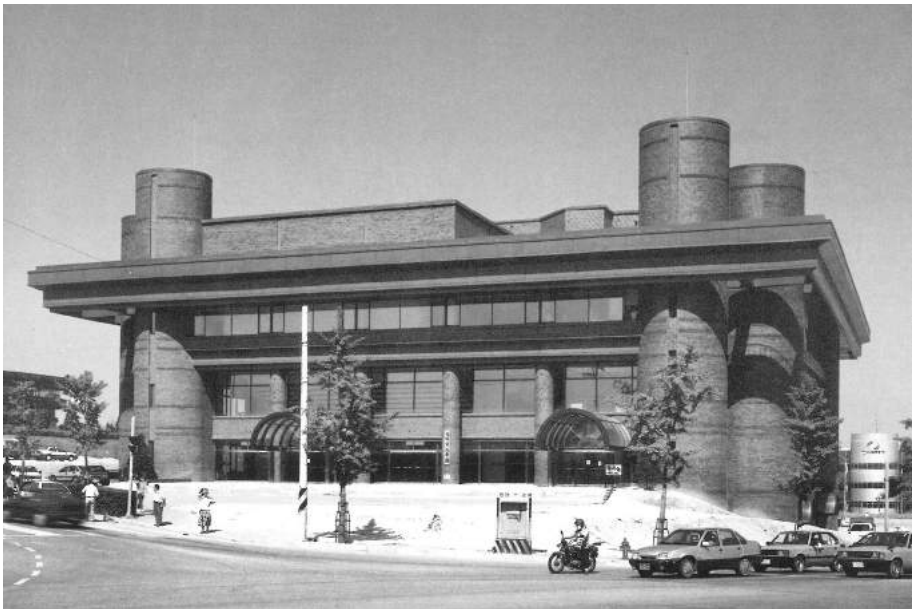
1990년대

90년대에 접어들며 특히 구민회관 등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의 변화가 감지된다. 친숙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곡선의 가벽이나 코어 등을 도입해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권위적으로 보이기 쉬운 석재마감 보다는 벽돌, 유리 등의 사용에 적극적임을 성동구민회관(1990.01/ 한충국.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양건축), 성북구민회관(1990.01/ 김기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광명시민회관(1990.07/ 우시용.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동구민회관(건축사지 1990.1)



성북구민회관(건축사지 19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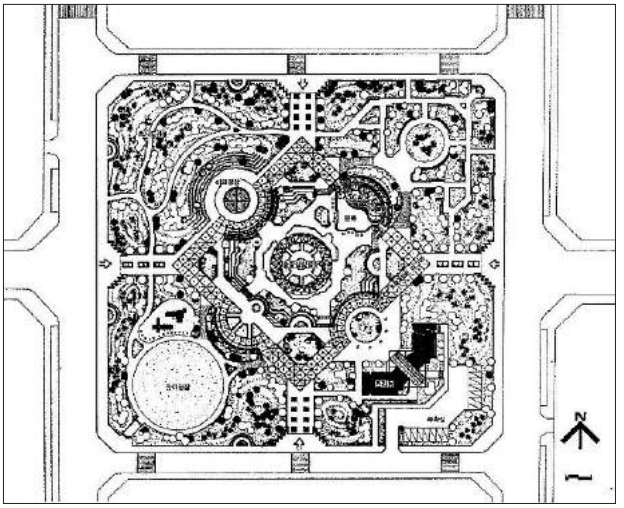


광명시민회관(건축사지 1990.7)

여수시청사(1990.08)은 정덕훈(동영건축)+엄이건축의 작품으로 중앙의 노출된 열주를 중심으로 대칭된 벽을 세우고, 상부에서 매스를 띄우고 돌출된 처마를 내어 현대건축의 어휘임에도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조형성을 보여준다.

여수시청사(건축사지 1990.8)

목동제3공원(1990.11)은 류춘수(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의 작품으로 21,650㎡ 규모의 대지에 330㎡의 관리동과 상징광장, 야외극장, 조각공원 등을 포함한 계획이다.



목동제3공원(건축사지 1990.11)

목동 신시가지 마스타 플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강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150m 정방형의 대지에 들어섰다.
내부공간이 도식적으로 단순화되지 않도록 마치 만다라처럼 다양한 공간이 유기적으로 펼쳐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창원시 의원회관(1992.02)는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으로 기존 창원시청사의 후면에 연결되며 모서리의 곡선부가 유리블록으로 처리되어 직각으로 만나는 외벽과 대비된다. 영등포 구민회관(1993.05)은 류춘수(이공건축)의 작품으로 무겁고 전형적인 외관을 탈피해 철골, 유리, 알루미늄 등 현대적 재료의 사용, 매개공간으로서의 중정 상부의 텐트 지붕 등 기존 구민회관의 이미지를 혁신하는 새로운 타입을 제안했다.

창원시의원회관(건축사지 1992.2)

미금시청사(1994.05)는 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청사 건축의 전형인 화강석과 커튼월의 조합된 형태의 건축을 주도한 임장렬(성림건축)의 작업이다. 탈권위주의적인 입면을 추구하고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재료, 그리고 원통, 원호, 다각형 매스로서 시각적 아이

미금시청사(건축사지 1994.5)

덴티티를 높였다. 설계과정에 대한 매뉴얼 식의 담담한 설명도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이런 어휘가 이후 하남시청사(1995.05) 등에서 반복되는 것은 일종의 자기복제처럼 보여 아쉬운 부분이다.

국토개발연구원 청사(1994.11)은 윤승중+변용(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의 작품이다. “디자인 이전의 순수한 다이어그램으로 골격을 만든다”는 설계 설명이 인상적인데, 중앙 로비의 상부가 오픈되어 정면에서 볼 때 거대한 보이드가 있어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었던 입면의 특징을 잘 살려주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청사(건축사지 1994.11)

과천등기소(1995.06)는 류춘수의 작품으로 사다리꼴 대지 모양에 맞춘 부채꼴 평면의 모서리에 계단을 배치하고 둥글게 처리하고 천창을 두었다. 그리고 정면에 기둥과 곡선의 헛보를 보내 정면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관공서의 보편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친밀한 조형성'을 강조하는 것과 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문원동 마을공동회관(1995.07)도 원형의 평면에 유사한 조형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과천등기소(건축사지 1995.6)

문원동 마을공동회관(건축사지 1995.7)

한국은행 광주지점(1999.12)는 이영희(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모서리 부분의 원형 홀 부분을 아치와 열주 등의 고전적 디자인 요소와 화강석 혹두기 마감으로 기단 같은 느낌을 강조한 전형적인 은행 건물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국은행 광주지점(건축사지 1999.12)

2000년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건축사지 2000.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2000.08)은 박재평(주.세진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지나친 파사드의 무게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변화와 비례감을 준 입면과 부지 전체를 공원화 개념으로 접근한 설계였는데,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강당동과 휴게몰 삭제, 외부공간 축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 종합관광안내소(2001.01)는 김경택(다인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곡선의 지붕은 어김없는 관청의 요구사항인 상징성(파도, 갈매기)에 의한 것이고, 기존 인천역사보다 높으면 안되고 조립식 철골조로 지을 것 등 제약이 많은 프로젝트였으나,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소로서의 개방성 부여를 위한 유리 커튼월과 목재 루버 처리 등이 돋보인다.

인천광역시 종합관광안내소(건축사지 2001.1)

포항시 남구 보건소(2001.09)는 김승회 · 강원필(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공기정화 시스템 구비를 위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단순한 윤곽과 값싼 재료를 통한 공사비 절감을 모색했다고 한다. 들어 올려진 직육면체 상자는 양쪽 끝이 캔틸레버로 처리되어 경쾌한 구조를 보이고, 재료의 디테일과 강렬한 구축성이 기존 보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항시 남구 보건소(건축사지 2001.9)

마포장애인복지관(건축사지 2003.4)

마포장애인복지관(2003.04)은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작품이다. 설계자는 "건물 내부는 장애자를 위한 기능적 배려를 충분히 해주되, 외관상으로는 익명적 또는 보편적 건물의 이미지"가 되도록 했다. 노출콘크리트와 루버가 재료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내부를 견고한 외관이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군회관(2003.09)은 이종찬(주. 원양건축사사무소)+성진용의 작품이다. 2000내 초반 전후로 많은 건축물들이 턴키방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 건물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지어진 건물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징성과 조형성의 강조, 야경이 돋보이는 입면 계획, 아트리움과 필로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경기북부 일시보호소/의정부영아원(2004.2)는 최동규(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놀이공간이나 산책로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경사로로 건물을 감싸고, 3세 이하 아동들의 시각에 기초해 층 구분이 쉽지 않은 불규칙한 창을 내고 따스함을 대변하는 목재를 전면 외부에 사용한 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배려한 부분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건물이다.

경기북부 일시보호소(건축사지 2004.2)

성동구 종합행정마을(2004.08)은 안길원(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마을 프로젝트로서 구청사, 구의회,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사 등이 어우러진 종합 대민 서비스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기능별로 분리되어 건축되던 공공청사가 복합화,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공공건축의 대형 턴키 프로젝트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중곡3동사무소(2005.03)는 조민석, 김상기(단아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다. 행정기관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복지 문화 공간으로, 또 파출소, 보건지소 등과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센터로 변화하는 동사무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작업이다.
권위적인 형태에서 탈피하고 직통계단을 외부에 두는 등 기존의 동사무소 형태와 차별화되지만, 이 건물에서 보이는 가벽과 헛보, 분절된 매스의 강조 등의 설계 어휘는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의 새로운 전형으로 다시 유행하게 된다.

중곡3동사무소(건축사지 2005.3)

광진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2005.08)는 안길원(무영건축) 작품이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자체 관련 문화시설이나 의회 청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이 건물 또한 연면적 18,860㎡의 대규모 시설이다. 두 개의 매스를 한국 고유의 전통 처마 형태를 상징화한 하이테크한 지붕으로 이어 하나의 건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친숙함을 강조하기 위해 곡선과 벽돌 재료 등을 사용한 90년대 주민시설과 달리 보다 업무시설적인 느낌이 강조되었다.

천안시청사(2005.11)는 이영희, 정영균(희림)+박승(삼우)+이천규(도우)의 공동작품이다. 연면적이 무려 41,454.25㎡로 11층의 행정동과 의회동, 강당동, 보건소, 식당동을 포함한다. 2001년 설계, 2002년 착공으로 총 공사비 888억 원이 든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넓은 녹지와 야외공연장, 1254석의 다목적 공연장 등 천안의 문화 · 산업 · 행정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지어졌는데, 기존 청사의 권위적 요소를 탈피한 오피스 타입의 건물로 지어졌지만, 유사한 청사들의 시설, 규모 경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용인시, 성남시청사 등은 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천안시청사(건축사지 2005.11)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지역협력시설(2007.08)은 신동재(주.다울건축)의 작품이다. 원자력을 지역과 외부에 홍보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 자연, 지역,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조화를 목표로 했는데, 수평의 매스와 수직성이 강조된 입면의 커튼월과 기둥 등이 대조적이며 마치 박물관 같은 조형어휘를 갖는 게 이색적이다. 이러한 해법은 일종의 클리셰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공공건축에 빈번히 등장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지역협력시설(건축사지 2007.8)

2010년대

한국DMZ평화생명동산(2014.2)는 승효상(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의 작품이다. 인제군 124,210㎡ 부지에 연면적 3,304.35㎡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생명의 열쇠로 평화를 연다'는 슬로건을 가진 한 단체의 이름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라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역설적으로 생명복원의 현장이 되어가는 사실을 통해, 대결의 이 시대를 성찰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사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설물 자체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건축물은 땅의 건축이자 풍경의 건축이 되고,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지면에서 가라앉은 건물군들은 정연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대지의 틈처럼 풍경을 품은 채 고요히 서 늘어서 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건축사지 2014.2)

공공건축,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이상 지난 50여 년간 건축사지에 소개된 공공건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표적 공공건축물들이 건축사지에 소개되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단순히 회원들이 제공하는 작품들로만 지면을 채우게 되고 세빛둥둥섬, DDP, 서울시청사, 행정복합중심도시 같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되었던 중요한 건축물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90년대까지의 공공건축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서도 설계사무소들의 개성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면, 턴키, PF 등 건설회사와 다수의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협업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대세가 된 2000년대 이후의 공공건축은 개별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이른바 '턴키 양식'이라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즉 투시도와 조감도 등 3G 그래픽 경쟁에서 돋보이는 형태로 통일되면서 특별히 어느 사무실의 작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려 50여 년 전에도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들이 화제가 될 때마다 대한건축사협회지에 이에 대한 토론이 소개되고 건축사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건축사지가 이제 다시 전문단체의 정론지로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다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기록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선하여 작품을 소개하여 건축사지의 위상을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건축사지를 통해 본 주택 50년

50 years' Housing Seen Through 'Korean Architects Magazine'

글. 임형남_ Lim, Hyoung-nam · 본지 편집위원장

50년 동안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에 따라 주택건축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50년동안의 변화를 건축사지를 통해 되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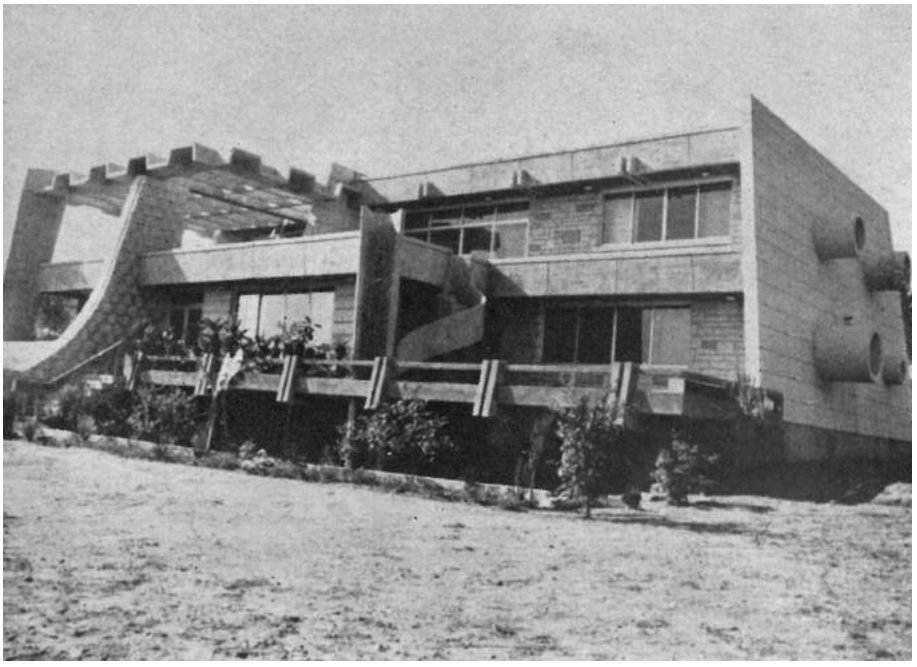
1960년대

태양건축연구소 강진상이 발표한 <성북동 한씨 주택>이 건축사지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는 주택이다. 1965년 3월 15일에 착공하여 1966년 8월 10일에 공사를 마쳤다. 연면적이 120평정도 되는 규모에 노출콘크리트와 붉은 벽돌을 섞어 마감하였고, 콘크리트 난간과

성북동 한씨 주택(건축사지 19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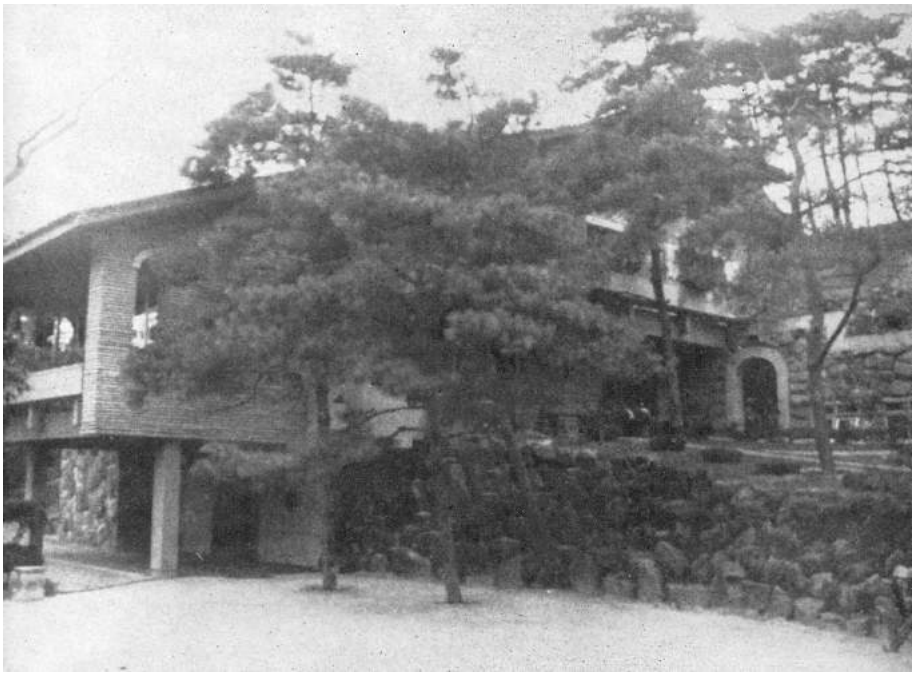
다양한 치장을 한 60년대의 전형적인 고급주택이다. 이후의 60년대의 주택들을 들여다보면 평당 공사비는 10만원~15만원 사이인데 패턴 화된 입면과 중심으로 모아놓은 평면형식을 보여준다.

1969년에 신건축기술연구소 강두석이 발표한 <불광동 주택>은 내외부의 다이내믹한 공간감과 조형이 눈에 띈다. 콘크리트의 조소적인 속성을 이용한 르 코르뷔지에의 건물과 유사한 설계가 우리나라에 꽤나 많이 지어졌던 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때 이런 주택이 하나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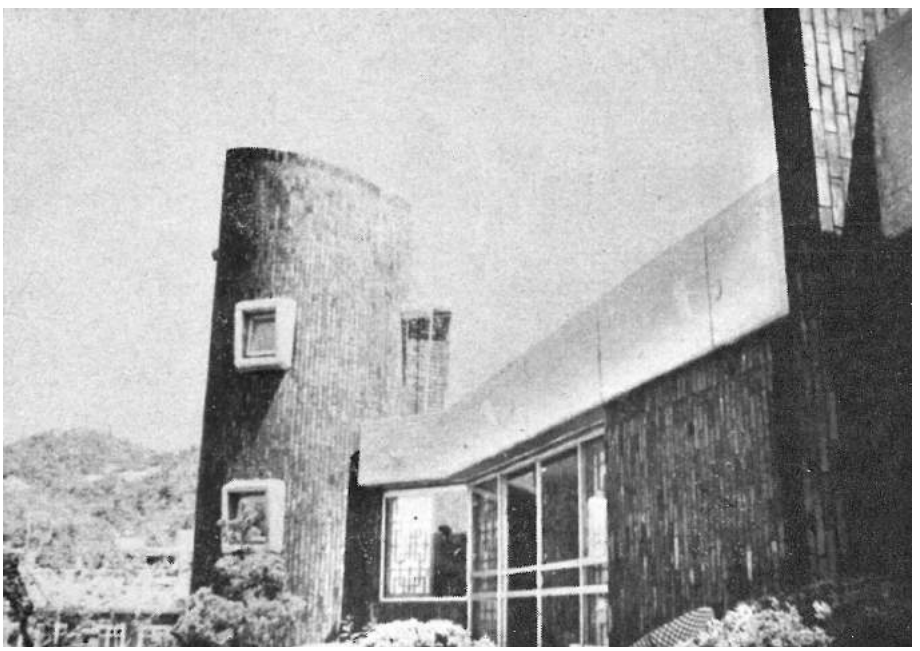


불광동 주택(건축사지 1969.9)

또한 최근 개보수하면서 유명해진 능동 꿈마루 원 설계자인 나상진의 <세검동 K씨댁>도 돌출된 창과 수평으로 쌓은 석재의 외장이 눈에 띈다. 이 방식도 한참 동안 고급주택에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이 해에는 김수근이 설계한 <S씨 주택>도 발표되었다. 종합기술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 만든 집으로 보인다. 모든 면을 둥글게 마무리하였고 원형 계단실을 높이 세워 한껏 조형성을 살렸다.



세검동 K씨 주택(건축사지 19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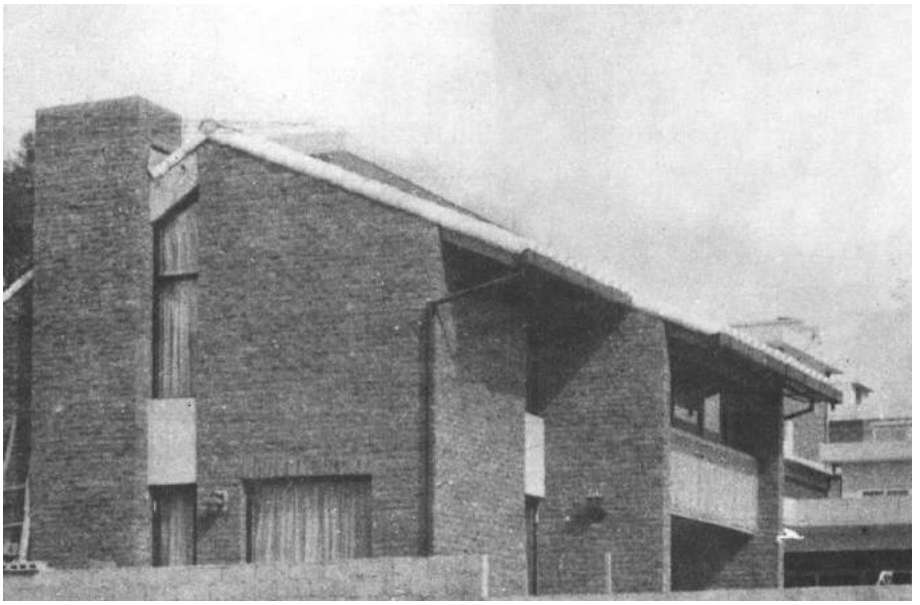
S씨 주택(건축사지 1969.5)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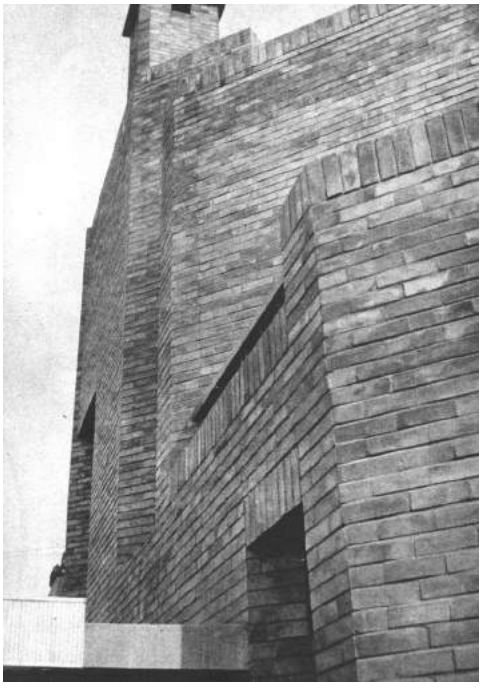
1970년 2월호에는 유걸, 조창걸 등의 주택작품이 실려 있다. 당시에 U아뜨리에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유걸의 주택은 십자형으로 된 평면에 중앙에 사각형으로 솟은 천창이 아주 특이하고, 스패니쉬 기와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가 특이한 조형감을 가진 건축사라는 사실을 젊은 시절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단면을 보면 스킵 플로어 형식으로 되어 빛과 묘한 단차로 인해 독특한 공간감을 보여준다.

투인하우스(건축사지 1970.2)

72년에 경희대 조창한 교수가 발표한 주택이 눈에 띈다. 장위동에 설계한 이 주택 <Z씨댁>은 조적조의 구조로 내외부가 벽돌로 마감되어있으며 높은 실내 공간과 더불어 외부의 공간요소를 내부로 그대로 끌어들인 점이 특이하다. 73년에 안영배가 발표한 <서교동 주택>은 지금 '피카소 거리'라고 부르는 복잡하고 번잡한 동네이지만 당시에는 작가들이 설계 했음직한 좋은 집들이 우아하게 늘어선 길이기도 한 곳에 가장 눈에 띄는 집이기도 했다. 벽돌을 모던하게 쌓고 상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무척 세련된 조형인데, 집을 이루는 평면 역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기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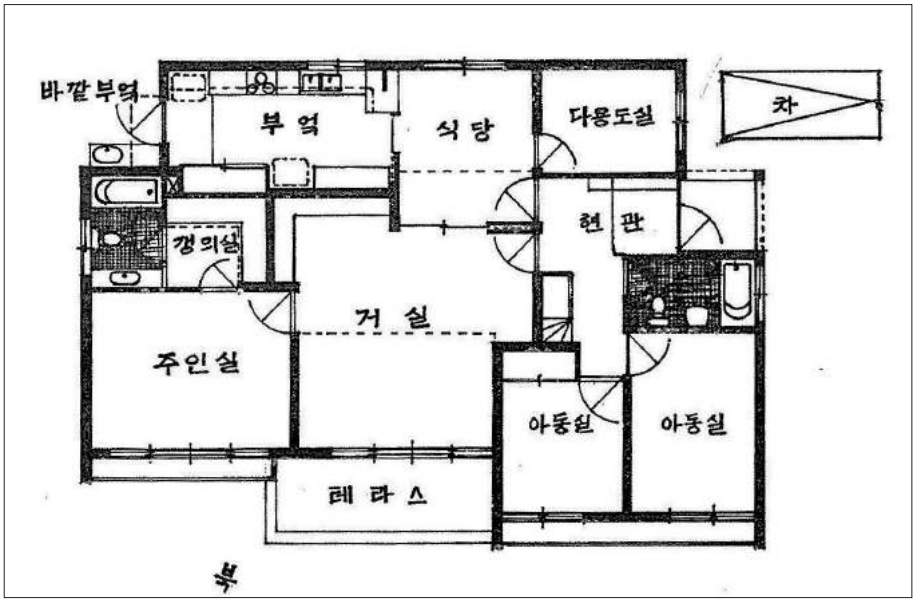
Z씨댁(건축사지 19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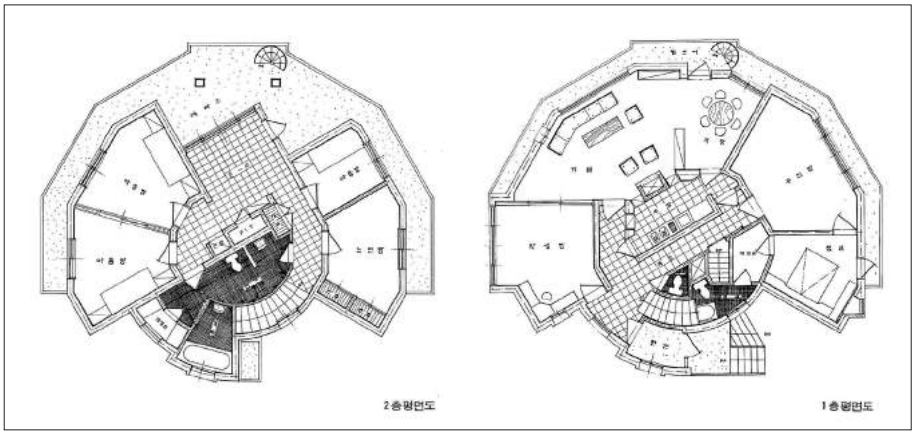
효창동 펜트하우스(건축사지 1975.5)

75년 5월에 발표된 조구현 설계사무소의 <효창동 주택>은 사각형을 45도로 틀어 배치해서 매우 동적인 평면구성을 하면서도 정형화된 방을 만들어 수월하게 기능을 해소하고 있다. 형태는 벽돌을 중세의 고성과 같은 느낌으로 둔중하게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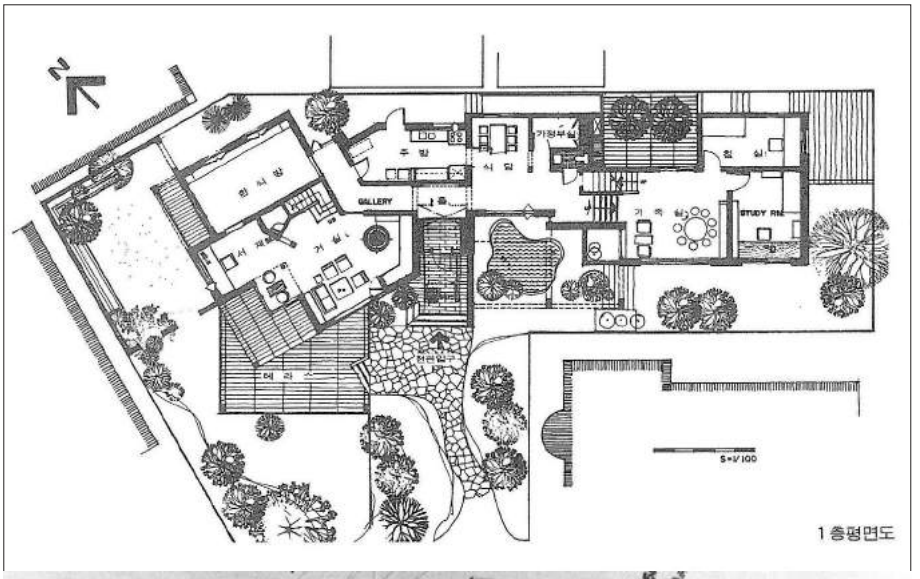
76년에 발표된 공일곤의 <갈현동 K씨댁>은 마치 지금 우리의 아파트 평면형의 원형과도 같은 구성인데, 부부와 아이가 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중산층 주택의 원형이 됨직해서 재미있다. 마치 수없이 리바이벌 된 노래의 원곡을 들을 때의 느낌과도 같다. 그해 발표된 홍익대에 재직 중이던 나상기가 발표한 <J씨 주택>도 눈에 띄는데 온양석과 목재를 사용하고 사선을 과감하게 도입한 평면은 당시의 일반적인 주택과 굉장한 차별성을 가진 공간감을 보여준다.



갈현동 K씨댁 평면(건축사지 1976.2)



L씨댁 평면(건축사지 19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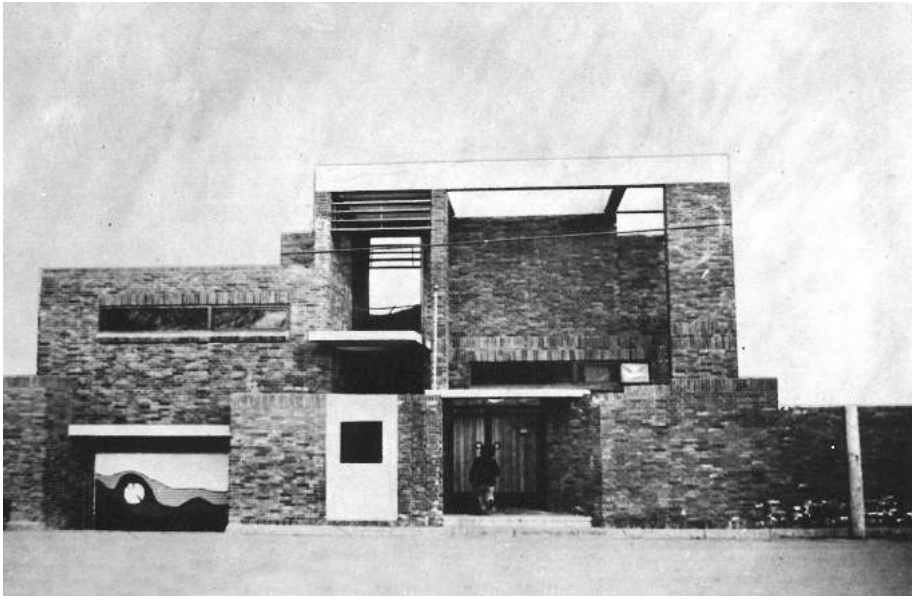


서교동 C씨댁(건축사지 1977.10)

77년에 발표된 이종완의 연희동주택 <L씨댁>은 원형 평면을 사용한 특이한 집이다. 원형으로 순환되는 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 부엌 등의 서비스 공간이 집의 중심에 있고 방들과 거실이 외부에 빙 돌아가며 배치되어있다.

또한 홍순인이 발표한 <서교동 C씨댁>은 당시의 건축사들의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집이고 공간적이 성취가 눈에 띄는 집이다. 이형의 까다로운 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외부가 서로 넘나들고 레벨을 이용한 평면의 다양함 그리고 작은 공간들이 파고들어 공간을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홍순인은 78년에 동순동주택을 발표하는데 그 집은 놀랄 만큼 모던한 집이다. 그의 모던함은 형식의 모던이 아니라 서양의 건축을 바탕에 깔고 한국의 건축을 덧씌우는 방식을 가진 내용의 모던이다. 모든 공간이 정연하고 스스로 빛나는 훌륭한 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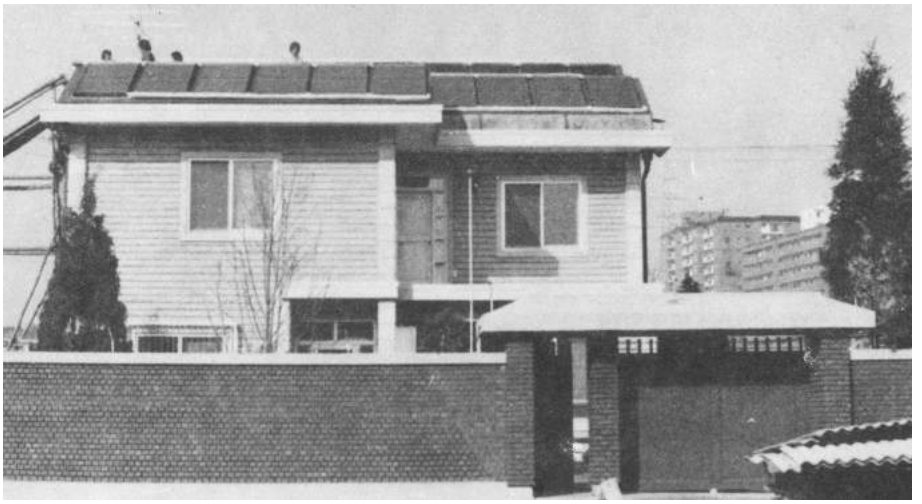
동순동 P씨댁(건축사지 1978.12)

서교동 김씨댁(건축사지 19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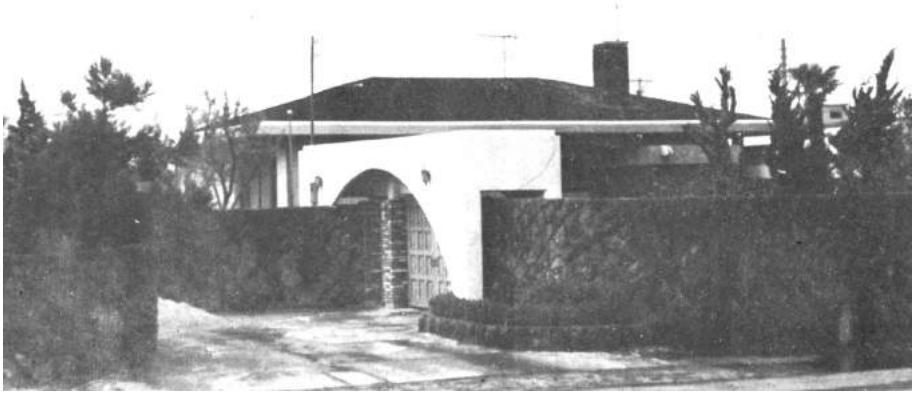
79년 김기석이 발표한 <서교동 김씨댁>은 한 시절을 풍미했던 김기석의 독특한 양식이 비로소 드러나는 작업이다. 뭉글뭉글한 조형감과 약간은 동화적이며 서양의 어느 지역에서 쑥 뽑아 이 땅에 이식한 듯한 그의 특이한 주택이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그런 경향은 홍대앞 우리마당 연작과 더욱 동화적인 상상이 보이는 집으로 발전하게 된다.

1980년대

80년에는 태양열 주택으로 시작된다. 합성건축 박성규가 발표한 <서초동 김씨댁>은 80여 평 되는 집에 태양열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서초동 김씨댁(건축사지 19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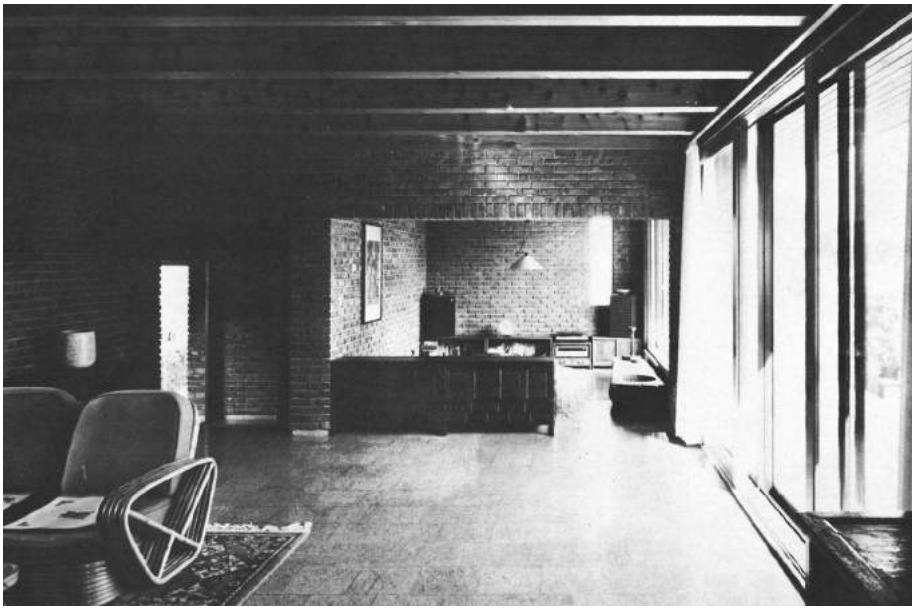
81년 김석윤이 발표한 <반산별서>는 제주 지역의 재료와 공간에 대한 고민이 보여서 눈길을 끈다. 82년 김중업이 발표한 <한남동 L씨주택>은 '김중업스러운 건축'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작업이다.



반산별서(건축사지 1981.11)

한남동 L씨주택(건축사지 1982.9)

83년 발표한 김수근의 <박사장댁>은 공간연구소를 이끌고 있던 그의 후기 작업이다. 독특한 자기만의 건축세계를 추구하였고, 시간이 지나며 한국성에 대한 강한 탐구와 적용을 거듭했던 그의 일련의 작업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아주 흥미롭다. 성북동에 지은 이 집은 변색벽돌과 대형유리를 사용하여 시원한 매스감을 보여주고, 내부까지 따라 들어온 벽돌의 사용으로 내외부가 관입하는 공간감을 준다. 부분적으로 레벨을 이용하는 툇마루 공간은 그가 추구하는 전통공간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박사장댁(건축사지 1983.9)

86년에는 언뜻 보아 커튼월로 외장이 된 듯 보이는 더블스킨의 축열벽을 갖춘 주택과 빗각을 사용하여 경쾌한 평면형식과 벽돌의 리드미컬한 사용이 돋보이는 '공간출신' 표상권의 <작곡가 K교수댁>이 눈에 띈다. 이때는 한국의 대표하는 김중업과 김수근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나라에 개발의 붐이 불기 시작하며 커튼월, 알루미늄 등의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과 재료들이 일반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신진 건축사들이 다양한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를 많이 하면서 각 도시의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어낸다.

작곡가 K교수댁(건축사지 1986.5)

B.N.F주택(건축사지 1988.12)

87년에는 대담한 철골의 사용과 참신한 건축어휘로 무장한 최승원의 <B.N.F주택>이 눈에 띈다. 초가형상이라고 부르는 곡선형 주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중업이 많이 사용한 건축어휘이고, 후에 차운기가 더욱 발전시켜 나중에는 그것이 교외의 주거와 음식점의 하나의 일반적 유형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1990년대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건축도 그에 걸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수서정(건축사지 1990.2)

시작하는데 새로운 주도세력들이 건축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승효상 · 김인철 · 곽재환 등 김수근이나 김중업의 문하에서 건축을 익힌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업을 시작한다. 90년에 김인철이 발표한 <수서정>은 노출콘크리트 골조의 프레임을 만들고 통줄눈 벽돌로 벽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모서리창과 유형화된 경사지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조형과 차별성을 부여한 이 집은 후에 새로운 형식과 구법이 나타나는 90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92년 토방건축 한진수가 발표한 <순천 오동나무집>은 둥근형태의 지붕을 칼라 아스팔트 싱글로 덮고 벽체는 강돌 치장쌓기로 마무리하여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방식은 80년대 중반이후 고급주택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전통방식의 한 구석에서 형태로나마 남아있었다.

순천 오동나무집(건축사지 1992.1)

93년에는 한국 건축에 새로운 주제를 던져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인 승효상의 <수졸당>이 발표된다. 그 당시 불어 닥친 한국 전통건축을 재인식하는 바람과 그동안 차근차근 쌓여진 한국적 내외부 공간에 대한 학습이 수졸당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학동에 있는 작은 필지에 있는 집인데, 작은 마당과 한식 담장 그리고 문방을 연상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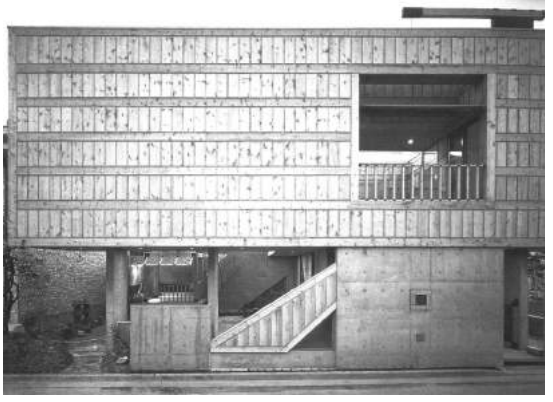
사랑채의 배치 등 한국 건축의 요소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이후 한국 건축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아주 의미 깊은 주택이 되었다. 또한 이시기에는 일산 단독주택지에 많은 건축사들이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한쪽에서는 의사 서양식 목조주택이 이국취미를 가진 신부유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향수를 자극하고, 한쪽에서는 조형적인 개성이 뚜렷한 건축사들이 많은 작업을 한다. 송광섭의 <일산주택 37>은 일산 주택의 시작이었다.

수졸당(건축사지 1993.7)

일산주택 37(건축사지 1995.3)

재일교포 이타미 준은 제주도와 한국과 일본이 느낌이 섞인 특이하고 약간은 무속적인 감성을 보여주는데, 그 중 압권은 <남태령마을의 돌집>이다. 전인건축의 조현군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집은 재료와 형태 모두 아주 먼 과거에 세워진 마치, 영혼의 집과 같이 생겼다.

남태령마을의 돌집(건축사지 1995.11)



임거당(건축사지 1999.8)

독특한 스타일리스트인 김효만의 <임거당>은 스타일로서의 그의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작업이다. 미송판재로 온통 뒤 덮은 외관과 역동적인 동선을 가진 평면은 이후에 더욱 확대 심화되는데, 사족처럼 붙은 전통적인 건축어휘가 어찌 보면 그만이 할 수 있는 대범함처럼 보인다.

2000년대

미제루(건축사지 2000.3)

방철린의 <미제루>는 한국건축의 전통을 어떻게 품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 같은 집이다. 누하진입을 통한 주택으로의 진입과 앞을 향해 들어와 뒤를 돌아보게 하고 집안을 빙 도는 동선 구조로 인해, 결국 처음에 진입하였던 누에 오르며 하나의 시퀀스가 완성되는 듯하다. 이를테면 봉정사 영선암이나 내소사 설선당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현대화하여 적용하였는데, 이후 방철린의 작업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된다.

민마루주택(건축사지 2003.1)

2003년 최삼영이 발표한 <민마루주택>은 노출콘크리트로 만든 집과 목구조로 만든 집을 나란히 만들어 놓은 작업이다. 두 건물 모두 매우 모던한 형태로 처리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면서도 두 개의 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점이 무척 뛰어나다.

2005년 이성관이 발표한 <수입777>은 200여 평의 규모가 큰 주택이다. 무척 단조로운 평면구성을 취하는 대신 3개 층으로 적층하여 형태의 장중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재료도 마천석과 이페, 내후성 강판 등 무척 무거운 질감을 사용하여 그런 성격을 한 층 강화한다.

수입777(건축사지 2005.10)

파주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출판도시와 헤이리 마을을 필두로 다양한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김인철과 정승권이 이끄는 아르키움의 <마당 안 숲>은 그 당시에 지어진 많은 건축 작업의 경향을 보여주는 집이다. 노출콘크리트면의 절제된 외관과 뒷면이나 옆면의 크게 열어놓은 알루미늄 커튼월등 반복과 대비의 어휘가 도드라진다.

마당 안 숲(건축사지 2007.7)

2010년대

사실 2010년대로 접어들며 건축사지에 주택의 발표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공공건축과 공동주거가 거의 모든 지면을 메우게 된다. 괄목할만한 주거건축의 변화를 읽을 수 없으며 특별히 언급할 만한 주택도 없다.

주거 건축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주거건축의 침체는 건축의 저변이 좁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에 일산과 파주, 분당에 이어 새로운 단독주택 필지로 각광받는 판교에 집들이 들어서는데 관이 아니라 개발주체 혹은 사용주체에서 만들어놓은, 대부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다소 이상적인 지침으로 담을 없애고 높이와 재료를 제한하는 바람에 외보에 폐쇄적이고 다소 판에 박힌 듯한 집들이 양산된다.

맺는말

건축사지를 통해 50년 동안의 다양한 주택의 진화과정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건축사지에 실리는 주택작업들은 대부분 상류층의 주택인 경우가 많은 점이 근본적인 한계였으나, 우리나라 건축이 근대를 뛰어넘어 바로 현대로 접목되는 이상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며 발전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었다.
우리의 건축은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고 급속도의 산업화를 겪는 동안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공간 개념이 무너지고 서구화된, 아니 사실은 일본이 이해하고 있는 서양건축의 영향을 받아 외부공간과는 유리된 공간의 구조를 가진 집으로 시작했다. 그런 경향은 내부지향적인 건축 혹은 외부와 유리된 건축으로 발전한다. 그런 경향의 극단적인 귀결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파트 건축의 평면으로 발전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며 흐름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젊은 건축사들의 각성과 전통에 관한 탐구와 더불어 새로운 건축적 행보가 시작된다. 그런 고민은 마당에 대한 건축적 접근으로 설명되는데, 90년대 이전의 주택에서는 거의 마당은 집과 별개의 외부공간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건축의 양상은 크게 바뀌어 대지 전체를 하나의 건축으로 보고 그 안에서 채우고 비우며 내외부가 유리되지 않고 마구 넘나든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유독 강하게 드러나던 방식인데, 우리 건축이 조금씩 자신의 색깔을 갖게 되는 좋은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각 시대마다 독특한 형태와 재료가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재료가 벽돌과 본타일, 스패니시 기와 등이다. 물론 이런 집들은 대다수 고급주택들인데 그런 의사(擬似)유럽풍의 유행은 우리나라 부유층의 약간의 허위의식과 맞물리며 무척 오래 갔다. 이후 자연석과 목재 등이 많이 사용되고 90년대 이후에는 노출콘크리트가 무척 각광을 받는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건축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는 지방의 건축사들도 눈에 띈다. 광주에서 활동하던 토방건축의 한진수의 작업이나 안양에서 활동하였던 앙가주망건축의 최승원, 제주도의 김석윤의 작업은 지역성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결과로서의 독특한 작업들은 감동적이었다.

주택은 건축의 기본이다. 건강한 건축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주거문화가 건전해야하고 건강한 주택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주택은 정주의 개념이 아닌 재화창출의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주택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아주 슬픈 현실이다. 반드시 이러한 현실은 고쳐져야 하며 우리 건축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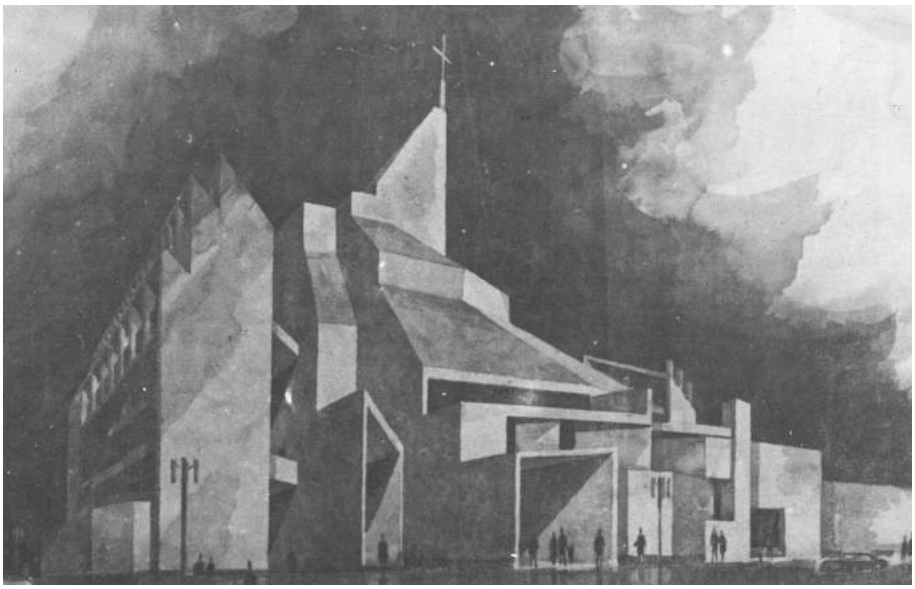
한국의 문화 건축물 50년을 돌아보다

Retrospection on 50 years' Korean Cultural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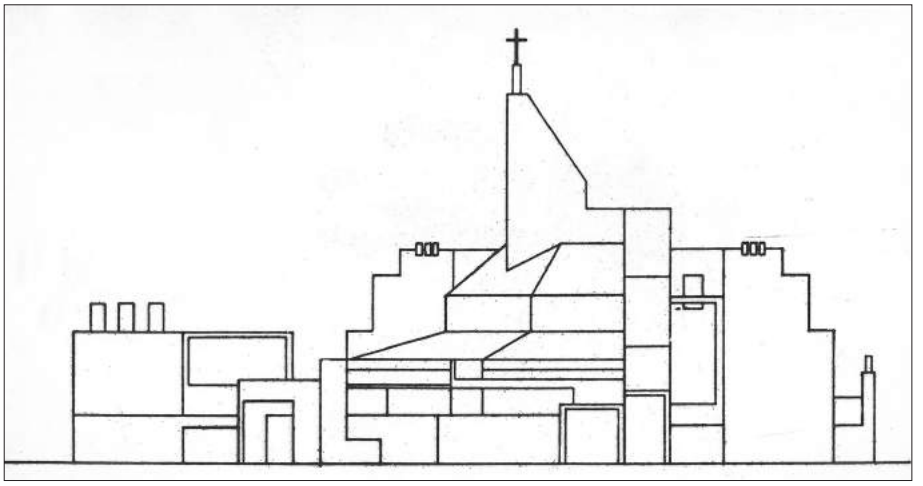
글. 정이숙_ Jeong, Yi-suk · 본지 편집위원

1960년대 말~1970년대의 문화 건축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놀거리, 즐길거리를 찾게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 때에는 의식주 이외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별로 없다. 건축사지가 창간된 1966년은 1인당 GNP가 겨우 126달러이던 먹고 살기 힘든 때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여 년 남짓 지났을 때여서 전쟁과 일제의 수탈이 남긴 상처와 폐허가 한반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 시설이 세워질 여력이 없었고 70년대가 다 지날 때까지 전국에 지어진 문화 건축물의 양과 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의도교회(건축사지 19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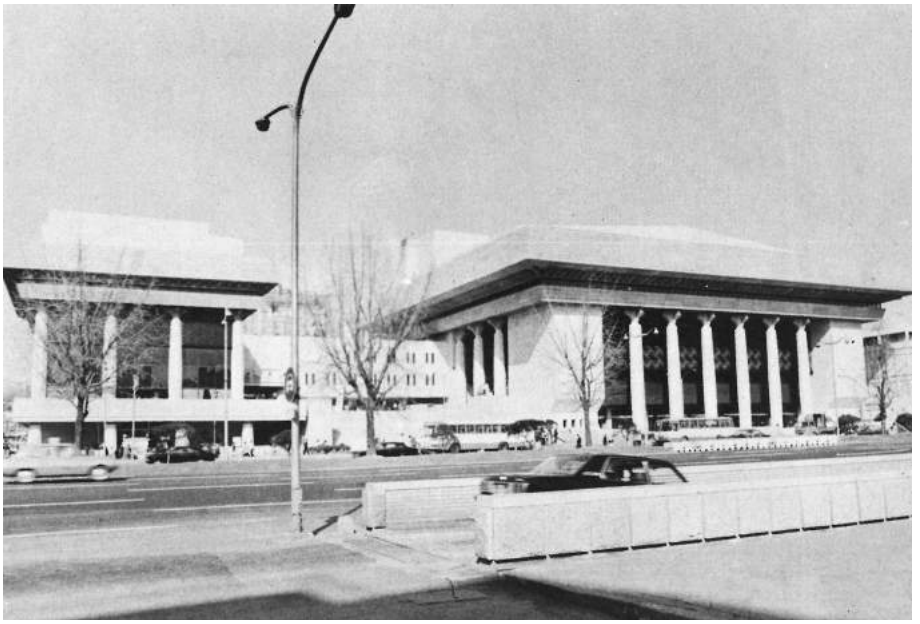


여의도교회 도면(건축사지 1970.1)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건축사지에 소개된 문화 건축물의 가장 많은 부분은 교회 건물이었다. 도서관, 극장,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누리고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문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면 교회 건축물은 따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종교를 인간의 문화현상의 하나로 해석하여 교회 건축물도 함께 살펴 보았다.

6 · 25전쟁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회건축은 불필요한 장식이 많은 고딕 양식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종탑과 사각건물을 기본으로 한 형태,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양식이 있다. 70년대 이후로는 현대적 감각의 교회건축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교회 건축의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기에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시기였다.
교회 이외에 눈에 띄는 문화 건축물은 광주부녀회관, 강원도문화센터, 대구칸트리클럽하우스, 어린이예능센터와 리틀엔젤스예술학교 그리고 1978년에 완공된 세종문화회관 정도이다.

세종문화회관은 1972년에 화재로 불탄 시민회관을 대신하여 지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의 설계는 현상공모에 의하여 엄덕문건축연구소가 맡았는데, 한국의 전통양식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외부벽면을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우아하면서 장엄하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부조 및 조각 · 회화작품 등 수준 높은 예술조형물을 곳곳에 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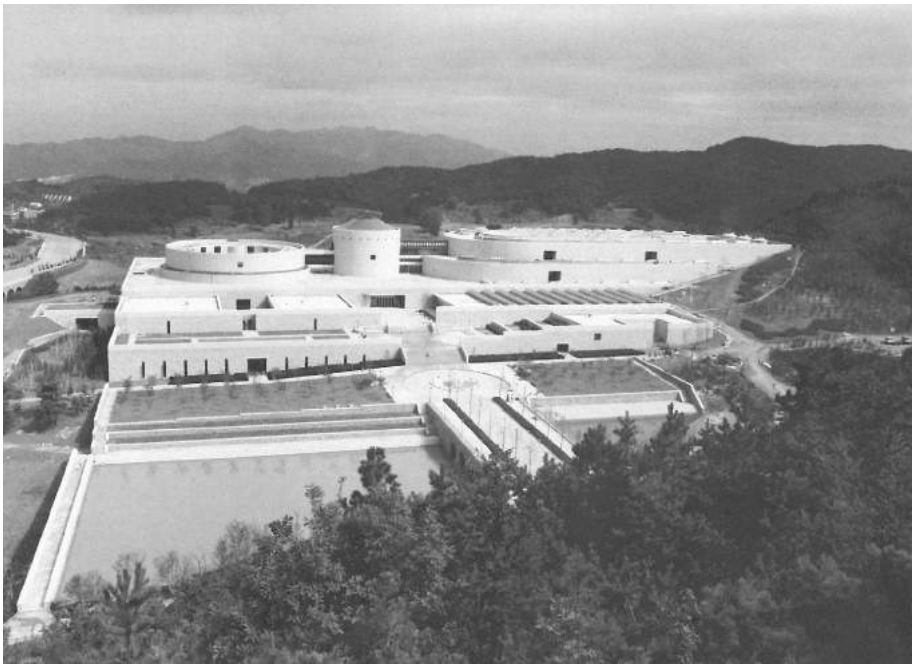


세종문화회관(건축사지 19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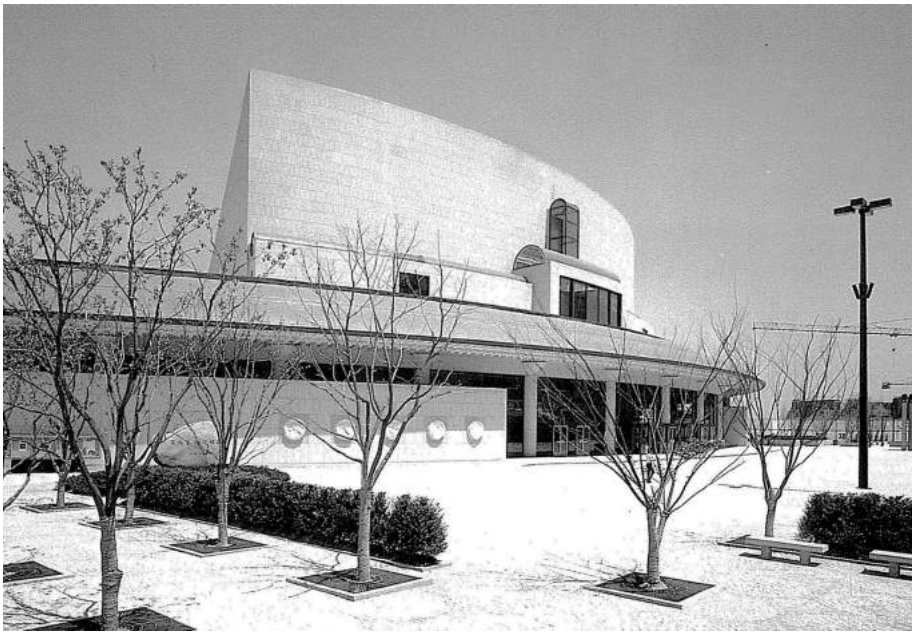
1980년대의 문화 건축물

민주화 운동의 시대로 대변되는 80년대는 경제성장의 시대였고 정치,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는 시기였다.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며 해외여행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다국적 브랜드가 들어왔으며 프로야구가 시작되었고, 올림픽 경기를 유치했던 시기도 80년대였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가생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겨난 것도 이 때였다. 건축물도 기능만을 강조하던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 '건축패션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외양과 외벽재료 등 모든 면에서 특색 있는 건축물이 등장했다.

건축사지의 회원 작품 코너에는 80년대에도 여전히 교회 관련 건축물이 많이 소개 되고 있다. 앞의 시대와 다른 점은 교회 건축에 개성과 미적인 요소가 더 많이 고려되었고, 청담동 성당의 건축 소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제 중심의 교회가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 공간 설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체육 관련 시설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서강대 실내체육관, 전남체육회관, 대구시 유 · 검도장, 단국대학교 체육관, 서울대학교 체육관 등이 80년대에 소개된 체육 시설들이다.



국립현대미술관(건축사지 19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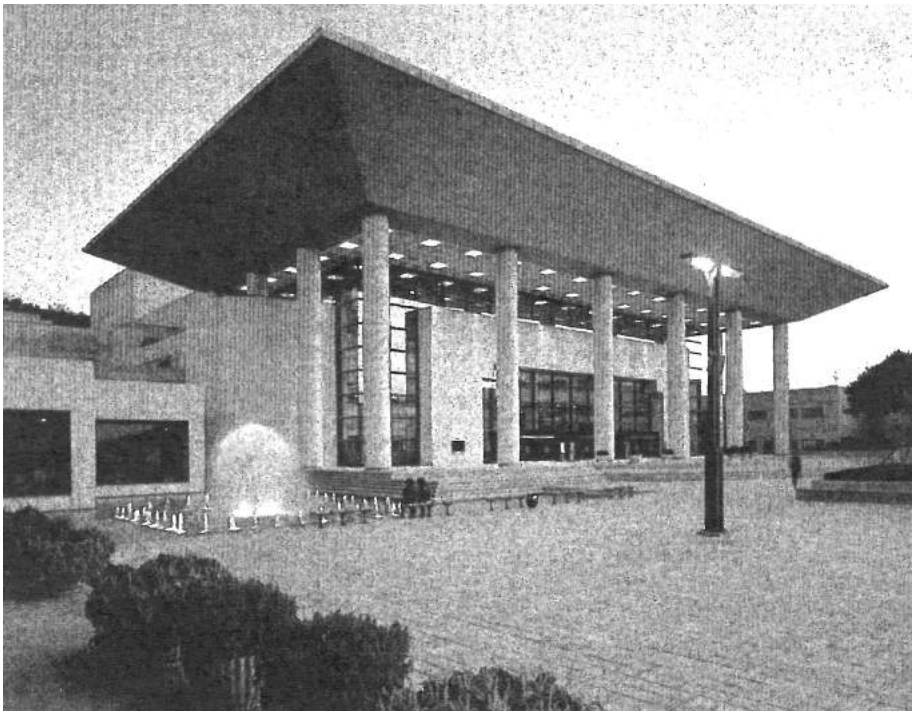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 음악당 및 서예관(건축사지 1988.5)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 유치를 계기로 80년대 우리나라의 체육 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건축사지에 소개된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없는 점은 아쉽다.
체육 시설과 더불어 도서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화랑 등 다양한 문화 건축물이 등장한 시기가 80년대이다. 1983년에는 서울화랑, 1985년에는 산울림 소극장이 건축사지에 최초로 소개된 화랑과 소극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은 86년에 개관했고 87년에는 국회도서관이 88년에는 예술의 전당이 건축사지의 지면을 차지했다.

1990년대의 문화 건축물

90년대는 국민의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열린 사회로 변화하는 대중과 문화의 시대였다. 사회, 경제적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세계화, 정보화, 영상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숨가쁜 변화들이 계속되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시기도 90년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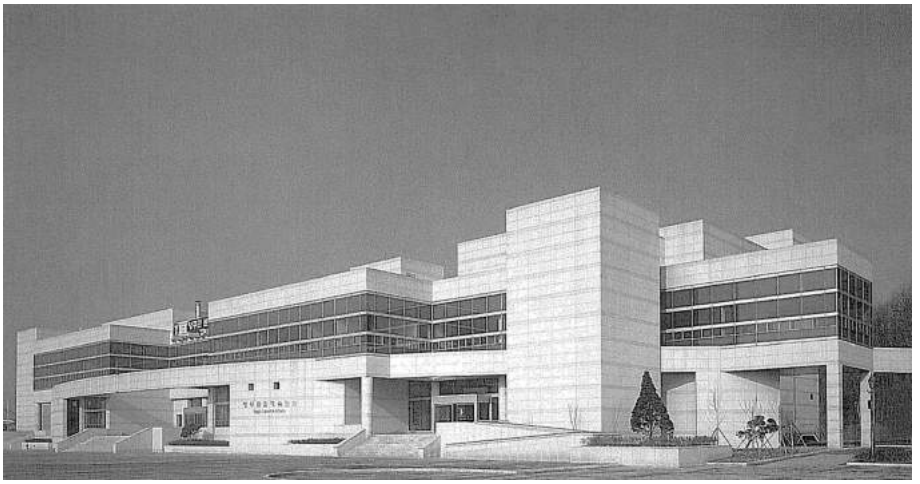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회관(건축사지 1995.1)

1995년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 · 시 · 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지자체 청사나 문화회관 등 지방 특유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었음을 의미한다.

91년에 소개된 수원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인천시립박물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강릉문화예술회관, 안양시립도서관,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김포군민회관 등이 90년대 전반기에 소개된 지역의 문화 건축물들이다. 봉화군사회복지관, 경기도립박물관, 제주학생회관과 도립도서관, 수원야외음악당, 구리시실내체육관, 부산시립미술관, 양주문화예술회관, 고양시립마두도서관 등은 90년대 후반기에 소개되었다.

90년대 문화 건축물에 일어난 가장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들자면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경축식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일제 총독부 청사 철거작업에 들어간 일이다. '완전철거론'과 '현상보존론', '이전복원론' 등의 주장이 맞서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총독부 청사는 96년 11월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건물을 완전히 없앤 것이 잘했느냐 말았느냐의 논란은 차치하고, 식민지배의 총본산이었던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는 촌극은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과 지역에 증가한 문화 건축물들은 개방화, 세계화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좌우대칭형의 권위주의적 건물에서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주문화예술회관(건축사지 1998.9)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입지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교회 관련 시설은 90년대에도 변함없이 큰 비중으로 소개되고 있다.

2000년대의 문화 건축물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이며 정보혁명을 통한 세계화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컴퓨터와 그것을 응용한 사무자동화 기기, 뉴미디어 등이 차차 실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 사람들의 욕구는 점차로 고도화 · 다양화 · 개성화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의 발달과 FTA나 유럽연합 등의 세계 시장 통합 움직임으로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고 있다.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축에 대한 요구와 이해도 다양해지고 세계 수준의 눈높이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물의 칼-진도 전망대(건축사지 2015.3)

21세기 초반의 건축사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화 관련 건축물은 월드컵 경기 유치로 지어진 월드컵경기장들이다. 상암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에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이 들어서고 2002년 건축사지에 소개된다.

안성맞춤박물관이나 음성의 철박물관, 통영수산과학관처럼 작은 도시들이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보여주는 문화 건축물을 짓게 된 것도 21세기의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제주도의 테디베어뮤지엄이나 경기도 국악당, 동강사진박물관, 한국선문화원, 분당의 책테마파크, 청원군의 미동산 생태관 등 각 지역에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대변하고 충족시키는 건축물들이 소개된 때도 2000년 이후의 일이다.

2010년 이후에는 문화를 위한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쿠아플라넷 제주, 통영국제음악당, 물의 칼-진도전망대, DMZ야생동물생태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건축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통영국제음악당(건축사지 2015.3)

에필로그

한국은 광복 후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저 빠르게,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달려왔다. 전쟁과 개발 논리에 밀려 아쉬운 일이지만 유럽 도시들처럼 옛 것을 잘 보존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의 건축은 대부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다. 전통 건축물의 맥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지어졌다.

광복 이후 전쟁이 끝난 뒤, 우리의 당면과제는 먹고 사는 일이었고 빨리 잘살아야 했다. 지저분한 곳은 밀어버리고 높은 건물을 잔뜩 지었다. 당시 건축은 크게 2가지였다. 아파트 아니면 종로나 을지로의 대규모 오피스 건물들. 이후 1990년이 되기 전까지는 앞만 보고 달린 시기다. 건물 크기나 높이만 따지는 권위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 문화와 인문학적인 가치, 공간이 의미하는 가치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년 안쪽의 일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것이 글로벌화 됐다. 서울의 사무실에 앉아서 뉴욕이나 스톡홀름에 지어지고 있는 최신의 건축물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욕구가 변했으며 문화를 담는 공간에 대한 생각도 변했다.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건축물도 이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상업건축 50년

Korean Commercial Buildings Over the 50 years

글. 함성호_ Haam, Seong-ho · 본지 편집위원

1960년대 말~197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가 급감했고, 원조에 기반을 뒀던 남한 경제도 뿌리째 흔들렸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국에 갔던 책임부서 장관이 "올해도 미국의 원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해 경제계획의 다였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본격화된 경제 위기는 장면 시대까지 이어졌고, 빠듯한 재정으로 인한 장면정부의 10만 감군 계획은 군부의 불만을 낳았다.

결국 5 · 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초반에도 이러한 경제난관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1964년 1월 당시 국내에는 모두 7881개의 생산공장이 있었다. 이 중 전체의 36%인 1924개가 휴업 중이었다.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만9689명과 중소광산노동자 1만6643명은 해고당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농업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특히, 1962년 대대적 흉작이 발생, 농가경제는 파탄을 맞았다.[1] 그 후 1964년을 기점으로 수출주도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그 이전의 경제정책은 이승만-장면 정부의 유산이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1964년 이후의 경제적 성과는 확실히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원조는 크게 축소되어 나가다 1972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정부는 차관의 비중을 늘려나간다.

1) 대학신문 2013년 3월 25일자 기사

성하빌딩(건축사지 1969.11)

3.1로 빌딩(건축사지 1971.5)

경제가 수출 주도형으로 바뀌는 시점의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한국 상업건축은 그 어느 시기보다 모더니즘 건축의 어휘를 충실히 따른다. 가히 '수평띠창의 시대'라 명명해도 좋을 이 시기의 상업건축은 고층 빌딩에서 저층 근린생활 시설까지 구조와 완전히 분리된 자유로운 입면을 과시하고 있다. 옆으로 길게 찢어진 수평창과, 그것들을 분절하는 수직루버의 어휘들은 다분히 모더니즘 건축의 것들이다.

1960년대의 계획경제의 자신감이 건축에서도 그대로 들어난다. 수평성을 강조하기엔 너무 작은 건물들은 수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평면은 정연한 박스 안에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로 따지면 60년대 말에는 주로 관주도의 건물들이, 그리고 70년대 후반부에는 은행건물들이 눈에 띈다. 그 배경에는 1960년대 들어 정부는 당시 빈약한 국내 저축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제도의 개편과 특수은행 신설 같은 개편이 단행됐다. 이 당시 농협과 수협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설립됐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설립됐다. 1974년 이후에는 주거래은행제도가 도입돼 기업에 대한 사전적 여신규제가 강화됐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은행 금융기관은, 정책금융으로 억압된 은행권을 대신해 기업의 단기운용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으로 활발히 성장했다. 이 당시의 은행지점 신축은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일신제강 본사 사옥(건축사지 1979.2)

중소기업은행(건축사지 1968.11)

제일은행 동교동 지점(건축사지 1977.1)

1980년대

1979년 독재자가 그의 부하의 손에 죽고, 80년 봄이 찾아 왔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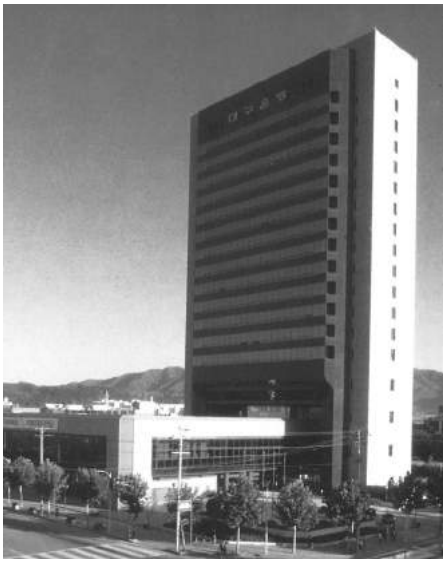
대한화재보험 사옥(건축사지 1981.3)

신화빌딩(건축사지 1982.3)

80년 초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언론 통폐합이 실시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70년대까지 국가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외국 차관의 배분과 특혜 속에서 성장한 독점자본은 80년대 들어서도 권력의 비호 하에 확대재생산을 거듭, 해외직접투자를 늘려나간다. 또한, 70년대를 경과하면서 재벌그룹형으로 정착된 독점자본이 '재벌체제'를 형성하고 거대한 권력으로서 등장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권력이 독점자본을 육성하고 독점자본은 정치권력의 통제하에서 축적을 진행시켜온 그전의 과정과는 달리 이제는 독점자본이 국가를 압박해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지향형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한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내부적인 산업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규모가 증대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기득권력층 및 독점자본의 권력에 의하여 재차 늘어난 규모의 경제가 유지 · 재생산됨으로써 더욱 더 대외적 의존과 내

보영빌딩(건축사지 1982.4)


대구은행 본점(건축사지 198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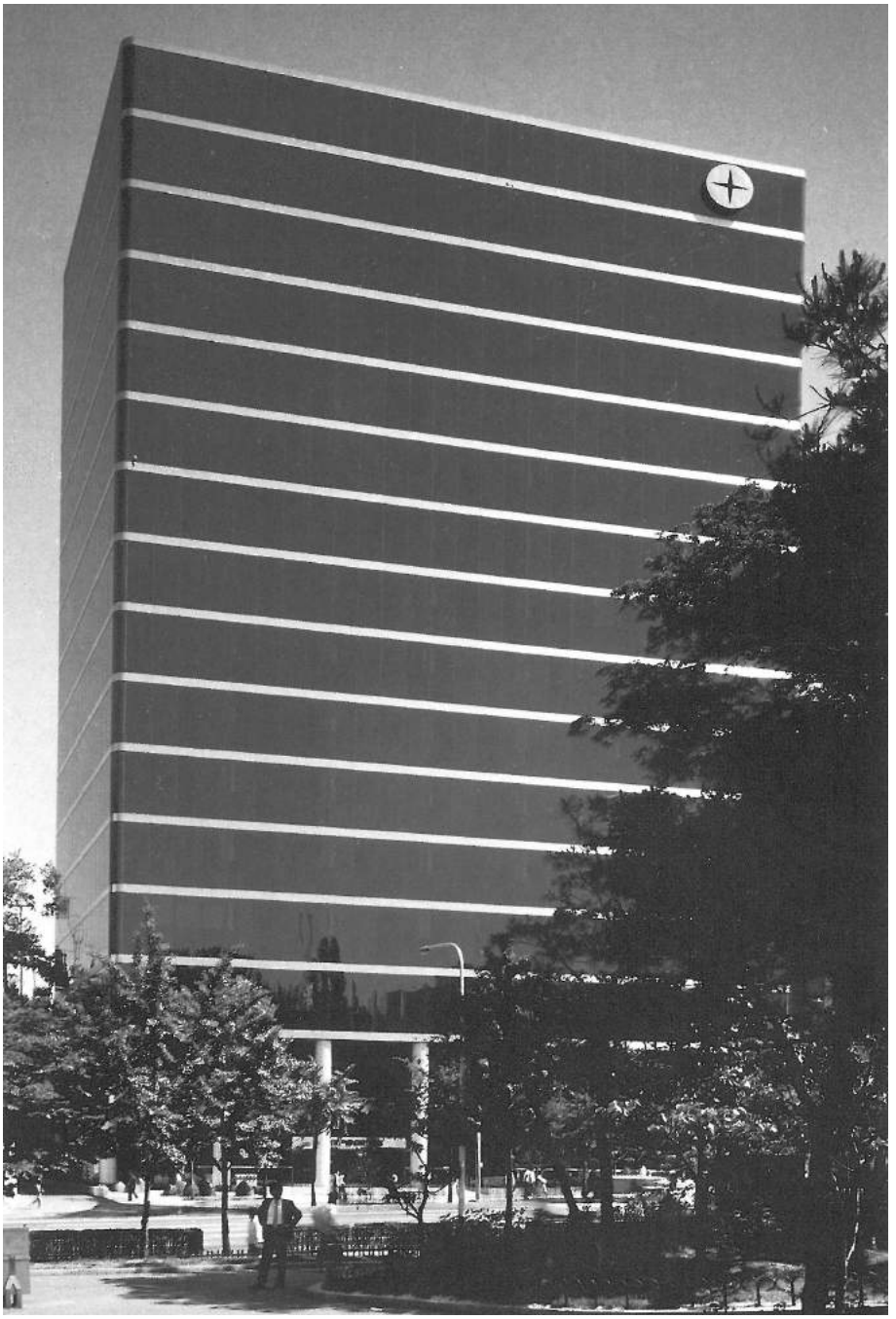
부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게 되었다.[2] 이 시대의 경제정책은 그 이전의 국가주도 정책 모델의 상당부분을 자유경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표된다. 성장을 최우선시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해, 전두환 정부 시대의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이 때 한국은 성장률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이러한 고도 성장기의 끝자락에 개최된 1988 서울 올림픽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건축사>지에 빈번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건물은 (크게 보면)주로 호텔, 병원, 방송사 건물, 그리고 유치원도 종종 눈에 띈다. 도면의 형식에서도 엑소노메트릭 같은 투시도법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건축적으로는 수평띠창의 시대를 벗어나 건물의 입면 자체가 구조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디자인 된다. 6 · 70년대가 창의 수평성을 강조하며 입면의 자유를 과시했다면 80년대는 구조와 분리된 껍데기를 자유자재로 만지게 된다.

이즈음에 대형 오피스 건물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80년대 후반에는 사무실 건물에 아트리움이 설치되는 것도 특징이다. 아트리움은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2)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이은숙. 1999년



시티코프센터 빌딩(건축사지 1988.9)

모더니즘 건축의 위력은 이 시대에도 팽배해 있었고, 작은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실험되던 시기였다. 탈역사적이고, 비맥락적인 장식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모더니즘건축의 대안처럼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1990년대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인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었다. 1992년 그 동안 줄곧 중공이라고 불리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1990년대 초 한국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변화는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이었다. 고용의 탈공업화는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이 생산성의 증가가 가장 빠른 산업이며 많은 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고성장시대의 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공업화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196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부상,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분업체제의 발전, 산업 내적인 특성, 후발국의 빠른 따라잡기 속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용의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더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감소가 1990년대 한국경제의 특성이다.[3] 또한, 1990년대는 정보 혁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대중들에게 정보통신(IT) 기술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이 이 시대로,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고성능 컴퓨터 등의 통신 기기들이 등장하였고,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은 세계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 이른다. 금융과 경제 영역에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대였다. 미국은 이런 환경에서 아주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또 이 시기는 급속한 개발이 불러온 재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독재 시대의 종식과 지속적인 호황,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좋은 시절'로 기억되는 경향이 많지만, 동시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인재로 인한 참극이 잇달아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90년대는 가히 대폭발의 시대였다. 90년대 초 서태지의 등장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었다.

3)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김종일. 2006년

그 세대는 신세대라고 불리다가 X세대로 바뀌었다. 서태지가 은퇴와 함께 사라지자 아이돌 스타들이 자리를 메웠다. 90년대 중·후반은 H.O.T의 시대였다. H.O.T의 곁에는 S.E.S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젝스키스가 있었다.

바야흐로 가요의 황금기였다. 해마다 음반 판매 기록이 경신됐다. 신승훈이 기록을 세우면 김건모가 기록을 깼다.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지하를 뚫고 나와 90년대 주류 음악에 자양분을 제공했다. 90년대 중반 '인디' 음악이 홍대 앞을 거점으로 태동했다. 클럽이 생겼고,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헤드뱅잉이 난무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도 동시에 시작됐다. 90년대 초 · 중반 홍상수, 김기덕, 허진호 같은 작가 감독이 데뷔했다. 작가와 더불어 <쉬리>의 강제규, <투캅스>의 강우석이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 심은하, 고현정, 고소영,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같은 배우들이 첫 작품을 찍었다. 아직도 이들은 한국의 대표 감독, 대표 배우를 독식하고 있다. 드라마도 새로워졌다. <질투> 같은 트렌디 드라마가 시작됐고,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 같지 않은 드라마도 탄생했다. <마지막 승부>의 다슬이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다림이로 스타에서 배우가 됐다. 한편 타르코프스키의 <향수>가 10만 명 관객을 동원하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리뷰> <키노> <씨네21>…. 대중문화를 담론으로 분석하는 잡지가 잇따라 창간됐다. 대중문화의 전성기이자 대중문화 담론의 전성기였다.[4)]
이 시대 한국건축이라고 두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었다. 한국건축에 있어서 90년대는 일본 건축사 안도 다다오의 충격에 휩싸인 시기였다. 권투선수 출신의 이 일본 건축사가 한국 건축에 던진 충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이제까지 형태에 머물러 있던 전통 담론들을 급격하게 공간으로 쏠리게 했고, 공간이 내포하거나 외연하고 있는 의미내용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잠깐 해체주의 건축의 영향이 있었지만 안도의 건축이 주는 충격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1996년 명동성당 100주년기념 현상설계를 통해 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한국건축계는 서구건축의 설계방법이 풍미한다. 이제 구조와 입면, 평면은 모두 공간에 귀속된다. 껍질도 공간이고, 구조도 공간이다.

4) 한겨레21> '90년대 살아있는 추억' 2005년 9월 14일

청청공방(건축사지 1991.7)

시.상 빌딩(건축사지 1993.6)

충북은행 전산센터(건축사지 1991.12)

포스코센터(건축사지 1995.9)

KJ빌딩(건축사지 1997.7)

이 시기의 <건축사>지도 그러한 다양한 모색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대형건물보다는 소규모 건물 위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근린생활시설들이 주로 보이고, 그런 소규모 건물을 통해 건축사들은 기능보다는 어떤 문제의식에(사회적인 문제 의식보다는 미학적 인식에 가까운) 더 집중하는 듯 보인다.

2000~15년대

IT공포와 함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았지만 공포는 정작 그 1년 후인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면서 세계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경제적으로는 호황 기조가 유지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달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망했다. 9.11 테러와 세계금융위기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의 위상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난무했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치적으로 김대중-노무현에 의한 10년 정도의 중도우파 정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쇼핑몰 미라지오(건축사지 2002.1)

미켈란107(건축사지 2005.8)

2007년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도우파 세력은 급속하게 몰락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집권했다.

IMF의 여파인지 이 때 초기의 건축물들 역시 다시 기능에 충실해진다. 종합건축사 면허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지 대형 건물을 디자인 하는 그룹들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로 건축사 그룹이 양분화 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위축된 경향과 달리 후기로 갈수록 대형 오피스 건물은 장식화 되어가는 경향을 띤다. 유리가 거의 전면적으로 쓰이고 거기에 알루미늄 루버들을 겹쳐 놓는 방식은, 그 방법은 많이 다르지만 초기의 모더니즘이 장식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시기의 소규모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다양성도 눈에 띄는 점이다.

삼성 거제호텔(건축사지 2006.7)

액추얼리 빌딩&카페(건축사지 2007.9)

한국건축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최근 완공된 DDP의 논란이 얘기해 주고 있듯이 우리 건축은 끝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 얘기하지도 못하고 덮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한국의 상업건축에 대해 살펴봤지만 결코 만만한 무게가 아니다. 이 무게에 자리를 잡아 주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현어린이집(건축사지 2011.11)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설계공모

Guwol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발주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설계자 : 이용호_KIRA | ㈜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부관사 :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성록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사사무소, ㈜세화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윤택용, 양성원, 김용수, 임완규, 김용훈, 신현수,
김중표, 최재영(행림), 최순철, 김명신, 임채욱(단A&C건축)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대지면적 173,188.00㎡

건축면적 53,467.23㎡

연 면 적 100,6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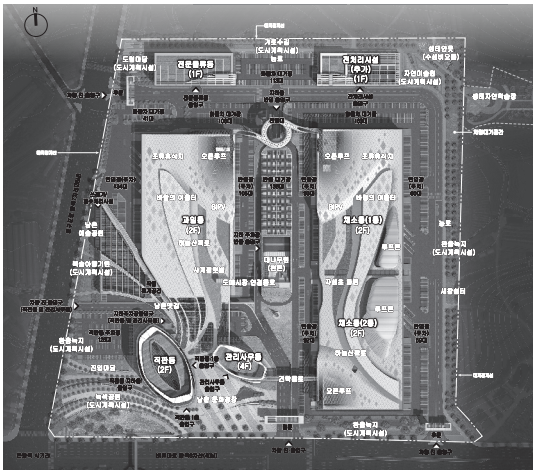
건 폐 율 30.87%

용 적 률 32.53%

규 모 거래시설 - 지하1층, 지상2층
관리사무동 - 지하1층, 지상4층

마 감

- 외부 : 거래시설 - 알루미늄판넬, 펀칭메탈
관리사무동/직판동 - 알루미늄판넬, 메쉬패브릭, 로이복층유리



신선하고 건강한 인천의 식탁을 책임지는 곳, 약 17만 제곱미터 대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연면적 약 10만 제곱미터, 총 주차대수 2,023대를 수용하며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조성되는 유쾌하고 즐거운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의 새로운 모습, '유통소통' 입니다.

당사는 현 구월도매시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NEEDS를 분석하고, 현재 농림부 등이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모델로 꼽고 있는 일본 오타농산물시장과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함부르크 농산물시장 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의 수요까지 흡수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적 현장답사를 통해 시사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중심의 동선, 이용자 중심의 공간 그리고 미래지향의 환경계획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최첨단 종합 물류 기지형 도매시장입니다. 둘째, B2B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에 부흥하여, 당일 유통체계를 갖춘 종합형 식자재 쇼핑몰, 직판동 특화계획입니다. 셋째, 뛰어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갖춘 친환경 도매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풍경과의 조화 속에, 시민과 소통하는 정감 어린 소통의 장을 구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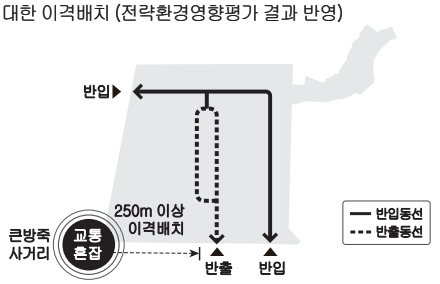
당사 계획안은, 주변의 교통흐름과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도시 교통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된 최적의 물류동선 및 주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남촌로와 자연지형을 고려한 배치 및 공간계획을 통해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입면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곳, 보고,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상의 풍부한 체험이 가득한 시민에게 열린 장소, 인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변현황을 고려한 진 · 출입부 위치 및 물류흐름계획'
''영역별 명확한 분리배치를 통해 시설별 접근성 향상''
'물류시간대를 고려한 동선이용계획과 시설별 연계성 및 편의성 확보'

배치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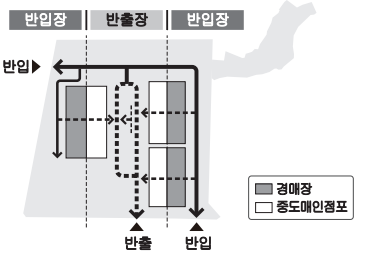
01 _ 화물진출입로 및 물류흐름

• 교통량이 많은 큰방죽사거리와 물류 진출입로 최대한 이격배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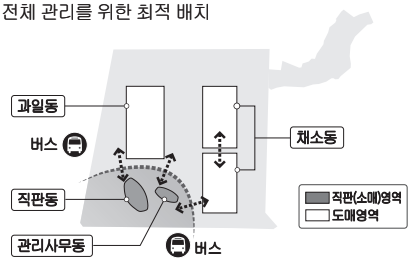
02 _ 물류흐름에 따른 도매시설 배치

• 대지 내 물류동선과 도매시설의 물류흐름을 고려한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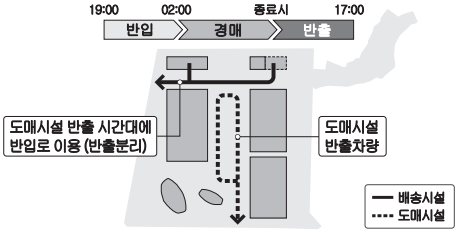
03 _ 직판 및 관리동 배치 최적화

• 물류동선과 분리하여 직판동 배치
•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접근성의 고려
• 시설 전체 관리를 위한 최적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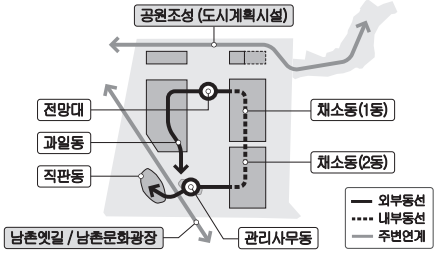
04 _ 물류시간대를 고려한 동선이용 계획

• 도매영역 반출시간대에 배송시설 반출차량의 반입 동선 이용 (시장 반출차량과 동선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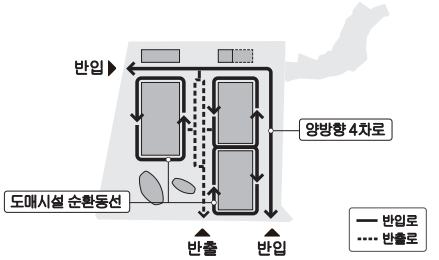
05 _ 다양한 시설 간 연계동선 계획

• 시설이용 동선의 입체적 연결 계획
• 내 · 외부의 다양한 체험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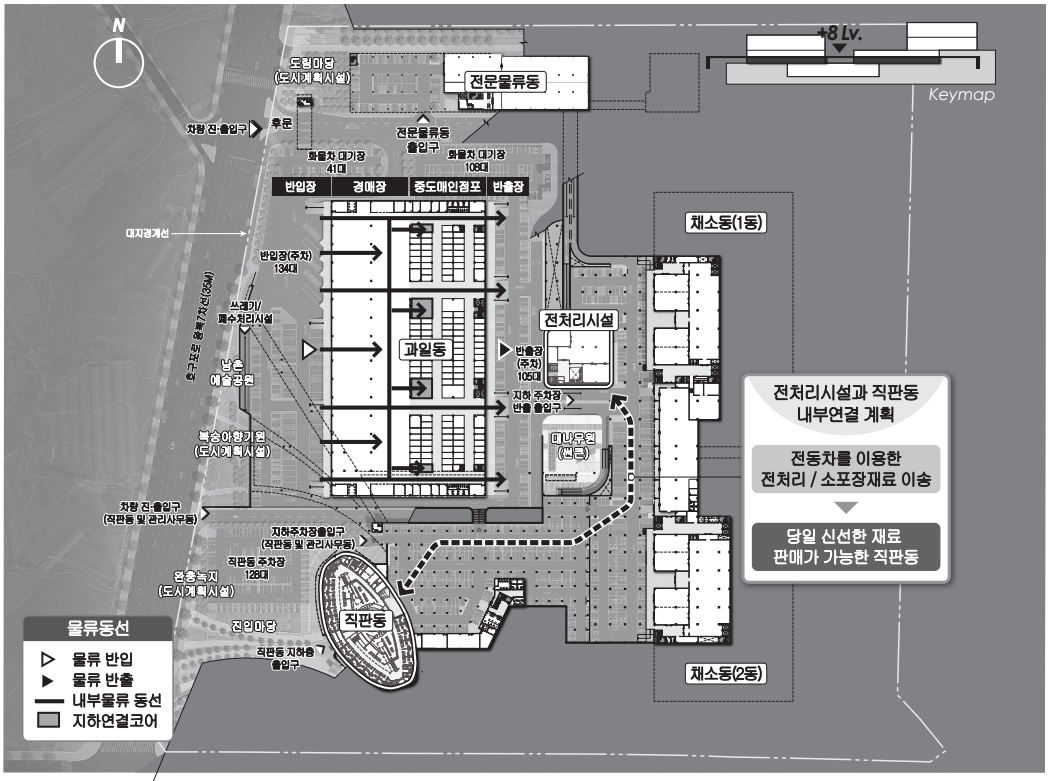
06 _ 양방향 반입동선 및 순환동선 계획

• 반입 · 반출장 간 명확한 구분 및 반입차량 이용 편의성 고려
• 시장 내 물류 이동의 쾌적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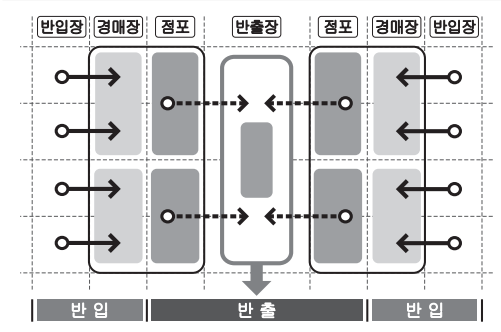
“소포장 · 가공시설과 중도매인 점포 연계성 강화”
“연속된 지하공간을 통한 시설별 연계성 강화”

+8 Lv.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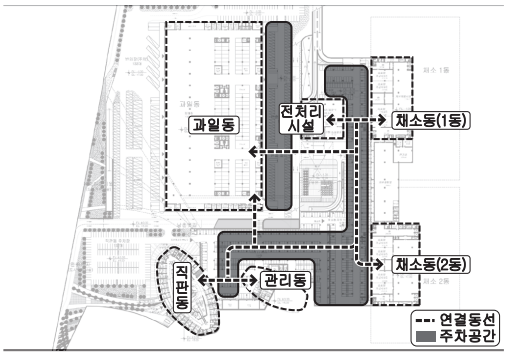
물류동선 최적화

• 신속한 물류의 흐름과 동선 최적화를 위해 반입에서 반출까지 일방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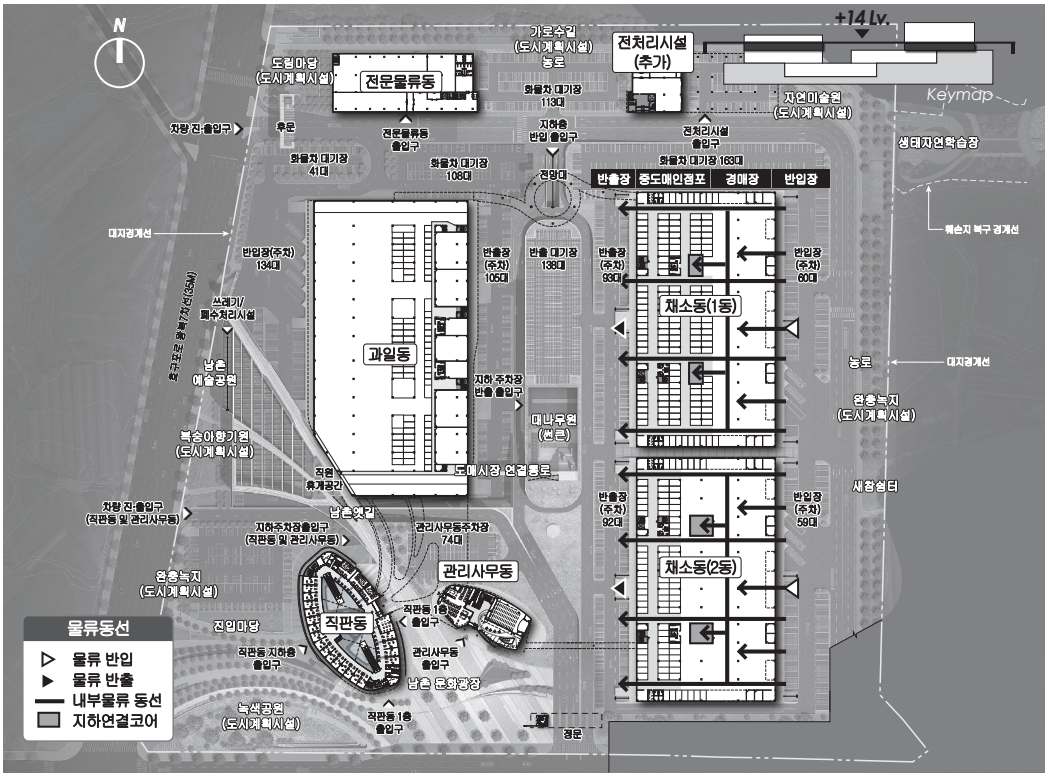
시설별 지하공간 연결계획

• 각 시설 지하 주차공간 연결을 통해 원활한 물류의 흐름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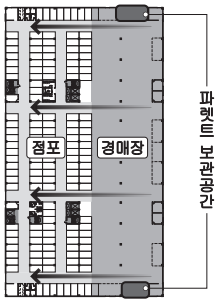
“반입 • 반출의 일방향 물류흐름을 통한 동선 최적화”
“기계화 하역 및 원활한 흐름유도를 위한 파렛트 보관공간 측면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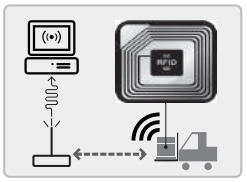
+14 Lv. 평면



파렛트 보관공간 계획

- 물류의 원활한 흐름유도를 위해 파레트 보관공간 측면배치
- 파렛트 RFID 시스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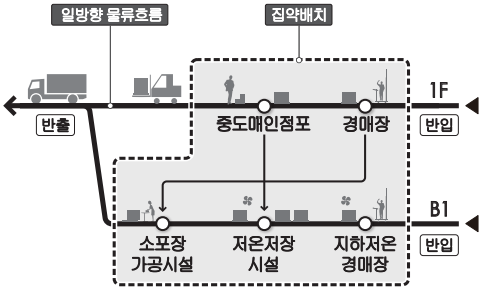




RFID 시스템을 적용하여
파렛트 이용의 효율성 증대

물류 흐름도

- 반입·반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순차적 물류 계획
- 중도매인 점포 – 저온저장실 – 소포장 • 가공시설



건축저작권도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Should be Protected of a Certainty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음악저작권 등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데...

1964년 이미자가 부른 트로트곡 '동백아가씨'는 백영호가 작곡했다. 이 노래의 곡이나 가사를 표절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동백아가씨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는 이 노래에 대한 음악저작권을 가지며, 그에 대해 저작료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무단사용하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 때 거론되는 것이 학위논문표절시비다. 다른 사람의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것들이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이다.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의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보호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침해근절을 위해 많은 단속과 홍보를 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보편화되었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사진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적발하고 민형사소송을 대행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건축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권리자인 건축사 역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① A 건축사는 미국 시카고에 가서 저명한 미국 건축사가

설계한 빌딩에 대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 그대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하게 하였다. A 건축사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② B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참고로 마무리 설계를 해 빌라단지를 건축하게 하였다. B 건축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③ C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개발하여 사용한 기술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C 건축사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Ⅱ. 왜 건축저작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할까?

외국에서는 일찍이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졌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1908년 건축저작물을 실질적인 저작권 대상으로 하였고, 가입국가에 대해 건축저작권보호의무를 규정하였다. 벌써 100년이 지난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법제화하고 강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건축저작권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권리보호에 나섰다. 매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 자체는 잘 정비해 놓았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분야를 보면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 침해구제 등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저작권법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건축저작권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모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다른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침해자는 타인의 건축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건축물저작권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그 침해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어서 대법원의 판례도 적은 편이다.

Ⅲ. 건축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는 어떠한가?

저작권이라 함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건축물 등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② 창작성이 있으며 ③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건축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저작물성을 가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심미적 외관이 모방건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이라 함은, 문학 ·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건축물

등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은 그리스 시대로부터 대표적인 조형예술 작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건축물에는 조형미술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거생활을 위한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술적 저작행위와 기술적 행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제8호는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이 포함된다. 건축저작물은 3차원적인 건축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2차원적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건축물은 부동산이며, 건축은 건축물을 토지 위에 완성해서 보관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완성은 곧 작품의 전시에 해당한다. 건축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예술성이 높은 왕궁이나 종교적 건물, 박물관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물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부분들 또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베란다 · 계단실 · 전등 · 정자지붕 등이 그것이다. 시장광장 · 주택현관의 일직선 형상과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작업에 따라 진행된 개별 건축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 건축물 전체 · 도시계획 또는 그와 유사한 것도 창작성을 가졌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설계도서라 함은 단순한 도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계설비 등 설비도면, 수량산출서 등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분야별로는 건축 · 토목 · 상하수도 · 구조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조경 · 통신 · 제어설비 등으로 구별된다. 설계도서는 작성되는 단계별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시공도 등으로 구별된다.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나 개략 평면도, 개략 단면도도 건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대지나 주변현황 분석, 사용자에 대한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설계지침서도 어문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설계자가 착상의 단계에서 작성하는 스케치인 에스키스, 설계도서, 시공도, 완성된 건축물, 준공사진 등과 건축물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각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타의 문서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Ⅳ. 그러나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 모두가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주거성 · 실용성 ·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난 전체적인 외관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창작성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100% 완전한 독창성을 가진 작품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작성의 의미는 단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3다14828 판결 참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히 건축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있다. 창작성 없는 표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표현의 창작'이라는 것은 표현을 어떤 사람이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른 표현으로 시도하여도 결국 그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 '창작성 없는 표현'이다.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이론이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있다.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무리 독창성(originality)이나 신규성(novelty)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될 수 없다. 사상 또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 표현만이 보호된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

Ⅴ. 건축저작권에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

건축저작물은 건축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건축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①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②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을 취득한다. 건축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생겨날 수 있다. 공동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로도 생겨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

물이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업무상저작물이란 피사용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귀속상의 일신전속성이라고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라고 한다. 건축저작인격권은 ① 공표권(right of disclosure) ② 성명표시권(right of respect for author's name) ③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으로 나누어진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이용 · 수익할 수 있다. 건축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변형이나 훼손, 수정 등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축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VI. 건축저작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건축저작권의 침해라 함은, 건축물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에 의거하였을 것 ③ 침해자의 저작물과 피침해자의 저작물이 동일성 내지는 실질

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창작에 의하여 건축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저작물 역시 다른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처음 생산된 건축저작물과 나중에 생산된 건축저작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평면에 대한 설계도면이 평면에 법규상 정해진 축척과 특정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사상과 감정을 도면상에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서는 뒤에 창작된 설계도면이 앞서 창작된 다른 사람의 설계도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앞서 창작된 설계도면을 보거나 접한 적이 없었다면 그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무거운 처벌조항이 있다. 건축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건축저작권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Ⅶ.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건축저작권의 내용에 따라 맨 처음에 제시한 사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① A 건축사는 미국 건축사의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미국 건축사가 한국에서의 침해사실을 알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② B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어느 정도 모방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③ C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기술내용을 무단 사용하였으나 이는 건축설계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에 건축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되어 건축사들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한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_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 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8.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9.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10. 반 되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6 테크놀로지 미학의 배후
렌조 피아노와 메닐 컬렉션

Renzo Piano and Menil Collection

그림 1)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휴스턴 메닐 컬렉션 전경, 1981~87

1998년 6월 17일 백악관에서 프리츠커상 수상식이 열린다. 1979년 제정된 프리츠커상이 20회를 맞이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리츠커 가문이 백악관과 접촉, 영예로운 수상식을 갖게 된 것이다. 힐러리의 환영사에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고, 제이 프리츠커가 렌조 피아노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클린턴은 축사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남긴 어록을 인용한다.

"모든 위대한 건축사는 분명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삶에 대한 뛰어난 해석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렌조 피아노 역시 그런 역할을 해낸 위대한 건축사입니다."

메달과 함께 상금 10만 불을 받아든 렌조 피아노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쁜 책은 읽다가 내려놓고, 좋지 않은 음악은 기피하면 되지만, 건축은 좋든 싫든 껴안고 살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건축은 '위험한 예술'(dangerous art)입니다. 건축은 서비스입니다. 인간 중심의 건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심사위원장 카터 브라운은 수상자 선정 배경 연설에서 메닐 컬렉션(Menil Collection)을 위대한 미술관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테크놀로지를 중시한 렌조 피아노 건축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2010년, 미국의 대중문화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는 최고의 현대건축을 꼽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11명과 미국의 주요 건축대학 학장 8명, 저명한 건축사와 비평가가 포함된 총 52명의 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1980년대 이후 세워진 건축물 중 가장 우수한 작품 5개를 뽑아달라고 청했다.
거명된 건물은 총 132개, 그중에서 최다 득표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 차지했고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휴스턴의 메닐 컬렉션((Menil Collection)이 2위를 차지했다.

메닐 컬렉션, 25년 건축상을 수상하다

미국 건축계에는 '25년 건축상'이라는 제도가 있다. 건립된 지 25년이 넘는 건축물 중 기

그림 2) 1998년 백악관에서 개최된 <제20회 프리츠커 수상식>의 렌조 피아노

그림 3) 1987년 메닐 컬렉션 개관식의 도미니크 메닐과 렌조 피아노

능이 매우 뛰어나고 건립당시의 원형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평단의 평가가 매우 우수한 작품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어진 지 20년 넘으면 그 건물이 얼마나 유용한지 건축적 가치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마련이다. 건축이 갖고 있는 속내, 모든 장단점이 노출되기에 완공되자마자 받는 건축상하고는 질이 다르다. 1969년 처음 제정된 후 해마다 1작품씩 선정되어 왔으니 25년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은 어림잡아 40여 작품을 훌쩍 넘는다.

역대 수상리스트를 보면 루이스 칸 이름이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 1987년 예일대학 미술관을 시작으로 소크생물학연구소(1992), 필립엑스터 도서관(1997), 킴벨미술관(1998), 예일영국미술관(2005)에 이르기까지 칸의 명작들에게 수여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이 4회, 미스 반데 로에가 2회 수상하여 그 뒤를 잇는다. 필립 존슨은 글래스하우스로, 로버트 벤츄리는 바나 벤츄리 하우스로, 프랭크 게리는 게리하우스로 각각 수상한다. 대부분 미국 국적의 건축사들이나 2013년의 경우는 이탈리아 국적의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메닐 컬렉션이 수상한다.

리처드 로저스와 공동 설계한 퐁피두 미술관이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면, 렌조 피아노 건축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은 메닐 컬렉션으로, 시상식에서 렌조 피아노는 도미니크 드 메닐(Dominique de Menil) 여사를 이 시대 최고의 클라이언트라고 말한다.

미술관 건축의 견본품 메닐 컬렉션

국제적인 아트페어가 개최되는 스위스의 국경도시 바젤. 세계 최고급 미술장터로 소문난 이곳에서 오랜 기간 화상으로 일하면서 미술작품을 수집해 온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r) [1]는 미술관을 세울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휴스턴에 위치한 메닐 컬렉션을 보기 위해서다. 그의 눈에 비친 휴스턴 몬트로세 거리 외곽에 위치한 메닐 컬렉션의 모습은 여느 미술관과는 사뭇 달랐다. 천창의 루버를 통해 파고드는 강한 텍사스의 햇빛은 온유함으로 조율되어 있고, 회백색 벽면은 청빈함을 내뿜었다. 야외의 조각 작품들은 주변의 수목과 어울려 한가로운 여유를 발산하고, 거대한 떡갈나무들은 온통 초록을 이룬다. 차분하고 자연적인 분위기의 미술관 건립을 꿈꾸어왔던 바이엘러는 순간 감동에 빠진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에 이르자 미술관 설계의 적임자가 렌조 피아노임을 확신한다.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을 30년 이상 수집해 온 달라스의 부동산 개발업자 레이몬드 내셔(Raymond Nasher) [2] 역시 메닐 컬렉션을 보고는 크게 매혹된 나머지 이탈리아 제노바 해안에 위치한 렌조 피아노의 사무실을 찾아 간다. 스위스 바젤 교외에 자리잡은 '바이엘러 파운데이션'(Beyeler Foundation)과 달라스 중심가에 위치한 '내셔 조각센터'(Nasher Sculpture Center)는 그렇게 해서 탄생됐다.

맑은 물에 물감이 번지듯 렌조 피아노 건축의 우수성은 미국 미술계에 널리 퍼져나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애틀랜타 하이뮤지엄, 시카고미술관. 포트워스 킴벨미술관, 보스턴 이사벨라 가드너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 굵직굵직한 미국 내 미술관들이 증축 혹은 분관 계획에 나서면서 렌조 피아노에게 책무를 맡긴다. 렌조 피아노가 미술관 건축의 마이더스의 손이 되어 왕성한 건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메닐 컬렉션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건축계의 중론이다. 퐁피두 미술관이 무명이었던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다면, 메닐 컬렉션은 렌조 피아노 미술관 건축의 깊이를 명증하는 견본품과 같은 것이었다. 렌조 피아노의 역작이자 도미니크 드 메닐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메닐 컬렉션, 그 위대한 탄생의 궤적을 탐침해 보자.

---

1) 스위스 국경 지역 바젤 중심가에 조그만 화랑을 연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r)는 화상으로 활동하면서 칸딘스키, 몬드리안, 피카소, 자코메티 같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했다. 160여점의 작품을 모아 소장해 온 그는 1993년 렌조 피아노에게 미술관 설계를 의뢰해 1997년도 완성했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다.

2) 레이몬드 내셔(Raymond Nasher)는 1950년대 초 멕시코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조각상들을 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조각 작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내셔는 댈러스에 쇼핑센터를 세우면서 그곳에 주요 조각상들을 설치했고, 나머지 작품들은 댈러스에 있는 자택 인근 9천7백여 평의 녹지에 배치했다. 1995년 렌조 피아노에게 설계를 의뢰해 내셔 조각센터를 세웠다.

그림 4) 휴스턴 몬트로세 주거지역에 자리 잡은 메닐 콜렉션

휴스턴 문화예술의 아이콘, 도미니크 드 메닐

석유산업의 호황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텍사스 제1의 도시 휴스턴 다운타운에는 대규모 미술관 거리가 발달되어 있다. 휴스턴 현대미술관과 조각정원, 유태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비롯하여 어린이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한 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뉴욕 5번가의 미술관 거리를 뮤지엄 마일(Museum Mile)로 부르는 것처럼 이 일대를 뮤지엄 디스트릭트(Museum District)로 부른다. 휴스턴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와 허만 공원(Hermann Park)를 끼고 발달한 뮤지엄 디스트릭트. 그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몬트로세 거리로 발길을 돌리면 도미니크 드 메닐이 생전에 조성한 미술관 단지가 등장한다. 메닐이 후원했던 성 토마스 대학 건물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로스코 채플의 모습이 보이고, 곧이어 메닐 컬렉션과 톰블리 미술관이 나타난다. 도미니크 드 메닐이 세운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대학 캠퍼스처럼 분산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메닐 캠퍼스라고 부른다.

미국 서부에 게티 미술관을 세운 폴 게티(Paul Getty)가 있고, 동부에는 솔로몬 구겐하임과 모마를 설립한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Abbey Aldrich Rockefeller)가 있었던 것처럼, 문화적 지층이 상대적으로 엷어 보이는 텍사스 주에도 도미니크 드 메닐이라는 걸출한 패트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메닐 캠퍼스에서 체감하게 된다.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40여 년 동안 미술 후원은 광범위했다. 휴스턴 예술협회와 현대미술관을 후원했고, 라이스 대학 미술학부의 발전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1980년대 이후 메닐의 업적은 미술관 신축과 작가 후원으로 결실을 맺는다. 1만여 점이 넘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보존하기 위해 1987년 상설 미술관인 메닐 컬렉션을 세운 것을 필두로, 비잔틴 프레스코화 미술관(Byzantine Fresco Chapel Museum)과 사이 톰블리 미술관(Cy Twombly Gallery), 그리고 댄 플래빈의 설치작품을 위한 전시관 리치몬드 홀 (Richmond Hall)을 잇달아 세웠다.

텍사스 마파에 있는 도날드 저드의 작업실 치안티 파운데이션(Chianti Foundation)의 운영 자금을 댔고, 실험 작가들을 위해 뉴욕 첼시의 디아 파운데이션(Dia Foundation)을 후원하기도 했다. 미국 현대미술의 후원자임을 자처한 도미니크 드 메닐은 휴스턴 문화예술의 아이콘이었다. 휴스턴의 예술 발전과 미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삶은 이렇게 시작된다.

컬렉터 도미니크 드 메닐의 예술적 삶

잔 드 메닐(Jean de Menil)과 도미니크 슐룸베르거(Dominique Schlumberger)는 1930년 베르사이유에서 열린 댄스파티에서 처음 만난다. 잔은 야심만만한 은행가였고, 도미니크는 세계적인 기업 슐룸베르거사(Schlumberger Limited)의 창립자 콘래드 슐룸베르거의 딸이었다. 1931년 파리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도미니크 슐룸베르거는 도미니크 드 메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두 사람은 귀족 계층들이 모여 사는 파리 7번가에 살았다.

그림 5) 휴스턴 문화예술을 일군 메닐 부부(197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자 메닐 부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석유산업의 중심지 휴스턴에는 석유산업으로 이름을 떨치는 슐룸베르거사의 미국 본부가 위치해 있었다.

뉴욕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메닐 부부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건축 큐레이터로 복귀한 필립 존슨에게 그들이 살 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국제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메닐의 주택 내부에는 예술 작품으로 채워졌다. 메닐 부부의 초기 컬렉션 방향은 유럽 모더니스트 화가의 작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데 키리코, 막스 에른스트, 르네 마그리트, 만 레이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 구입에 몰입했고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 페르낭 레제처럼 20세기 유럽 미술을 주도했던 화가들의 작품들도 구입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막스 에른스트와는 친구처럼 지냈고 그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해 주었다(이 시절 막스 에른스트는 도미니크 메닐의 초상 한 점을 그린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화가들의 작품에 눈길을 돌렸다. 마크 로스코와 바넷 뉴먼, 로버트 마더웰, 윌리엄 드 쿠닝, 앤디 워홀 등 1950~60년대 새롭게 주목받는 미국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컬렉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들이 거주하던 뉴욕의 아파트와 휴스턴의 집은 사교공간이 되었고, 예술가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의 방문으로 북적거렸다(앤디 워홀 역시 도미니크 드 메닐의 초상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을 제작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미니크 드 메닐의 소장 작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수메르 문명의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1만점이 넘는 회화와 조각, 판화, 드로잉, 사진과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소장된 미술작품을 전시할 전시공간이 필요했다. 20년 넘게 휴스턴의 몬트로세 외곽지역에 12에이커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도미니크 드 메닐은 이곳에 미술관을 짓기로 결심하고는 1973년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하던 루이스 칸과 접촉하였다. 루이스 칸은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메닐 부부와 토론하면서 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잡아나갔다.

그림 6) 막스 에른스트가 그린 도미니크 드 메닐의 초상, 1934

그러나 그 해 6월 갑자기 남편 존 드 메닐이 사망했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74년 3월에는 인도 아메다바드에 출

그림 7)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 도미니크 드 메닐, 1969

장 갔다 오던 루이스 칸마저 뉴욕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쓰러졌다. 칸은 죽기 전에 미술관의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도면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은 상태였으나 메닐이 추진해 온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루이스 바라간을 비롯한 여러 건축사들과 접촉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메닐은 이 때 퐁피두 미술관 관장인 폰투스 훌텐(Pontus Hulten) [3]을 통해 렌조 피아노를 소개받는다. 퐁피두 미술관의 건설과정을 통해 렌조 피아노의 능력과 인간적 됨됨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토마스 훌텐은 도미니크 드 메닐에게 렌조 피아노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지함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합리성, 팀워크와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아키텍트라면서 메닐을 설득한 것이다. 렌조 피아노와 최고의 클라이언트 메닐과의 조합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렌조 피아노 건축, 화려한 시대의 개막

1971년 런던 우체국 앞바닥에 주저앉은 두 젊은 건축사가 마감시간에 쫓기면서 공모전 응모작을 파리로 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제출도면들을 정성들여 포장한 후 발송을 마치고 나서야 깊은 숨을 토해낼 수 있었다. 우편물 속에 담긴 것은 파리 중심 보부르에 들어설 미술관 현상설계안. 이 우편물은 두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는 전령이 된다. 잠시 그 과정을 들여다보자.

파리 중심가 보부르 부근(레알지구와 마레지구 사이)을 지날 때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곤 했던 중년 신사가 있었다. 이곳에 커다란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시설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조르주 퐁피두는 1969년 6월 선거에

3) 스위스 출신의 컬렉터이자 미술관 운영자인 Pontus Hultén(1924~2006)은 20세기 가장 뛰어난 미술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의 관장을 지냈고, 퐁피두 미술관 초대 관장으로 1981년까지 근무하였다.

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내각에 직접 지시해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그해 12월 파리의 현대미술과 대형 공공도서관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 발표되고 50개국에서 681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작품은 출품번호 493번. 9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당선된 계획안은 미래주의, 구성주의를 연상시켰고, 진보적인 성향의 건축그룹 '아키그램'이 1960년대 초 내놓은 공상적 이미지를 떠올렸다. 너무나 이질적인 나머지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선 같다고 평론가들은 수군댔다. 정유공장처럼 보이는 당선작이 공개되자 에펠탑이 들어설 때처럼 파리 지식인들은 들끓었다. 더욱이 당선된 건축사는 건축계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풋내기들이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장이었던 테크놀로지의 예찬론자 장 푸르베(Jean Prouve)는 당선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에게 실시 설계권이 주어졌고, 1972년 3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974년 퐁피두 대통령이 희귀질환인 매크로글로브린혈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반대세력에 의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몰린다. 우여곡절 끝에 1977년 1월 31일 완공되었을 때 대중들은 경이로운 모습에 환호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기계'(machine à émouvoir)였다. 진보와 기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고, 젊은 두 건축사는 기술지향적 유토피아 건축의 기수가 되었다. 시카고 튜리븐 타워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무명의 설움을 떨쳐낸 레이몬드 후드(Raymond Hood)가 그랬듯이 이들 건축사의 지위는 하룻밤 사이에 수직상승했다.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가 일약 세계적인 건축사의 반열에 오른 배경에는 오브 애럽의 구조 3팀에서 일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엔지니어 피터 라이스(Peter Rice)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실시설계에 7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던 피터 라이스는 오브 애럽의 구조 3팀과 함께 일해오던 독일 건축사 프라이 오토의 소개로 리처드 로저스(1933년생)를 처음 만난다. 로저스는 당시 런던의 마야코프스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의 렌조 피아노(1937년생)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과 동년배인 피터 라이스(1935년생)는 엔지니어로서 창의적인 작업을 목말라 했고 상상력을 불태우고 싶었다. 때마침 파리에서 미술관 현상설계가 공포되자 피터 라이스는 이 두 젊은 건축사에게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미술관 현상설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한다.
다소의 망설임 끝에 현상설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 30대 중반의 두 젊은이에게 있어서 1971년 7월 13일은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다. 현상설계 당선 소식에 그들은 전율했다.
그들 스스로가 '반항아'라고 일컬었듯이 제출한 계획안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에 당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터였다. 당선의 영예는 표면상 두 건축사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피터 라이스 역시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곧바로 두 건축사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실무 팀이 파리에 설치됐고, 기술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구조회사인 오브 애럽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라이스 역시 그 중심에 있었다.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협동 작업은 1977년까지 지속되었고, 퐁피두 미술관이 완공되자 파리 사무소는 해체됐다. 리처드 로저스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렌조 피아노는 가족이 있는 이탈리아 제노바로 돌아와 피터 라이스와 함께 사무소를 개업했다. 렌조 피아노와 피터 라이스는 의기투합해 여러 방면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피아트사를 위해 자동차 디자인을 수행했고, 페로 시멘트와 알루미늄을 사용한 요트를 설계했다. 실험성 강한 오틀란토 도시재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피아노가 단독으로 '렌조 피아노 빌딩 워크숍'(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이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것은 1980년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퐁피두 미술관 관장폰 투스 훌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그로부터 도미니크 드 메닐을 소개받았다. 온화하고 지적인 용모에 현대미술에 조예가 깊은 휴스턴에서 온 중년 부인의 눈에는 훌륭한 미술관을 세우겠다는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림 8) 메닐 컬렉션 천장 구조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렌조 피아노(중앙)와 피터 라이스(오른쪽)

건축 패트런, 도미니크 드 메닐

파리에서 대학을 나온 도미니크 드 메닐의 전공은 수학, 남편 존 메닐의 전공은 정치학이었다. 건축 전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닐 부부는 뚜렷한 건축관을 소유하게 된다. 1939년 전쟁을 피해 파리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메닐 부부는 뉴욕에 거처를 정하고 휴스턴을 오가면서 문화적 삶을 즐겼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 큐레이터와 예술가들, 그리고 상류사회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여류 조각가 마리 칼레리(Mary Callery)[4]를 만나 친구가 되는데, 건축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던 마리 칼레리는 메닐 부부에게 모마의 건축부장인 필립 존슨과 미스를 소개시켜 주었다. 1947년 필립 존슨의 기획으로 모마에서 열렸던 '미스 반 데 로에 건축 회고전'을 본 도미니크 드 메닐은 미스의 건축에 매료됐고, 자연스럽게 현대적 감각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건축을 선호하게 됐다. 메닐 부부는 1948년 휴스턴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마리 칼레리는 미스를 설계자로 추천했다. 설계비는 10만 불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메닐부부의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는 미스를 멘토로 삼고 있던 필립 존슨으로 결정된다. 1951년 완공된 이 주택은 휴스턴 최초의 국제주의 양식의 건물이었다. 필립 존슨은 이후에도 메닐 부부의 후원 아래 성 토마스 대학의 마스터 플랜과 로드코 채플의 기본 설계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림 9) 이스라엘 텔아비브 에인 호로드 키부츠(집단농장)

그림 10) 에인 호로드 키부츠 미술관 내부

1970년대에 접어들자 도미니크 드 메닐의 나이도 예순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성 토마스 대학 인근의 단독 주택을

4) 뉴욕에 태어난 Mary Callery(1903~1977)는 아트 스튜던트 리그를 졸업한 후 조각가로 활동했다. 1930~40년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피카소와 친구로 지냈고 1940년대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조각가로 활동하다가 1977년 파리에서 사망했다.

여러 해 걸쳐 구입해왔던 메닐 부부는 주택을 허물고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건축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현대건축을 리드해 온 루이스 칸(Louis Kahn)이었다.

휴스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트워스에는 루이스 칸의 걸작 킴벨 미술관이 위치해 있었다. 평소 킴벨 미술관의 건축적 질에 경외감을 품어오던 메닐은 루이스 칸이야말로 미술관 설계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루이스 칸의 죽음으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7년 후 그 역할을 렌조 피아노가 대신하게 되었다. 렌조 피아노가 메닐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것은 1981년이었다. 르 꼬르뷔지에가 라 뚜렛 수도원을 설계하기에 앞서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신부 알란 꾸뛰리에의 요청으로 검소한 빛이 감도는 프랑스 남부 르 토로네 수도원을 방문했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시작되기에 앞서 렌조 피아노는 메닐의 요청으로 그녀와 함께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답사 여행을 떠나게 된다.

빛의 미술관, 새로운 형식을 향하여

1981년 11월. 세계적인 컬렉터로 성장한 도미니크 드 메닐은 건축사 렌조 피아노를 대동하고 텔아비브 북쪽 에 위치한 에인 호로드(Ein Horod) 키부츠의 작은 미술관을 답사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한다.[5] 렌조 피아노는 그 곳에 도착할 때까지 방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도미니크 드 메닐이 추구하는 미술관이 어떤 것인지 단박에 알아 챈다. 키워드는 빛이었다. 키브츠 출신의 건축사 사무엘 비켈스(Samuel Bickels)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지붕 구조가 특이했다.[6] 천창 밑에 스크린이 달려있어 지붕으로부터 투입된 자연광이 전시공간 가득히 침윤되어 있었고, 그 빛은 직접적인 빛이 아닌 여과된 빛으로, 과잉스럽지도 현란하지도 않은 은은함을 포효하고 있었다.
한동안 천창을 바라본 피아노는 스케치북을 꺼내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스케치하면서 미술관 프로젝트의 미션이 빛의 개발에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이때 그린 스케치 상단에는 1981년 11월 26일을 적혀 있어 미술관을 방문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스케치에 나타난 방식은 피아노가 설계한 미술관 건축의 특질로 발전한다).

5) 1910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약 300개의 집단농장 키부츠가 건설되었다. 키부츠 공동체 안의 삶은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에 근거하며, 공동소유의 생활공간을 캠퍼스라 부른다. 모든 공간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뜻하는 담이나 경계가 없다. 커뮤니티의 핵심장소인 중앙공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집, 문호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키부츠는 농촌지역에 주로 배치되지만 전시실 독서실 공연장 음악감상실 등을 갖춘 문화공동체로, 중심부에 위치하던 문화시설은 번잡함으로 인해, 외부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도미니크 드 메닐은 미술 작품을 오랫동안 수집해 해오면서 예술작품은 자연스런 상태에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숲속에 들어서면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와 숲속을 밝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전시공간도 걸러진 여분의 빛을 받아들여 자연스런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광이 아닌 자연광 속에서 미술작품의 색감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도미니크 드 메닐과 렌조 피아노는 미술관 지붕을 유리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피아노는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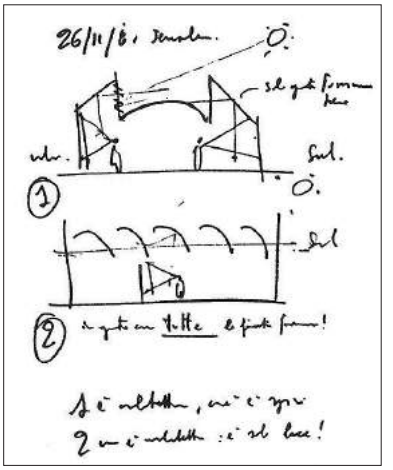


그림 11) 에린 호로드 키부츠의 미술관을 방문해 그린 렌조 피아노의 스케치, 1981년

평평한 유리 지붕으로부터 전도된 자연광, 그리고 그 빛을 걸러내는 나뭇잎 역할의 루버.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유리면으로 처리된 천장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텍사스의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조절해 전시공간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몰두한다.

그리고는 빛을 여과시키는 역할과 구조적 역할을 갖춘 독특한 루버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 루버를 '빛의 잎'이라고 명명했다.

빛을 거르기도 하고 퍼트리기도 하고 빛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루버의 개발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볍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야 했고,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빛의 잎'으로 불리는 루버의 크기와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해야 했다. 처음에는 종이위에, 다음에는 1:10 모형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실제 크기인 1:1 축적으로 제작해 오류를 시정해 나갔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각적 예찬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실용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 총력을 쏟는다. 퐁피두 미술관의 경우처럼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야만 했다.

미술관 천장을 덮을 '빛의 잎'을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하던 중, 요트를 제작할 때 사용해본 적이 있었던 페로시멘트를 떠올렸다. 페로시멘트는 고도로 보강된 콘크리트 박판으로 이

6) 사무엘 비켈스(Samuel Bickels, 1909~1975) 사회주의 시오니즘 가정에서 자란 비켈스는 르보프 폴리테크니쿰(Lvov Polytechnikum)에서 건축과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으며 홀로코스트에서 가족을 잃고, 1930년대에 텔 요제프 키부츠(Kibbutz Tel Yosef) 멤버가 되었다가 1952년부터 75년까지 베이트 헤쉬타 키부츠(Kibbutz Beit Hashita)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10여 개의 키부츠 기획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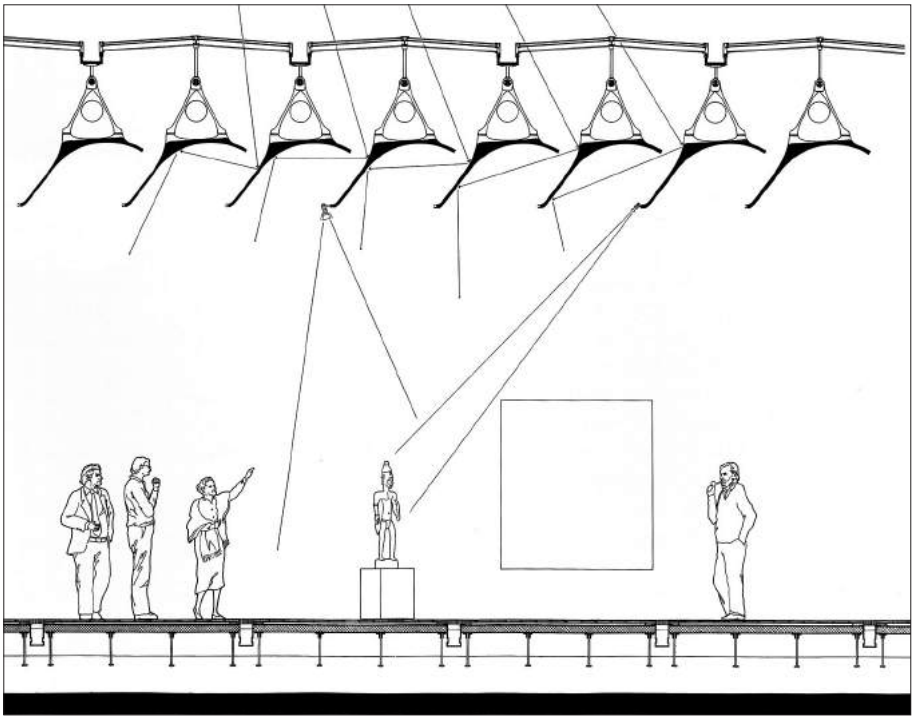


그림 12) 자연광 도입개념과 '빛의 잎'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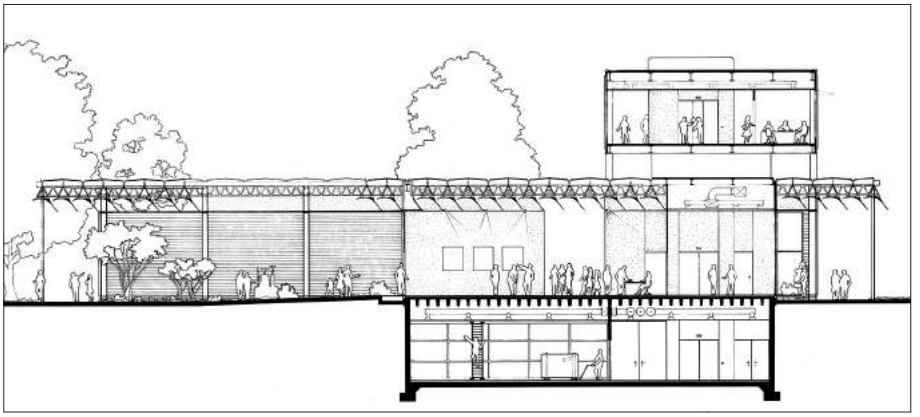


그림 13) 메닐 컬렉션 단면도

탈리아 건축사 피에르 네르비가 1950년대 처음 고안해 낸 것으로,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된 모르타르에 와이어메쉬를 보강한 페로시멘트는 견고하고 영속성이 뛰어나고 두께 1.5~4센티미터로 박판으로 만들 수 있어 높은 취성(구조용 재료의 충격에 대한 저항 기능)을 갖추

고 있었다. 렌조 피아노는 피터 라이스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메닐 미술관의 지붕재료로 2.5센티미터의 페로시멘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시멘트 상단에 트러스를 설치하여 트러스 하현재에 '잎(Leaf)'으로 불리는 총 300개의 페로시멘트 루버를 매다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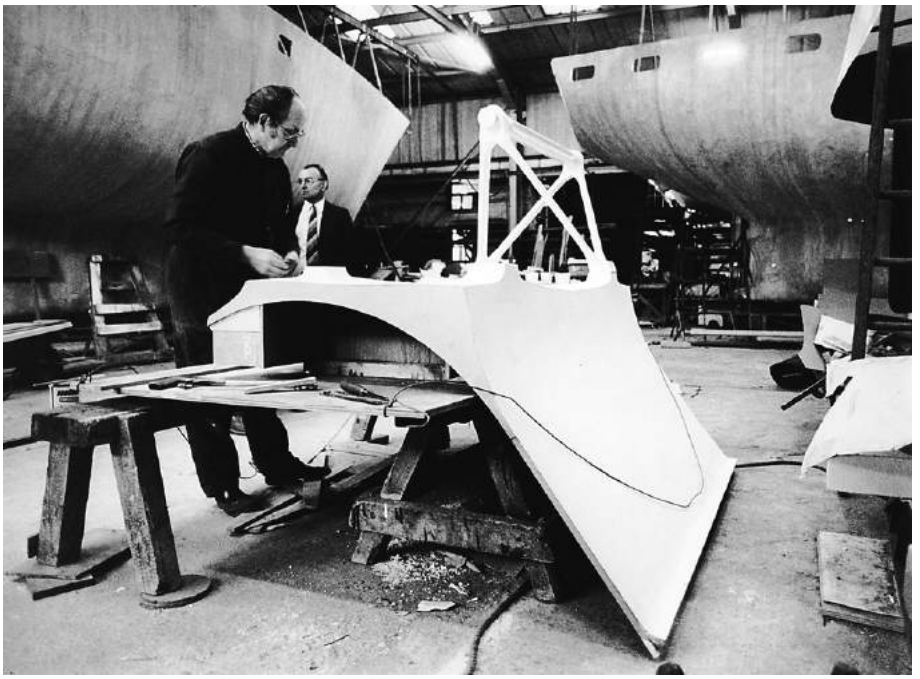


그림 14) '빛의 잎'으로 불리는 천장 구조물 개발 현장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텍사스의 미세한 기후적 조건을 해결해야만 했다. 휴스턴처럼 열대강우 지역에서는 지붕을 유리면으로 처리했을 때 방수성이 우수해야했다. 유리면은 특수한 방수 수리를 해야만 했고 그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열과 자외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내부공기를 조절하기 위해 유리면과 페로시멘트 사이에 공기조화 통기관을 설치했다.

미술작품의 손상과 관련해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광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연구는 오브 애럽의 엔지니어 톰 바커(Tom Barker)의 몫이었다. 그는 도미니크 드 메닐과 메닐 컬렉션의 큐레이터 폴 윙클러(Paul Winkler)와 함께 그림의 보존과 허용할 수 있는 빛의 양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톰 바커는 과학자답게 수년 동안 조사된 일광과 인공 빛의 총량을 산출해 허용량을 계산해 내었다. 회화 작품의 경우 빛의 허용 가능 레벨을 일반적

그림 15) 메닐 컬렉션 입구의 루버

인 허용 기준보다 6배로 상향조정했다. 허용 기준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시기간을 조정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빛에 노출되는 총량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으로, 일반적인 전시환경에서 6개월 전시 가능한 작품은 1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이 가능한 작품은 6개월로 전시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책은 소장한 작품의 10퍼센트만 전시하고, 전시품을 수시로 교체한다는 도미니크 드 메닐의 운영 지침과 맞아 떨어졌다. 전시되지 않는 작품들은 2층 수장고에서 이상적인 상

그림 16) 메닐 컬렉션 중앙 로비

그림 17) '빛의 잎'으로 자연광이 유입되는 메닐 컬렉션 전시장 내부

태로 보관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측정된 휴스턴 지역의 날씨에 대한 정보가 활용됐고, 그러한 정보는 나뭇잎으로 불리는 루버의 치수와 각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지붕 전체를 유리로 처리하고 루버를 설치하는 방식은 일찍이 다른 미술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연광이 침윤하는 미술관 지붕구조는 이때부터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미술관 건축의 특질이 된다. 몇 년 후 인접부지에 지어진 사이 톰블리 미술관 역시 메닐 컬렉션과 비슷한 지붕 구조로 지어졌다. 바젤과 달라스,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에 메닐 컬렉션과 유사한 지붕구조를 지닌 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는 동인이 되었다.

마을 미술관 – 렌조 피아노 건축의 논리

하이테크 미학에 충만한 파리 퐁피두 미술관을 머릿속에 넣고, 몬트로세 지역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메닐 컬렉션을 찾아오게 되면 그 위용에 자칫 실망할지도 모른다. 메닐 컬렉션이 퐁피두 미술관처럼 위압적인 매스를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외부 마감재가 차가운 금속이 아닌 따뜻한 분위기의 나무 판재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온화하게 설계되었을까? 메닐 컬렉션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마을 미술관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분산된 아담한 목조주택과 호응하는 마을 미술관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었다. 도미니크 드 메닐은 미술관 외관은 작아 보이는 대신 내부는 커보이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한다.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미술관,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관람하는 미술관, 정감 가는 미술관으로 설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마을 미술관 개념으로 인해 미술관의 외부 마감재는 주변 주택의 마감재와 동일한 회색의 목재 판벽으로 결정됐다.[7] 백색의 철제 프레임에 사이프러스 나무판을 붙여 건물이 적당히

그림 18) 메닐 컬렉션 건립부지 모습(1973)

그림 19) 메닐 컬렉션이 들어선 휴스턴 몬트로세 주거지역(1987)

숨을 쉴 수 있도록 조립식 시공기법을 사용하였다. 전시공간의 바닥도 석재나 콘크리트가 아닌 어두운 색조의 목재 마루 널을 사용해 편안함과 친근감을 제공했다.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강화하는 이 같은 방식은 기둥 처리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메닐 컬렉션의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의 굵기는 몸체에 비해 너무 왜소해 보일뿐더러, 기둥의 떠받치는 기단 역시 너무 작다. 전통적인 미술관의 석재기단과 석재기둥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유약해 보인다. 일견 그가 추구해온 건축논리, 무거움을 덜어낸 경량성과 투명성의 논리가 작용한 것처럼 해석되나 이것 역시 주변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것으로 렌조 피아노는 필립 존슨이 설계한 인근 성토마스 대학의 포티코(portico, 열주랑)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메닐 컬렉션 이후 렌조 피아노는 장소성을 강조해 왔다. 각각의 장소는 각각의 이야기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눈짓을 주고 귀를 기울이면 그 장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해는 어떻

7) 메닐 컬렉션의 기본 평면 구조는 6미터×12미터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 1.5미터의 단위의 기본 모듈을 사용하여 공간구획이 이루어져 있다. 평면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내용 전개상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게 지나가는지,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어떤 소리가 있는지, 주변의 나무들과 집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건축사는 알아야만 한다고 강변한다.
주변 상황을 중시하는 이 같은 사고는 일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주창하던 컨텍스츄얼리즘(Contextualism)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의 건축은 포스트모던과는 거리가 멀다. 메닐 컬렉션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던 1980년대 초반, 많은 건축사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덧에 빠졌지만 건설적인 측면을 즐겨온 그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 필립 존슨이 AT&T 빌딩을 내놓고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포틀랜드 시청사를 설계하여 스타덤에 올랐고, 찰스 젱스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를 내놓고 앞으로 당분간 포스트모던건축이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이 시기를 건강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많은 건축사들이 고전주의와 절충주의를 탐미했을 때 그는 다른 쪽에 시선을 보냈다. 미학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건설방법을 재창조하고, 건축 부재의 결합 방식과 신소재, 신기술을 탐침했다. 그렇다고 그가 기술 만능주의에 경사된 것은 아니었다. 피아노에게 있어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환경과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이에 대한 응답을 메닐 컬렉션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건축사 혼자 일궈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와 건축사, 엔지니어가 합일해서 만들어낸 코러스였다.

그림 20) 필립 존슨이 설계한 성토마스 대학건물의 포티코, 가볍고 경쾌한 기둥개념이 메닐 컬렉션에도 적용된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건축의 논리

렌조 피아노의 제노바 사무실은 바닷가 절벽위에 있다.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작은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다. 섬처럼 고립된 이곳에서 피아노는 자주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그에게 있어서 침묵은 아이디어를 토해내는 성찰의 시간으로 건축사에게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 때문일까. 렌조 피아노의 미술관 건축은 요란스럽지 않다. 그가 설계한 미술관은 햇빛이 창문을 타고 스미는 사랑방과도 같다. 탁자 위에 책과 찻잔이

놓여 무언의 시선으로 대화를 나누듯, 관람자들은 미술작품과 진지하게 성찰의 시간을 나누게 된다.

피아노가 빚어낸 건축물은 대부분 경량감, 가벼움, 투명성, 간결성 등의 키워드들로 무장되어 있다. 미술관 건축의 주제는 천창에서 쏟아지는 빛이다. 지붕 전체가 유리다. 메닐 컬렉션을 필두로 사이 톰블리미술관, 내셔조각센터,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을 비롯하여 후기 작품인 시카고 미술관 증축계획, 하이뮤지엄 증축계획, 킴벨미술관 분관계획에 이르기까지 유리로 덮인 지붕이라는 콘셉트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피아노는 경량감에 충만한 자신의 건축 경향의 배후를 성장과정에서 찾는다. 콘크리트처럼 무거운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의 작업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태어난 제노바 항구의 특성도 가벼움의 추구에 한몫 거들었다고 말한다. 그에게 항구의 경관은 가볍고 덧없는 것이었다. 오가는 배들에 의해 풍경은 순간순간 바뀌고, 주변의 사물이 수면에 어른어른 비치는 항구의 모습은 콘크리트 건축물처럼 한군데 고착된 풍경이 아니라 매순간 변하는 가볍고 덧없는 것이었다. 가벼움과 가변성이라는 개념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들었고, 어느 순간 건축의 개념으로 승화되기에 이른다.

그림 21) 메닐 컬렉션 입구, 마이클 헤이저의 조각이 잔디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마을 미술관의 개념으로 주변 주거단지와의 조응에 역점을 두었다.

오늘날 건축요소를 가능한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렌조 피아노 건축의 논리 속에는 풍경을 받아들이고 환경과 교감하려는 의지가 침잠해 있다. 강철과 유리를 사용하고,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신봉하지만 그의 목표는 인간의 삶에 가장 적합한 환경의 창출로 수렴된다. 루소가 철학에서 자연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자연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어 – 팀워크로서의 건축

메닐 컬렉션은 1987년 완성된다. 1981년 설계가 처음 시작되었으니 6년여의 긴 세월이 걸린 셈이다. 메닐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한다. 빛이 감도는 메닐 컬렉션은 팀워크의 결실이었다. 도미니크 드 메닐과 렌조 피아노는 끊임없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콘셉트를 공유했고, 렌조 피아노는 엔지니어 피터 라이스와 톰 바커와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 합리성을 토대로 그 개념을 실체화 시켰다.

렌조 피아노는 훌륭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야말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가 만난 도미니크 드 메닐이야말로 최고의 클라이언트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닐 부부가 미술관을 짓고자 했을 때 그들이 진정 원했던 건축사는 루이스 칸이었다. 칸이 갑자기 사망하자, 렌조 피아노가 그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 했다. 킴벨재단이 킴벨미술관 분관 계획을 렌조 피아노에게 맡긴 이유도 분명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루이스 칸과 렌조 피아노 두 사람 사이에는 공유점이 존재한다. 하늘로부터의 빛을 받아들여 건축의 빛으로 번안했고, 클라이언트가 내세운 프렌들리 홈과 마을 미술관 개념을 충실히 해석했다.
텍사스 주 답사여행을 떠날 때 포트워스의 킴벨미술관과 함께 휴스턴 몬트로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겨 렌조 피아노 미술관의 모태가 되는 메닐 컬렉션을 함께 탐침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휴스턴 라이스 대학 리차드 잉거솔(Richard Ingersoll) 교수의 표현을 떠올려 본다.

“르네상스 건축사 알베르티가 천리안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렌조 피아노는 열린 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의 상상력은 사물을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건축주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해결책을 찾아내지요. 기술자들과 건설업자와의 대화에서는 실험하고 있는 구조와 시공법을 찾아냅니다.”

건축제도 50년과 행복한 건축제도 방향

Architectural System Over the 50 years and the Direction to a Happy System

글. 이종정_ Lee, Jong-jung · 건축사 / 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경제·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의 제도 변천

대한건축사협회 50년의 제도생성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 관련법, 협회의 제규정은 물론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정과 성장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은 경제 압축성장과 도시 집중화에 따라 산업시설과 주택보급 과정에서 안전과 대형사고로 법체계와 제도의 큰 변화를 나타내고 1990년대는 WTO의 개방화에 따라 건축제도가 국제 기준으로 바뀌어 갔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요구되어 왔고 중반 이후 현재는 품질과 성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녹색건축, 에너지 절약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50년간의 건축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본다.

1. 1965년 협회 창립과 건축제도의 출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군사 최고회의에서 구법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5개월의 짧은 기간에 탄생한 건축법(1962.1.20)과 건축사 자격과 업무에 근간이 되는 건축사법(1963.12.6)이 제정되었다.

사회 배경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00불을 넘기고 경제성장률은 1.2%에 불과했다. 인구는 2천 8백만 명으로 세계 170여 국가 중 166위의 최빈국으로 주택보급률 등 통계조차 변변치 않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발기인회가 구성되고 창립 준비에 착수하여 건축사의 품위 보전 업무의 개선과 건축물을 개량 발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5년 10월 23일 설립되고 그 해 각 시·도 건축사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해 12월까지 임원 선출을 마쳤다. 그러나 시작은 평탄하지 못했다. 제1회 건축사 시험 파동이 있었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자격과 종전 제도의 특례 전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철시킨 것이 첫 번째 건축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였다. 신분증 및 배지를 배포하여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역활동의 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초기 조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1967.4.5~5.15)를 열어 30만 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큰 전시회로 현재의 한국 건축산업대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각 사무실의 설계표준작업 등 도서 작성 기술 등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강습회가 실시되어 회원교육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이 시기는 국회의사당 설계 현상의 자격과 절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동안 각종 행사와 건축계의 여론 등이 제도를 만들어 가는 초기 시기이다.

2. 1970년대 협회의 정착기, 건축제도의 여명기

제3, 4차 경제개혁 5개년 계획 기간으로 국민소득은 610불, 성장률 7.9%, 인구는 3천 4백만 명이였으며 주택보급률은 78%였다. 우리협회 회원은 1975년 1,580명, 허가면적은 25,969,000㎡ 정도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
건축법은 전면 개정되어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용적률의 완화를 통해 건축기술 발전이 계기가 되어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안전 강화와 행정처벌 등이 강화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및 남북교류와 제1차 석유 파동, 1975년 대연각 호텔 대형화재는 새로운 법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로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처음 있었고, 남북교류로 환경정비, 조경 식수 등 공해방지 필요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제성장은 차량 증가로 이어져 건축법에서 주차문제의 한계가 있어 별도의 주차장법이 제정(1979.4.17)되었다.
제1회 건축사대회가 건축대전과 함께 1971년도에 최초로 개최되어 건축의 대국민 홍보와 건축사가 문화창조자로 자부심과 회원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회원 행사 제도가 되었다. 또한 회원 복지제도로 그동안 설계비 덤핑 방지를 위하여 준비해 왔던 서울건축사회가 복지회를 설립함으로 각 시·도 건축사회에도 확산돼 복지회가 설립되어 협회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시기이다.
협회는 1974년 임대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서울 중구 서린동의 4층 건물을 매입했다. 1975년에는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회원 작품전을 개최함으로 협회의 운영 안정과 건축문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며, 1977년에는 최초의 건축사 의무보수교육이 인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3박 4일 실시되어 건축사의 교육제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3. 1980년대 정치의 격동기와 협회 안정발전기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10.26)로 유신정치인 제4공화국을 마치고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1980.9.1~1988.2.24) 집권기로 고도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져 성장률은 7.7%, 국민 1인

당 소득은 2,400불이 되었으며 인구는 4천만 명, 주택보급률 71.2%, 협회 회원수(1985년)는 2,369명, 허가면적은 38,217,000㎡이였다.

건축법은 경제성장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감리제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주감리제도를 강화해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건축 민원이 간소화되어(1982.4.3) 건축사 확인만으로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중간검사 대상 건축물도 축소되고 용적률 적용이 지역별로 정하도록 했다. 1986년에는 소규모건축물 규제가 완화(1986.12.31)되어 농어촌 주택과 축사용 소규모 건축물이 허가에서 신고제도로 절차가 완화되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보조사를 건축사보(1980.1.4)라 하고, 건축사 업무가 강화되어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 책임제도를 도입·운영토록 하고 벌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시끄러웠던 건축사 시험 특례(1989.4.1)는 건축직 공무원과 외국건축사에게 시험과목 일부면제가 시행되었다.

협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관 일부를 개정했는데 조직 강화와 사업활성화 근거를 마련, 정관 목적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국가의 건설시책을 건축문화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 교류의 확대시기로 1988년 사우디 공대 기술 연수원생이 국내에 파견되어 정림, 정일, 공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연수가 이루어졌다.
1984년에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제2회에 회원국이 됨) 일본 건축사 연합회 초청으로 방일하고 그 해 일본 건축사 연합회와 교류각서를 체결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AIA 총회에 처음으로 제15대 오웅석 회장이 참석하고 이탈리아 등 교류 확대가 활발하였다.
서초동 회관(구회관)이 1985.3.29 준공되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최초로 1989년에 제1회 전국 건축사대회가 개최되었다. 도중 중단도 되었지만 현재는 격년제로 시·도 건축사회 순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87년 회원 기대가 컸던 건축사 연금제도가 실적회비를 재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초 연금설계의 문제점 등으로 1995년 청산되었다.

4. 1990년 설계시장 개방화와 IMF 외환위기의 고난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이어진 시기이다. 건축행정의 큰 변화로 협회는 WTO의 개방화와 건설업체 설계겸업 요구 등으로 건축개혁을 시도하여

시장개방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계속되어 성장률 9.6%,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불로 중진국 진입을 했고 주택 보급률은 86%, 협회 회원수는 5,294명, 건축허가 면적은 123,755,000㎡(1995년 기준)이었다.

1997년 IMF로 건설경기는 반토막이 났고(1998년 건축허가면적 50,964,000㎡) 우리협회도 구조조정과 운영의 변화가 크게 있었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직까지 그 후의 시장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법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 전문개정(1991.5.31)되었으며 규제를 탈피하고 간소화된 건축정책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는 국정에 불만을 증폭시켜 시설물의 안전관계와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과 인명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1995.12.20)되었다.
건축사법 개정(1991.5.31)에서는 공사감리 확대(책임감리)와 건축사의 사후책임이 강화되었고, 건축사 시험제도는 종전 1, 2차 시험에서 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 시험으로 구분되었고 1차 예비시험 합격자는 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건설기술 관련 1급기사와 건축사보는 동등한 7년의 사무소 경력으로 조정되었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가 1994년부터 제기되어 1995년, 1997년까지 지속되었고, 1차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격 처리되었고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1997년 요구는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여 건설사 설계 겸업을 당사 사옥에 한해 설계 업무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990년대는 시장개방화와 건설시장의 변화로 제도선진화와 경쟁력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건축설계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협회에서도 처음으로 체계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 세계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부재를 달고 언론사를 통해 대국민 발표회를 갖고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국내 건축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남북교류의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담는 등 도약의 전환기로 정했다.

1995년은 건축사 대량 배출기로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선발해오던 건축사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배출인원 6,555명보다 많은 6,762명이 6년간(1995~2000년) 배출되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불황과 맞물리고 그 이후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을 못해 현재 시장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어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 한몽 상호협력, 한중일 교류 협력 협의회와 제10회 아카시아포럼(1999.9.13)이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협회 창립 당시부터 도서신고에서 도서등록 제도로 이어져 오면서 설계비 덤핑방지 역할과 각 시도 복지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행정쇄신위원회의 도서등록제도 폐지 결정으로 회원복지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왔고, 1995년에는 건축사 연금제도도 780억 원의 기금이 청산되었다.
그리고 1997년 협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건축연구원 설립에 이어 교육원 건축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정책수립과 회원을 위한 교육, 기술서비스를 시도하였으나 재정 지원의 어려움으로 사무처 조직에서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1994년 '한국 건축전'이 '한국건축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동운영 되어오다 1998년 자주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99년은 정부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건축엑스포와 한국건축 100년전이 개최되었다.

5. 2000년 협회 40년 국제화 시대 협회도약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로 이어간 시대이다. 국민소득은 10,800불을 넘어 섰고 주택보급률은 96.2%, 주택호수는 1,147만 호가 되어 천만 호를 벗어났다. 우리협회 회원은 8,104명, 허가면적은 111,506,000㎡(2005년 기준) 이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기업, 금융의 구조조정과 가치창출 노력의 결과로 후기 중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였다.

건축법은 1980년대까지의 촉진법 시대의 법체계에서(개발주도시대) 1990년대의 건축행정 문민화의 조정기를 거쳐 2000년대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종합계획관리체계로 이어졌다. 알기 쉬운 건축법(2008년)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2005년의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이어 내부마감재료 사용 강화(2008.6.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도입(2009.3.6), 책임 행정체계 확립(2009.4.1), 마감재료의 강화(2009.12.29) 등으로 자연과 환경의 쾌적한 삶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었다.

건축사법은 건축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자유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건축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사예비시험도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자격 부여토록 함으로 대학 건축학 교육이 건축사 양성 교육제도로 국제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고 제도를 설계비

담합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해 2008년 폐지 권고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혼란스럽게 한다.
협회는 2000년 들어 UIA에 회원 단체가입(2000.6.25) 함으로 국제화 시대의 전문가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고 2017년 서울 UIA세계건축대회 개최를 유치하였다.
건축학인증원이 설립되고 2002년 드디어 건축학 5년 제도가 실시되어 신입생이 모집되었다.
협회는 2003년 구회관 개축 승인이 되고 현회관이 2006.12.8 준공됨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협회의 사업들이 안정되고 활성화 되어갔다. '한국 건축산업대전'의 이름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건축문화신문 창간(2006.9.9), 서울국제건축영화제(2009.11.19) 개막식을 가졌다.
건축기본법의 탄생. 양적 충족에 맞추어진 시대의 건축법에서 질적 만족의 도시건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건축기본법 제정(2007.12.21)이 건축사법에서의 설계 중심 업무에서 공간환경의 설계 주체로 건축사 업무를 확대하였다.
협회 발전기본계획(2009년)은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회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봄으로 건축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 사업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 제도이다.

6. 2010년~현재, 미래 건축 50년의 구축기

이명박 실용정부에 이어 행복한 국민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115%, 주택호수는 1,500만 호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구조는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 25년의 경제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협회 회원수는 9,600명, 허가면적은 138,049,000㎡(2014년 기준)으로 최근 허가 통계를 보면 L자형으로 성장성숙기의 형태로 양적 성장 조정기로 보인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에 대하여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기술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체계 전환으로 바뀌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 효율성 향상과 고층 건축물의 구조 안전,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 장수명 건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또한 안전 품질성능이 중시되어 내진등급강화 및 내부마감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한편으로 규제완화(2014.1.14)로 건축 관련법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건축심의의 공정성 확보(2014.5.28)로 건축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건축사법은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편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사 시험제도에서 건축학

5년을 위한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협회는 2010년 공제 사업 정관개정 의결이후 공제조합 창립총회(2010.12.6)에 이어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5년차에 있으며, 2015년 독립법인 공제조합이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6.4) 제정으로 건축산업의 지원 육성과 진흥을 기대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산업정보체계 구축,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 못하도록 하고 발주방식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한 발주방식을 선정토록 하였다.
건설업체 설계 겸업요구도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포함시켜 계속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도 건설협회장의 포기가 합의된 상태이나 언제고 설계겸업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관개정(2013.4.10)에 따라 회장선출이 간선제에서 회원의 직선제 임기 3년으로 현재 제31대 회장이 탄생된다.

이제까지의 법 제도 변천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법, 건축사법, 관련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권은 제3공화국 이후 7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경제는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최빈국에서 3만 불의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인구는 2천 8백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되었고 주택보급률은 115%에 이르렀으며 주택호수는 1천 5백만 호가 되었다.우리 협회 회원도 422명으로 시작해 9,600명에 이르며 건축허가면적도 10,000,000㎡에서 141,346,616㎡로 수적 성장을 하였다.

건축법은 제정 이후 92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건축사법은 28회, 협회 정관 36회, 회장은 31대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 제도가 만들어 내는 환경이다.
앞으로도 제도는 환경의 방향에 따라 변할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다양한 사회, 문화 요구와 첨단기술과 정보통신의 기술 환경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얼마 전 다큐프라임의 행복건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집을 기억하고, 소통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행복한 건축이라 답하였다.

끝으로 협회의 "지나온 나아갈 50년" 토론회의 김현진 건축사 토론문 중에서 "저는 공공성과 윤리 문화와 미학처럼 건축에 과하게 부과된 의미를 힘겹게 쫓기보다는 설계를 잘해서 좋은 건축과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궁극적으로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다"는 젊은 미래 건축사가 있어 행복한 건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매경미디어그룹과 업무제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가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과 포괄적 업무제휴협약으로 건축사홍보와 건축문화진흥행사 개최에 함께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9월 3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충무로 소재)에서 매경미디어그룹과 한국건축산업대전,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등 건축문화진흥행사 개최 협력,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정보공유, 교육 및 홍보를 골자로 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매일경제」신문과 종합편성채널「MBN」, 인터넷미디어 「매경닷컴」을 계열사로 거느린 국내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건축전문가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으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충기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고 건축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적폐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어린이 건축교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7개 시도건축사회 건축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도 후원하기로 했다.

장대환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컨벤션 산업, 특히 건축·주택 등 건축산업대전, 하우징페어와 관련된 역사는 그 규모나 국민적 필요성이란 차원에서 보면 아직 일천한 수준"이라며 "매경미디어그룹과 국내 최고 건축전문가 그룹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손을 잡은 만큼 국내최고, 아시아 최고 건축문화행사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건축사연맹(UIA) 2017년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에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AIA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국내 건축사들과 간담회 가져

미국건축사협회(AIA) 엘리자베스 추 리처 회장이 9월 8일(화)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AIA회장 방문은 2011년 클락 마누스 전 회장과 2014년 헬린콤즈 드라일링 전 회장에 이어 3번째다.

9월 5일(토)부터 9일(수)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엘리자베스 회장은 9월 7일(월) 신라호텔에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단과 '건축 전문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날 8일(화)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건축현안에 대한 논의와 향후 양단체의 교류활성화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엘리자베스 회장의 대한건축사협회 방문에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이근창 명예부회장, 권병조 상근부회장과 대한건

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오동희 위원장 등 국제위원들이 함께했고 국토교통부 김용수 사무관(건축문화경관과)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단체에 대한 이해와 양국의 건축사 현안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었다.
건축사의 용역에 보수와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안건에 있어 양 단체 모두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공감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정부 정책과정에서 협회가 특히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협회의 법제도개선 참여에 대한 미국의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양 단체의 교류와 양국의 건축산업 상호발전을 위해 건축사 계속교육에 대한 정보 자료제공 및 상호인정에 관한 건과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간소화 및 시간단축에 대한 사항, 여성 건축인력 확보에 관한 협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충기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부분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협회는 5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R&D 투자 △법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사회공헌 활동 △대국민 홍보에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회장은 "성대한 환영에 감사드린다. 양국의 교류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답했다.
엘리자베스 회장은 간담회 이후에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을 견학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연구원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건축사공제조합 △건설기술자관리기관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기관 △친환경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격려하며 대한건축사협회 방문일정을 마치고 한국거주 AIA 회원들과 리셉션을 갖고 9월 9일(수) 출국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15기 개강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석정훈)는 9월 3일(목)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15기 개강식 및 환영회를 갖고 25명의 수강생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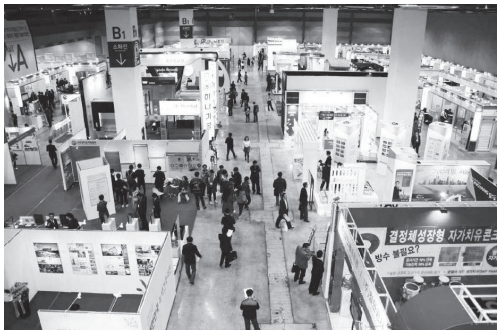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제4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행사 개최

대한건축사협회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4번째 맞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건축교육 체험행사로 건축체험 참여학습 및 다양한 건축문화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고, 창의적 사고력 증진 및 예술성·사회성 강화하고 우리 건축문화 자긍심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11.6(금)~11.7(토) 1박 2일간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 및 새마을연수원(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4, 5, 6학년(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동기 및 지정주제 글, 그림 심사 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중 경진대회를 통하여 시상도 할 예정이다.
다양한 건축체험 및 참여학습으로 구성된 이번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은 건축에 재능을 가진 어린이 육성 및 미래 좋은 건축주가 되도록 하는 참교육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지역건축사회, 추석맞이 이웃 나눔 실천

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윤남호)는 9월 9일(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2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85포를 부천시 오정구청에 전달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윤남호 회장을 비롯하여 47명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등 지역 사회에 재능기부활동은 물론 추석명절에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모아 쌀을 전달했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 개최



국내 최대의 건축전문전시회인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5 / 이하 KAFF2015)'가 10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코엑스(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Green & Safety"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우수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IT 등이 전시되는 건축자재전시관과 테마기획 전시관(프로젝트전시관, 국토개발홍보 관)을 축으로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 대상,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등 시상식과 건축사미술전, 건축사 실무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주최하는 '녹색건축한마당'이 동시개최 되는 KAFF2015는 공공, 민간, 학계의 다양한 참관객이 참여하는 B2B, B2G 전시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으며 더욱 다채롭게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주최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와 '매일경제' 신문, 종합편성채널 'MBN', 인터넷미디어 '매경닷컴'을 계열사로 거느린 국내 최대 미디어그룹인 매경미디어그룹이 건축문화진흥행사 미디어파트너로서 MOU를 맺고 상호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일만여 건축사들과 건축사사무소 직원, 건축공무원, 건축학계 관계자와 건축자재 업체들의 교류의 장으로 가치를 더하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신진건축사들이 '집 365. 신진건축사가 말하는 삶에 맞는 집'이라 는 제목으로 '집'에 대한 바람을 전시한다. 관람객에게 건축상담도 진행하며, 신진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및 세미나로 건축사실무교육, 건축정책세미나 및 녹색건축토론회가 기획돼 있고 문화전시회로 녹색 건축대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건축사 미술전, 신진건축사대상 등이 함께 개최 된다.

건축계의 올림픽인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대비한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대회(Convention), 전시박람회 (Exhibition)도 함께하며 국내 유일의 건축 MICE 산업 모델로 진화해가고 있다.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5,164명 응시
응시율 86.7%, 11월 6일 합격예정자 발표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9월 5일(토) 전국에 15개 시험장(서울 11, 부산1, 대구1, 광주1, 대전1)에서 시행됐다.

지난 7월 8일(수)~15일(수)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통해 5,954명이 접수한 이번 자격시험에는 5,164명이 응시해 응시율 86.7%를 기록했다.

건축사자격시험은 1교시 대지계획, 2교시 건축설계 I , 3교시 건축설계 II 로 각 180분씩이며, 응시 자격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 후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자나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는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필요로 한다. 과목별 합격으로서 각 60점 이상, 3년 동안 3과목 합격 시 건축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건축사자격시험의 최근 10년 평균 합격률은 7.43%이다. 합격예정자는 11월 6일(금)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영등포건축사회, 벽화그리기 재능나눔

영등포구지역건축사회(회장 김기훈)는 지난 9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영등포구청 별관 벽화그리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10점, 계획건축물부문 302점 등 총 412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1월 5일(목)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부터 11월 13일(금)까지 건축사회관 1층과 3층에서 전시된다.

<대상>

부 문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사회공공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유태용	대우건설	서울대학교
민 간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조병욱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공동주거	서울강남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이민아	현대아산	LH
일반주거	부산 S주택	황 준	이우석	이우석

<본상>

부 문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사회공공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정영균	한양	전력거래소
민 간	다음 스페이스닷키즈	신승현	계룡건설산업	카카오
공동주거	대신 센트럴자이 아파트	최재현	GS건설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일반주거	동탄 캥거루 패시브하우스	윤태권	송인광	송인광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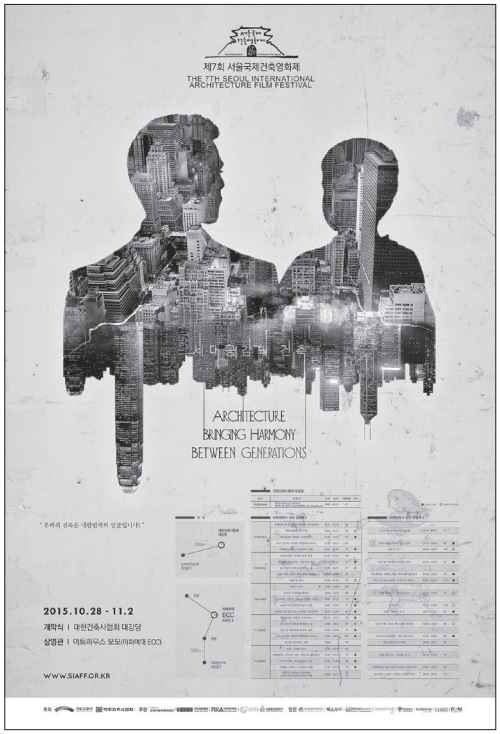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한전KPS주식회사 본사 신사옥	정영균	계룡건설	한전KPS주식회사
정부세종청사 2-2구역	윤세한	대림산업	행정자치부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 치과병원	신동재	태흥개발	서울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창섭	현대건설	LH
동화고등학교 송학관	임정택	도림	학교법인 동화학원
함안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이한종	에이스건설산업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춘천 네이버 지식정보캠퍼스	김 혁	대림산업	네이버
화인링크	김수영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화인링크
에이치 케이 사창리 공장	임재용	평화건설	(주)한광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연수원	김관중	삼성물산	삼성화재해상보험
가까운교회	곽희수	예장건설	대한예수교장로회 가까운교회
세종 힐스테이트	정영균	현대건설	현대건설
캥거루 하우스	허진성	김민기	김민기
틈틈집	강영진	김문경	김문경
Y-하우스	정웅식	이현자	이현자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의 공공에 대한 역할" 세미나

대한건축사협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의 공공에 대한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제1주제는 '건축협정제도와 운영 가이드라인(발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 제2주제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품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세미나는 건축협정제도 운영에 있어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건축사의 공공에 대한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발표 후 토론은 왕정한 건축사(前 건축협정TF 위원장)를 좌장으로 조은혜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여혜진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섭 건축사(강림씨엠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건축사(라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다.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0월 28일~11월 2일 개최



국내 유일의 건축과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축제인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주최 대한건축사협회, 조직위원장 류춘수)는 영화를 통해 건축 속에 담긴 인간의 삶과 건축의 사회적 ·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매년 영화제를 주최해온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50주년을 새롭게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세대공감(世代共感)의 건축'을 주제로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작품을 구성했다.

이번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10월 28일부터 6일간 14개국 19편의 건축영화를 선보이며, 개막작은 독일 '마우리치우스 슈테어클-드럭스(Maurizius Staerkle-Drux)' 감독의 <뵘 가문의 건축과 함께하는 삶(Die Böhms)>이 선정됐다. 개막작 <뵘 가문의 건축과 함께하는 삶(Die Böhms)>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ward)' 수상자인 노건축사 '고트프리드 뵘(Gottfried Böhm)'의 삶을 조명한 의미있는 작품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댈러스 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독일의 대표 건축사로 손꼽히며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93세의 노건축사 '고트프리드 뵘', 영화는 단순히 업적이나 작품만을 나열해 보여주는 형식을 탈피하여 그의 삶을 담백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면서 건축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잔잔하게 감동으로 전해준다. 개막작과 함께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크게 4개의 섹션-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건축 유산의 재발견, 어번스케이프, 비욘드-으로 나눠 영화를 선보인다.

- 명칭: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7thSeoulInternationalArchitectureFilmFestival(SIAFF)
-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 ~ 11월 2일(월)
- 장소: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 (개막식은 10월28일 19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
-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 프로그램
  - -(섹션1)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저명한 건축사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영화소개
  - -(섹션2) 건축 유산의 재발견: 낡은 건축물과 이를 복원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소개
  - -(섹션3) 어번스케이프: 무분별한 도시화에 대한 일침, 아시아의 발전된 도시상을 되돌아보는 영화소개
  - -(섹션4) 비욘드: 건축영화의 경계를 넘어 패션,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예술과의 결합/경계를 넘어서는 영화 소개
  - -부대행사: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관객과의 대화, 각종 이벤트 등
- 문의: 02-3415-6826, 02-3415-6841(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siaff.or.kr

'건축사와 함께하는 내집짓기 프로젝트-집 in 家' 세미나 안내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내집짓기 프로젝트-집 in 家' 세미나가 11월 11일(수) 오후 3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예비 건축주 등 일반인들에게 건축설계의 중요성 및 건축과정 시 주안점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로 곽은선 건축사(이에스 건축사사무소)가 '내집짓기 건축설계의 중요성 및 건축 프로세스의 올바른 이해'를, 다음으로 정승이 건축사(유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시공의 올바른 이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시간 1시간 인정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통일나눔펀드 기금 모금 운동 연장

정부의 공식 기부금품 모집단체인 '통일과 나눔 재단'과 조선일보가 함께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기금 모금 운동을 연장하여 모집한다.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기부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건축사, 건축가족 50만 명이 참여하는 실천이 통일과 기부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통일나눔펀드 기부약정서를 팩스(02-3415-6899)와 이메일(kira@kira.or.kr)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에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02-3415-6813)으로 하면 된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 남구 희망주택리모델링 후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가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가진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업무 협약'에 따라 9월 8일(화) 후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강영준)는 9월 15일(화) 이도일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시 다문화가족위해 성금 쾌척

하남지역건축사회(회장 김형곤)가 9월 4일(금) 하남시청에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지역의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후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아산지역건축사회, 지역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아산지역건축사회(회장 강문철)는 9월 16일(수) 안산시 인주면 공세리 다문화가정을 찾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Ⅳ

Parametric DesignⅣ

글. 성우제_ Sung, Woo-jae
Grimshaw Architects / Associate
www.woojsung.com, www.selective-amplification.net

지난 회까지 3회에 걸쳐서 parametric tool의 정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회부터는 약속드렸듯이 parametric tool이 실제 건축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각 회별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는 큰 그림상에서 parametric tool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를 구분하고 정의 내린다는 것은 마치 연필과 종이가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디어를 medium을 통해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된 아이디어를 구축적인 방법으로 실현해 나가는 전통적인 건축설계 프로세스의 틀에 입각해서 보았을때 parametric tool의 사용은 아이디어의 표현과 실현이라는 두 극단의 어느 특정 한점만에 위치한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두 극단의 성격을 동시에 나누어 가진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형태가 생성되는 논리적인 바탕, 혹은 알고리듬이 없이는 형태를 생성할수 없다는 parametric tool의 특성상 parametric tool의 사용은 어떠한 건축의 단계에 쓰이더라도 항상 심미적, 공학적인 두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parametric tool이 디자인에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프로덕션에 사용되는지를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회에 말씀드릴 프로젝트도 이러한 parametric tool의 종합성 혹은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 곡면상의 직선

평행과 직선의 개념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와 더불어 변했다는것은 이러한 geometry를 늘상 다루어야 하는 건축사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공간상에 어떤 곡면이 있고 이 곡면위에 유클리드 geometry 직선의 개념에 상응하는

선, geodesic이 존재할때 이 비유클리드 geometry상에 존재하는 어떤 (직)선은 유클리드 공간상에 살아 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간의 눈에는 어쩌면 당연하게 직선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평행의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비유클리드 geometry상에서는 무수히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클리드의 공간 개념아래서 비유클리드 geometry상의 평행을 관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다른 평행의 개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fig.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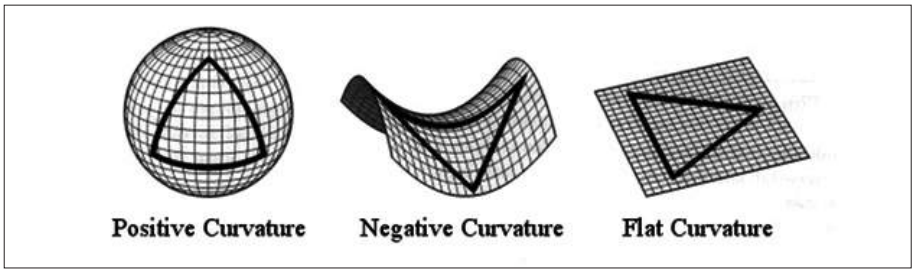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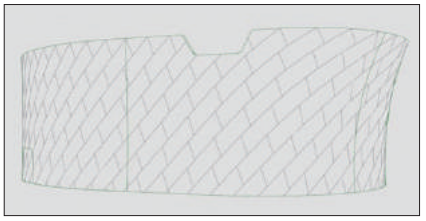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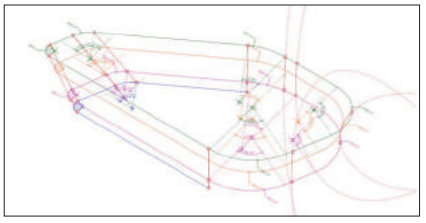


Figure 3

문제의 시작은 평면과 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설계면 상에서 패널링을 위한 선들이 곡면부분을 지나면서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fig.02/fig.03]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평면상의 직선이 곡면으로 확장되는 순간 평면상의 직선이 가지고 있는 직진성을 곡면상에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임의의 방법으로 유클리드 직선과 비슷해 보이는 선을 비유클리드 곡면상에 정의한다 하더라도 곡면의 곡률로 인해 우리의 눈에는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이러한 선에 평행이 되는 선을 그릴때 곡면의 곡률로 인해 그 평행이 되는 선들은 더욱더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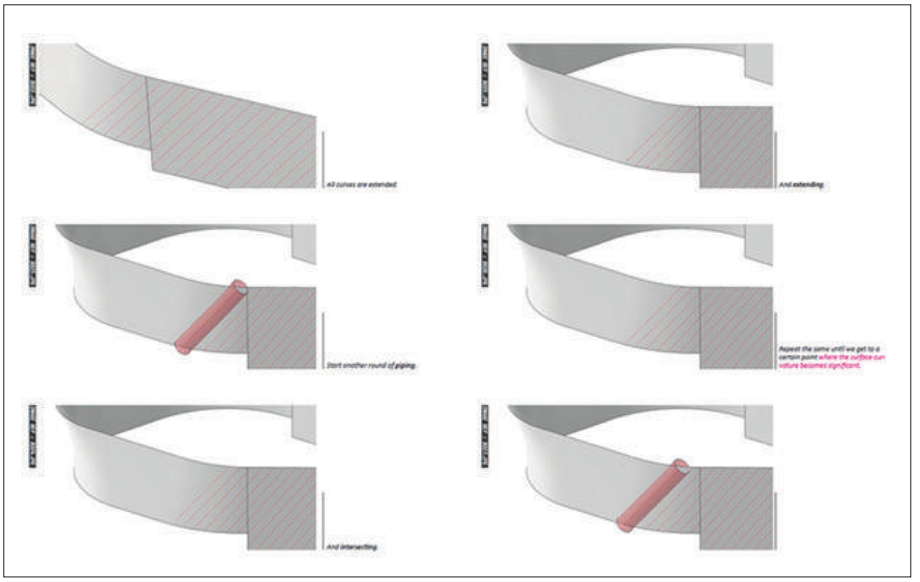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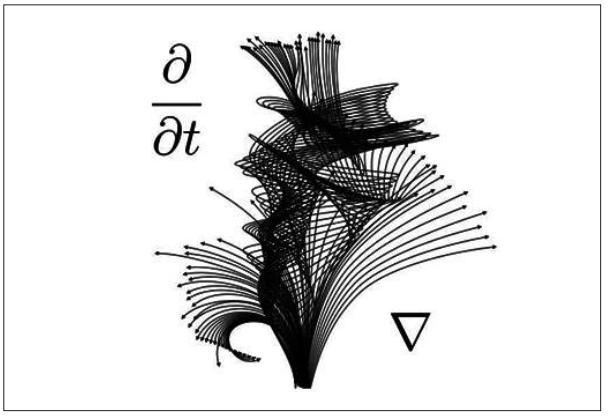


Figure 5

Rhino를 다루어 보신 분들은 곡면상에서 offset curve on surface를 통해 커브를 얻게되면 두 선 사이의 거리는 면에 종속이 된다는 걸 아실겁니다. 즉 offset curve on surface를 통해 얻어진 두 선의 거리는 surface uv 좌표상의 거리로는 정확히 입력한 거리만큼 벌어지지만 이를 world xyz 좌표상에서 측정해 보면 곡률에 의해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piping method를 통해 해결될수 있습니다. [fig.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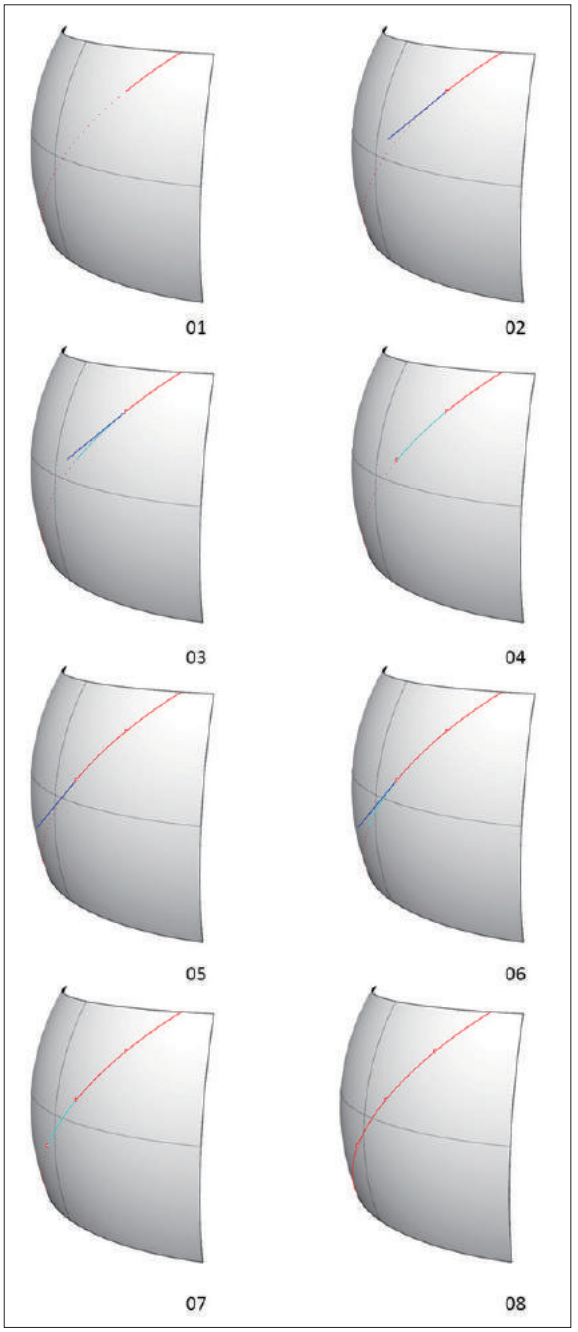


Figure 6

곡면위의 선을 원하는 오프셋 거리만큼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파이프로 만든후 이 파이프가 곡면과 교차하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비유클리드 곡면상의 선을 유클리드 좌표체계로 offset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주어진 선이 얼마만큼 직선과 같아 보이느냐에 따라 이러한 방법도 왜곡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자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곡면상에서 직선처럼 보이는 선을 정의하는가 였습니다. 기본전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이었지만 불완전한 해결책을 미분방정식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분방정식이 특정한 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물리적 화학적인 거동을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거동을 설명해 주듯이, 만일 어떤 선이 아주 짧아서 곡률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보일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아주 짧은 선들이 tangent로 연속될 수 있다면 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선 또한 왜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fig.05]

평면상의 직선이 곡면을 만나는 지점에서 그 직선에 탄젠트인 아주짧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곡면상으로 당깁니다(pull). 아주 짧다면 당기기 전의 직선과 당긴 후의 곡선이 가지는 오차는 무시할만큼 작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곡선의 끝에서 탄젠트인 아주 짧은 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면을 향해 당겨줍니다. 이런 과정을 면을 다 채울동안 반복합니다. [fig.06]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라이노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행하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Grasshopper VB Script의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을 이용하여 이를 자동화 했습니다.

Figure 7

간단히 말하면 기준이 되는 선과 곡면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설정하는 변수를 입력하면 기준이 되는 선에서 설정된 길이만큼 탄젠트라인을 만들고 이를 곡면에 당겨주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듈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하되 선이 면의 다른 엣지에 도달하면 반복을 멈추는프로세스입니다. [fig.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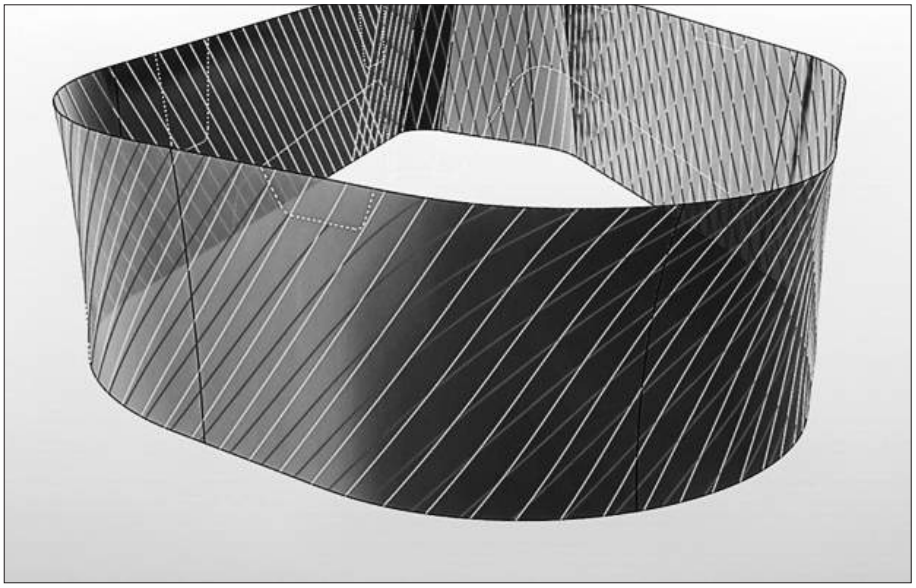


Figure 8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곡면상의 선과 파이핑을 통해 오프셋된 패널링 라인들은 기존의 라인들 - 임의로 그려진 곡면상의 직선및 offset curve on surface 로 얻어진 평행라인들 - 과 다르게 곧은 라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fig.08]

본 프로젝트에서 곡면상의 직선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앞에서 간략히 말한바 있지만 미적인 요소와 구축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base geometry의 영향으로 특정부분의 선들이 왜곡되어 구부러져 보이는 실수와 같은 미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각 패널들의 손쉬운 재단 및 평활도 유지를 위한 구축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예술 가오슝 센터

The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글. 이지현_ Lee, Ji-hyun ·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할 건물은 대만의 항구도시로써 국제적 요충지 구실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점차 융성해 가고 있는 가오슝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예술 가오슝 센터(The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Wei-Wu-Ying)) 이다. 2000 좌석의 콘서트홀과 2250 석의 오페라 홀, 이외에도 크고 작은 극장을 겸비하고 있는 이 시설은 네덜란드의 건축사 그룹 Mecanoo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이곳은 전 군사기지였던 곳을 아열대 공원으로 형성시킨 숲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첫째로 눈에 띄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곡선을 타고 흐르는 공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얀 나무의 형태를 추상화 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 거대한 지붕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면으로부터 38m에 달하는 높이까지 이중 곡면을 형성하면서 올라간다. 이 곡면은 때로는 밟을 수 있는 땅이면서, 벽면이면서 지붕인 덩어리(Mass)로 읽혀진다.

Aero photo by Kouzi Isita

Banyan trees

이러한 덩어리는 땅에서 지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적 공간인 광장을 지붕 하부에 형성시킨다. 이 공간에서는 아열대 공원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태극권과 다양한 체조를 하는 공원이 된다. 이 비정형적 매스는 조금씩 고개를 숙여 앞쪽에 숲이 보이는 곳에 무대를 형성한다.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amphitheatre)이 적합한 땅에 돌을 얹어서 형성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시작했던 매스는 원형극장의 계단이 되면서 다시 땅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덩어리인 매스가 들어 올려졌다 내려지는 방식으로 주변의 공원의 공간과 형성하는 외부-내부의 관계가 흥미롭다. 바람의 흐름이 멈춤 없이 연속적인 곡면으로 이어져있으며 외부에서 언젠가 내부가 되어있다.

2007년 현상설계에서 Mecanoo가 당선되고 나서 복잡한 비정형적 형태의 건물 스킨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플라스터, 타일, 콘크리트, 막구조 등등 적합한 재료와 구조에 대해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으나 그 어떠한 재료나 구조도 그리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연유한 것이라기보다, 언급된 재료의 대부분은 이중 곡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뒷면에 부재를 대거나 프레임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두 번 형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Mecanoo는 구조와 재료가 일치된 단일물질로 이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착안한 것은 바로 선박의 제작과정에서 쓰인 철골 구조물이었다. 선박은 그 표피의 제작이 물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된 이중 곡선 표면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반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착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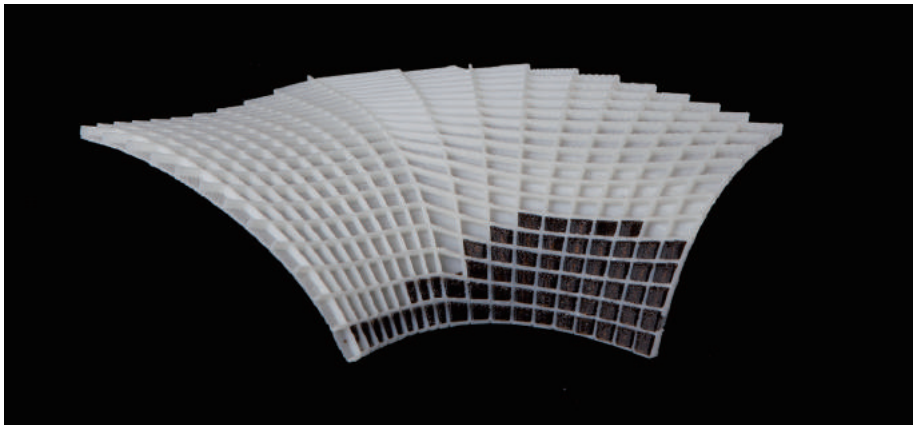
2008년 초에 드디어 그들은 선박제작 엔지니어들에게 연락하여 이 건축적 형태의 실현

example of assemble of metal elements Banyan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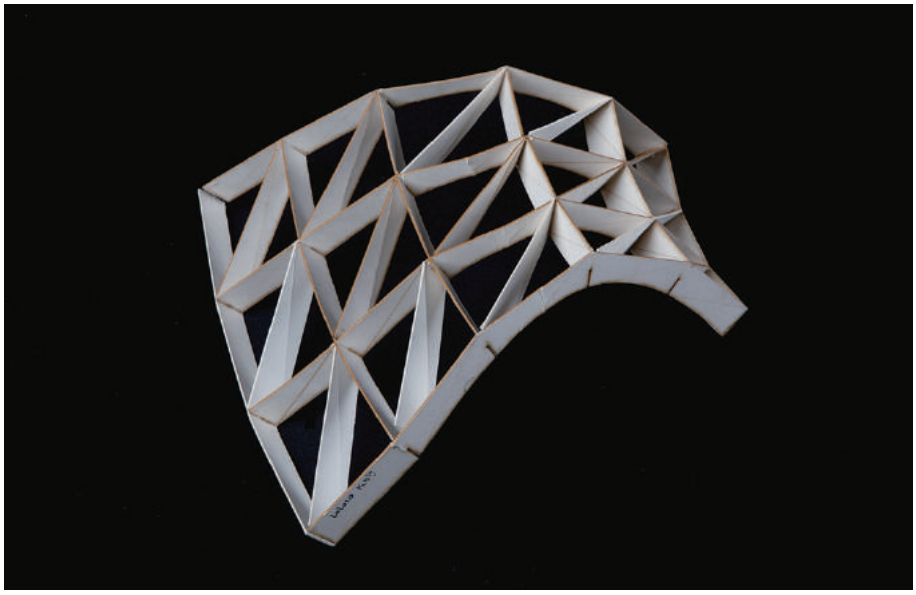
가능성을 묻는다. 그리고 이 비정형적 이중 곡면 형태를 단일 물질-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일단 Rhino와 Digital Project(BIM Software)에서 만든 3D Model을 통해서 선박 엔지니어들에게 파일을 전달하고 그들의 자체적인 Software로 다시 통합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한판의 크기는 5m×8m, 두께는 6mm의 스킨을 완성하고 그 뒤에 보강재를 대어 전체적인 곡면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하나하나의 판들은 "저온 굽힘(cold bending)"을 사용하여 금속판 자체에 tension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구조는 건물 전체에 다섯 개의 코어를 두고 이를 경계로 하여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로 독립적 구조체처럼 나누어 계산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매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각각의 구조적 system이 연결된 것이다. 또한 이 건물에서 음악 콘서트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만큼 음향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소리가 어떤 크기의 공간인가, 그 공간의 벽과 천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부러져있는가에 따라서 반사되는 소리의 질이 많이 달라짐으로 각각의 콘서트홀이 각각의 소리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공간의 크기와 스킨의 패턴이 정해졌다.

Harry Cock



3D_ print model of skin plate with stiffeners



Stiffener frame of skikplate

이와 같이 이러한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이라면 바로 여러 분야, 즉 구조 기술, 재료 기술, 음향 기술, 조명 기술 등등의 전문적 영역들을 건축사 그룹의 지휘 아래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이었다.
특히 이 구조물처럼 선박 엔지니어의 기술을 건축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복합적인 작업이 되었다. 최근에 부쩍 많이 시도되고 있는 비정형적 건축은 상대적으로 지

나치게 높은 공사비 때문에 그 정당성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낳았다. 기술의 발달과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가능해 지면서, 어떠한 형태와 구조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은 오브제가 아닌 얹히는 땅이 있는 만큼 문맥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Contextualism의 주제가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2014년에 완성된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역사공원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도시의 문맥과의 관계 안에서 건축물을 바라본다는 것도 해석상에서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하여 Mecanoo는 주변의 자연이라는 무대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곡면의 형태가 자연의 그것과 퍽 닮아 있으며 곡면이 올라가는 38m의 스케일 역시 공원을 부드럽게 둘러쌓는 정도의 압도적이지 않은 크기여서 적절하다고 답한다.

Yun-Ying Chiu 1 roof

facade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9월말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51	25.5%	980	19	0	999	942	111	33	15	12	1,113	37	2,149
부산	821	8.5%	571	8	0	579	143	24	9	0	2	178	5	762
대구	747	7.8%	570	13	5	588	78	11	5	3	0	97	9	694
인천	392	4.1%	302	2	0	304	60	7	1	0	0	68	9	381
광주	318	3.3%	229	1	0	230	58	5	1	2	1	67	3	300
대전	362	3.8%	270	5	0	275	37	7	3	1	1	49	4	328
울산	247	2.6%	210	4	0	214	18	3	0	1	0	22	1	237
세종	55	0.6%	33	0	0	33	18	2	0	0	0	20	0	53
경기	1,311	13.6%	939	1	0	940	284	12	5	2	1	304	25	1,269
강원	255	2.7%	213	2	0	215	29	2	0	1	0	32	1	248
충북	335	3.5%	254	2	0	256	51	3	1	2	1	58	1	315
충남	380	3.9%	299	3	0	302	55	8	0	1	0	64	0	366
전북	343	3.6%	283	4	0	287	35	7	0	0	0	42	3	332
전남	266	2.8%	221	0	0	221	33	3	1	0	0	37	3	261
경북	541	5.6%	474	5	1	480	42	4	0	0	0	46	4	530
경남	609	6.3%	544	5	0	549	46	4	0	0	0	50	1	600
제주	189	2.0%	152	0	0	152	28	2	1	0	0	31	2	185
합 계	9,622	100%	6,544	74	6	6,624	1,957	215	60	28	18	2,278	108	9,01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9월말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3,176	5,314
서 울	4,199	3,399
부 산	801	252
대 구	705	155
인 천	387	20
광 주	317	130
대 전	373	103
울 산	240	72
경 기	1497	270
강 원	265	40
충 북	332	111
충 남	344	97
전 북	346	67
전 남	282	113
경 북	514	78
경 남	613	129
제 주	189	95
세 종	55	26
기 타주)	1,717	157
비 고	회원 : 9,478 / 비회원 : 3,698	대학 : 4,741 / 대학원 : 573

주) 위의 통계의 기타는 건축사등록시 '근무처 없음'을 선택한 건축사임에 따라, 실제 등록현황과 상이함.